

(사)인문연구원 **통교속** 남도역사기행 ②
2021.4.17

文 林 義 鄉 長 興 문림의향, 장흥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2021 국내답사 2차

남도역사기행 장흥

“다함께 떠났노라 마침내 보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사)인문연구원 동고송에서 4월을 맞아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갑니다. 예부터 장흥은 천관산의 위용 아래 천년고찰 ‘보림사’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의 격전지 ‘석대들전적지’ 등 많은 역사유적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모두 오시어 동고송이 준비한 남도역사기행을 함께 해 주십시오.

- 일시** 2021년 4월 17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 출발 장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앞 오전 9시 출발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 6)
- 답사지** 보림사-해동사-사인정-석대들-동학혁명기념탑-기념관-영회당
- 해설** 노성태(남도역사연구원 원장)
- 회비** 2만 원
- 준비물** 마스크 착용, 편한 복장
- 문의** 010-9810-1966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보림사 전경	사인정 표지석	동학농민혁명기념탑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석대들 전경	
해동사와 안중근 의사 위패 봉안 행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부	〈표지 사진〉

남도역사기행 ② 장흥_ 자료집을 펴내며.



1. 이번 자료집을 준비하며 생각한 것은 ‘진화하자!’였습니다. 여기서 ‘진화’는 어느 생물학자의 말처럼 ‘진보가 아니라 적응’이며 ‘다양성의 증가’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2. 흔히 장흥을 ‘문림의향’이라고 합니다. ‘문림’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보고자 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인들을 다뤘습니다. 소략할뿐더러 빼놓은 인물들도 많습니다. 장흥 ‘의향’의 역사는 임진왜란~정유재란 시기,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근현대의 여러 사회운동을 축으로 가능한 한 자세하고 넓게 정리했습니다.
3. 특히 장흥의 동학농민혁명은 기본적인 정리 외에도 기억의 장소(현장), 가슴 저미는 사연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120년이 넘는 지난 시대의 일이지만, 아직도 ‘살아 있는 과거’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동사에 스며있는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새기며 21세기 평화의 꿈을 꿈꿉니다.
4. 한편,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의 국내독립운동사적지 간행물 중에서 광주전남 자료만 잘못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 중의 하나인 장흥 석대들 전적지는 연표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는 자료들도 많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도, 관계자와 통화하며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5. 그러나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장흥문화원과 장흥문화공작소 분들입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다과와 함께 귀한 책자들도 듬뿍 챙겨주셨습니다. 귀찮은 전화에 일일이 응대 해주시면서 필요한 책자들을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꼭 놀러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6. 다음 남도역사기행은 ‘보성’입니다. 이제 다시 ‘열공’입니다.

2020. 04. 14. 시간에 쫓겨 미처 다듬지 못한 원고를 넘기며
편집자 박 전 일

목차

1. 장흥 역사의 결정적 장면들 -/5

2. 찬란한 불교문화의 보고_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9

보림사 / 보림사의 명품들 / 천관산과 천관사

3. 길이길이 흥하리라! _ 고려 시대의 장흥 -/19

4. 문림의 향기, 조선 시대 장흥의 선비들 -/21

마천목 / 백수장 / 백광홍 / 신잠 / 백광훈 / 유호인 / 위백규

5. 일문창의, 전란기 나라를 지킨 사람들 -/31

정경달 / 위덕의 / 남평문씨 / 장흥마씨 마하수 5부자 / 초계변씨 13충훈
김응원 / 장흥 회령포

6. 1894 석대들,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불꽃 -/37

장흥 동학마을 지도 /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
여성선봉장 이소사, 그리고 여성들이 치른 전쟁
장흥 동학농민혁명, 그 기억의 장소들(장흥 각읍, 각면)
엇갈린 인연, 이방언과 김한섭 / 한 일본군 병사의 종군일지 / 연표

7. 다시 피는 녹두꽃, 근현대 장흥의 사회운동 -/61

장일 항일운동 역사 지도 / 정두흠 / 위계룡과 채용신 / 항일의병
장평 항일의병 / 3·1운동과 김재계 / 천관산 항일사건 / 광주학생독립운동
전남운동협의회 / 장흥의 해외독립운동가들 / 오누이 독립운동가들
해방의 감격에서 전쟁의 비극까지(해방공간)
안중근 의사와 장흥 해동사

8. 문예의 전통을 잇다, 현대 장흥의 문인들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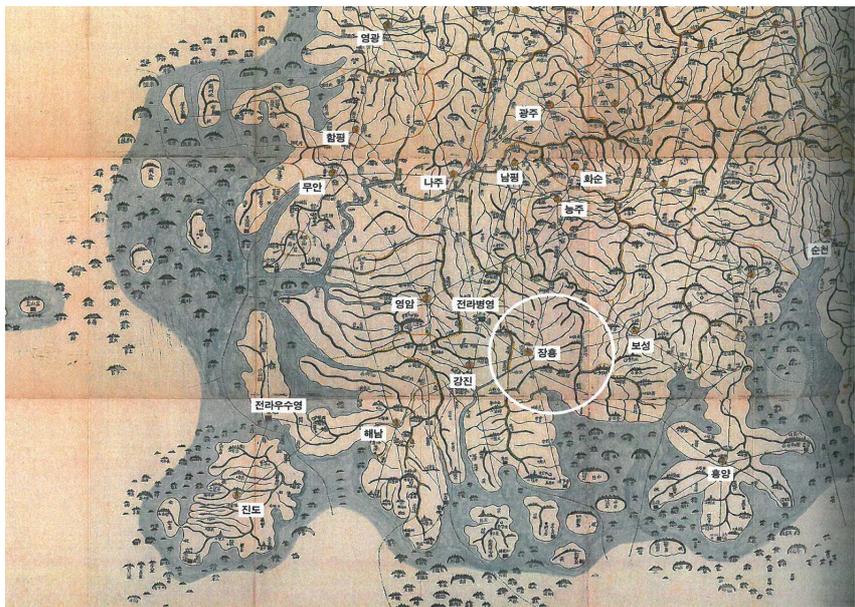
이청준 / 한승원 / 송기숙

장흥 역사의 결정적 장면들

장흥^{長興} _ “길이 흥하리라”

“땅이 기름지고 따듯하다.” 『세종실록지리지』

“옛날에 낙토^{樂土}라 일컬었으며, 백성은 순박하고 일은 간략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현재의 장흥의 행정 구역(좌)과 조선시대 전라도(우)

1 장흥의 인문지리

장흥군은 전남 남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보성군, 서쪽으로 강진군과 영암군, 북쪽으로 화순군, 남쪽으로 완도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득량만에 면해 고흥군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장흥읍·관산읍·대덕읍 등 3개 읍과 용산면·안양면·장동면·장평면·유치면·부산면·회진면 등 7개 면이 있다.

지형은 군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국사봉^{613.3m}, 가지산^{509.9m}, 수인산^{516.2m}, 제암산^{807.0m}, 역불산^{518.0m}, 사자산^{666.0m}, 천관산^{723.1m} 등 해발 500~700m의 비교적 험준한 산들이 있다. 크고 작은 하천이 합류하는 곳이나 하류 유역에 비교적 좁은 평야가 분포되어 있으며, 해안 지역에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있다. 하천은 탐진강이 유치면 세류리 북서쪽의 궁성산^{484m}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흘러 부산면과 장흥읍 등을 거쳐 남해로 들어간다. 이런 지리적 환경은 해상교통의 발전을 가져와 섬들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과 영산강·섬진강 등 인접 지역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촉진시켜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2 장흥 역사의 결정적 장면

장흥의 고대역사는 국내 최대의 구석기시대 유적지로 평가되는 장동면 신복리 유적과 신석기시대의 관산면 방촌일대 지석묘군 등으로 확인되며, 삼한시대는 마한에 속하였다. 특히 신석기 고인돌(지석묘)은 213개소에서 2,251기가 확인되어 장흥군은 단일지역으로 세계 최대밀집분포지역이다.

구석기	기원전 30,000~20,000년 신복 유적에서 나뭇잎모양찌르개 등 3만여 점 발견
신석기	기원전 6,000년 오복리 바위그늘 유적 발굴
청동기	기원전 1,500년 보성강 상류·탐진강·남해안 지역에 2,200여 기의 고인돌 분포
마한	기원전후 장흥 지역과 중국 간의 교역을 알려주는 신나라 때 화폐인 대포황천 발견

8세기 중반 이후 장흥 지역은 보림사^{寶林寺}, 천관사^{天冠寺}, 탑산사^{塔山寺} 같은 이름난 절이 잇달아 세워졌다. 750년 경 원표^{元表}가 보림사를 처음 세웠고, 9세기 중반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은 보림사를 중창하여 선종 9산문의 하나인 가지산파^{迦智山派}의 종찰^{宗刹}로 거듭나게 하였다. 또 통영화상^{通靈和尙}이 9세기 경 천관사와 탑산사를 창건하였다. 이 사찰의 창건은 국왕을 비롯하여 중앙귀족, 장흥 지역의 토착 세력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었다.

장흥 지역의 토착 세력은 바다와 가까이 접한 지역의 이점을 살려 활발한 해상 활동을 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828년^{흥덕왕3} 장보고의 청해진^{淸海鎮}이 설치될 무렵 장보고의 세력권에 편입된 장흥 지역의 토착세력은 신무왕의 즉위 과정에서 신무왕을 도왔고, 왕건의 나주 진출에 호응하여 태봉·고려에 귀부하였다.

삼국시대	백제 사비 시대에 지방행정제도 개편, 장흥 지역에 오차현·고마미지현·마사랑현·계천현 설치
통일신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0년경 원표, 보림사 처음 세움. 이후 9세기 중반 체징, 보림사 중창(가지산파 개창) 경덕왕 16년⁷⁵⁷ 오차현은 오아현, 고마미지현은 마음현으로, 계천현은 계수현, 마사랑현은 대로현으로 명칭 변경

고려시대에는 17대 인종의 왕비로서 세 왕(의종·명종·신종)을 낳은 공예태후 임씨가 장흥의 토착가문에서 출생하였으며, 왕비를 총애한 인종이 태후의 출생지인 정안현에 ‘길이 변창하라’는 의미로 장흥^{長興}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부로 승격시켰다고 한다.

고려말기 원 간섭기¹²⁷⁴에 추진된 일본원정 준비를 위하여 고려정부는 전국의 조선공 35,000명을 동원하여 부안의 변산과 장흥의 관산 두 곳에서 전함을 건조하였다. 당시 천관산의 울창했던 수목이 모두 벌채되었으며, 장흥군민들의 인적 물적 수탈이 막대하였다.

또한 고려 말^{우왕2년(1376)}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남해안 방비를 위하여 많은 성들이 축성되었는데, 장흥에도 관산 방촌일대의 쌍창성과 대덕에서 강진접경일대에 장고성, 유치 수인산성, 장녕산성, 학성 등이 당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 초에 정안으로 고쳐 영암에 소속됨. 인종 때, 공예태후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정안현이 장흥부로 승격 원종 6년¹²⁶⁵ 회주목으로 승격 원종 15년¹²⁷⁴ 여몽연합군의 일본 정벌 때 천관산 부근의 목재로 전함을 제작 충선왕 2년¹³¹⁰ 장흥부로 강등 우왕 5년¹³⁷⁹ 왜구의 침입을 피해 치소를 철야현으로 옮김. 공양왕 1년¹³⁸⁹ 보성군으로 주민 이동
------	--

조선시대에는 지역에서 많은 선비가 배출됨으로써 후에 문림장흥이라는 이름의 배경이 된다. 조선의 개국공신 마천목과 조광조의 학풍을 이은 김광원, 장흥 사람의 스승인 천방 유희인, 호남 가사문학의 효시이자 관서별곡의 저자인 기봉 백광홍·옥봉 백광훈 형제, 퇴계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풍암 문위세, 호남 실학자 존재 위백규 등이 장흥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이와 함께 이순신의 승리를 도운 많은 중군의병사래들이 눈에 띈다. 반곡 정경달은 임진년에 선산부사로서 의병을 모집하여 금오산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의병총대장이 되었다가 이순신의 요청으로 막하 종사관으로 보좌하였으며, 이순신이 투옥되자 선조에게 나아가 무죄를 직간하였다고 한다.

해남현감이었던 위대기는 이순신의 조전장^{助戰將}으로 참여하여, 옥포·적진포·울포 해전 등에서 활약하였고, 권을을 도와 금산·웅치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위대기와 함께 종군한 신용호 형제도 이순신의 유격장으로서 전투마다 용맹하게 싸우고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창의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문위세를 중심으로 한 남평문씨, 장흥마씨 마하수 5부자, ‘초계면씨 13충훈’이라 일컬어지는 초계면씨가 그들이다.

또한 장흥의 회령포는 세계 최고의 해전으로 기록되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그 12척의 신화를 가능하게 했던 역사의 현장이자 그 전초기지였다.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장군에 대한 장흥과 남도지역민들의 많은 인적, 물적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이순신의 위대한 승리가 가능했음을, 이를 없는 이들의 기억을 말해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사회는 오랜 전란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극복하면서 영·정조기의 중흥과 개혁을 통한 왕조체제의 강화를 모색하였으나, 외척과 세도정치로 인하여 부패한 수령들의 가혹한 수탈이 심화한다. 이에 따라 철종 13년¹⁸⁶² 진주 농민봉기를 필두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이어진다.

장흥에서는 1862년 5월13일 1,000여명의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장흥에서는 보성군수를 역임한 고제한, 향유^{鄕儒} 정방현, 임재성 등 유림과 농민이 합세하여 관아를 공격하고 방화하는 등 부정한 수령에 항거하였다. 조정은 군수까지 역임한 고위관료가 주동한 장흥민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고제한은 서울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고 유배되었다가 대원군의 집권으로 안동김씨의 세도가 끝나자 무산부사로 임명된다.

정부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문란에 있다고 보고, 전정청을 설치하여 개혁에 나섰으나 세도정치에 좌절되어 실패하였고, 서양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이 가속화되었으며, 무능한 왕조체제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1894년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하였으며, 장흥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창의에 호응하여 1차 기포를 단행하였다. 이방언 접주를 비롯한 장흥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전투에 참전하였다.

일본군의 상륙과 경복궁 침탈로 농민군이 2차기포를 단행하자 전쟁은 동학군에 대한 조일 연합군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전개된다. 일본군의 신무기에 밀린 농민군 주력이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된 상황에서 장흥 및 인접 동학군 3만여 명은 일본군과 동학혁명 최후의 석대들 전투를 치르게 된다. 1894년 12월 14-15일 전개된 석대들 전투는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 패퇴하고, 옥산전투^{16일}, 대덕 월정전투^{17일}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석대들 전투 후 일본군과 관군들은 무자비한 동학군 색출과 처형으로 수많은 농민군들을 살육하고 보복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산간과 도서지역으로 도피하여 이름을 숨기고, 삶을 영위해야만 하였고, 죽은 자의 제사일 마저 다른 날로 감춰야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조선시대

- 태조 원년¹³⁹² 수령현의 중령산에 성을 쌓고 장흥부의 치소로 정함.
- 태종 13년¹⁴¹³ 장흥도호부가 됨.
- 태종 14년¹⁴¹⁴ 수령현의 옛터에 옮겨서 성을 쌓음
- 세조 3년¹⁴⁵⁷ 장흥진을 두고 보성·강진·해남·진도를 관할.
- 성종 21년¹⁴⁹⁰ 회령진성을 쌓음
- 선조 32년¹⁵⁹⁹ 병영을 강진에서 장흥으로 옮겨 설치함. 이후 선조 37년¹⁶⁰⁴에 다시 강진으로 옮김.
- 광해군 2년¹⁶¹⁰ 예양서원 창건 이후, 강성서원·연곡서원 등 잇달아 세워짐
- 고종 31년¹⁸⁹⁴ 동학농민군, 장흥 석대들에서 패배(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
- 고종 32년¹⁸⁹⁵ 나주부 장흥군으로 명칭 변경.
- 고종 33년¹⁸⁹⁶ 전라남도 장흥군으로 변경. 현재 금일읍·금당면·생일면·고금면·신지면·약산면·청산면을 완도군에 이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거친 뒤, 장흥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장흥도호부는 나주부 장흥군¹⁸⁹⁵을 거쳐 전라남도 장흥군¹⁸⁹⁶으로 변모하였으며, 장흥에 속했던 일부 섬¹⁹⁰⁶과 웅치면·회천면¹⁹¹⁴이 각각 완도군과 보성군으로 편입되어 군의 경계도 변화였다. 또 1905년 사립 명진학교^{현재 장흥초등학교}가 처음 개교한 이래, 많은 근대적 학교가 곳곳에 생겨났다.

한편, 장흥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자 이를 막고자 김영엽 등이 의병장으로서 항일운동에 뛰어들거나 당시 장흥을 무대로 활동했던 심남일·안규홍 의병부대에서 활약하였다.

또 국권을 상실한 뒤에는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1운동 이후 김재계를 비롯한 장흥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청년회 장흥지회를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벌였고, 1920년대 후반부터 젊은 청년들이 장흥청년동맹을 중심으로 야학운동과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다. 한편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30년대에는 ‘전남운동협의회’에 많은 장흥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런 전통은 광복 이후 안중근을 모시는 해동사라는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장흥은 ‘문학의 고을’이라 할 만큼 유명 문인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백광홍의 「관서별곡」이 널리 불린 이래, 조선시대 내내 가사문학을 비롯한 주옥같은 문학작품이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은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뛰어난 시인과 소설가들이 배출되었다. 소설가 송기숙, 이청준·한승원·김석중·이승우, 시인 이성관·이한성·박순길·김영남·위선환, 시조시인 김제현, 아동문학인 김복춘 등 50여 명의 작가들이 나왔다. 이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천관산 문학공원과 천관산문학관이 있다.

특히, 『당신들의 천국』과 『서편제』의 작가 이청준, 『그 바다 끓어 넘치며』와 『아제아제바라아제』의 작가 한승원, 『암태도』와 『녹두장군』의 작가 송기숙 등은 현대 한국문학에서 획을 긋는 작가들이다.

근대이후

- 1914년 천포·회령·웅치 등 3개면이 보성군에 편입됨
- 2002. 9. 16 현재 3읍 7개면 281개리로 행정구역 재편됨

장흥 보림사와 천관사

선불교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부처라고 규정한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佛性}을 뛰어넘어 이미 모두가 부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그 본바탕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실존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발견하는 것^{見性}이 중요하다고 선에서는 강조하는 것이다. 화엄 역시 인간을 포함한 전 세계가 불성의 현현이라고 하지 않는가. 화엄에서 아름다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 다 ‘본래 부처’라는 데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에 위치한 보림사^{寶林寺}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 제일 먼저 개산^{開山}한 가지산파^{迦智山派}의 중심 사찰이다. 창건에 관한 기록은 조선 전기 세조 3~10년^{1457~1464}에 간행된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기」(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전반부는 보림사 창건연기설화이며, 후반부는 보조선사영탑비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쓰인 「보림사증창기¹⁷¹⁵」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림사사적기」에는 신라의 원표대덕^{元表大德}이 인도에 있는 보림사를 거쳐 중국 보림사에서 수행하던 중 한반도에 서기가 어려운 것을 보고 신라로 돌아와 가지산에 절을 지었다고 보림사의 창건을 기록한다.

보조선사^{普照禪師} 체징^{體澄(804-880)}이 현안왕 4년⁸⁶⁰에 현재 위치로 옮겨온 이래, 보림사는 초조 도의선사^{道義禪師}와 2조 염거화상^{廉巨和尚}에 이어 보조선사를 제3조로 삼는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이었다. 그러나 고려 개창 이후 교종이 대두되며 선종은 점차 세력을 잃었고 보림사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다. 고려 말에 이르러 공민왕의 왕사인 보우(普愚)가 1363년 보림사의 주지로 내려오며 사찰이 이전의 세를 어느 정도 회복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보림사는 조선 초 간행된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기」, 북쪽 석탑에서 출토된 탑지와 명문이 새겨진 청동합^{靑銅盒}, 천왕문 목판의 「보림사사천왕금강중산공덕기」, 사천왕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불서, 또 해남 대흥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보림사증창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간단한 실측도면과 유리건판 사진 등이 남아 있어 사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많은 건물들이 있었으나 1920년대에는 8동의 건물만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림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외호문과 사천왕문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불타 폐허가 되었다. 이후 1984년에 대웅전을 중층으로 복원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 요사채, 종각, 화장실, 장서각, 주지실, 삼성각, 영각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보림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의 말사이다. 삼층석탑 및 석등^{국보 제44호}, 철조비로자나 불좌상^{국보 제117호}, 동서승탑^{보물 제155-156호}, 보조선사탑^{보물 제157호}, 보조선사탑비^{보물 제158호}, 목조사천왕상^{보물 제1254호}, 월인석보 권25^{보물 제745-9호}, 금강경삼가해 권1^{보물 제772-3호}, 상교정본사비도량참법 권9~10^{보물 제1252호} 등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해진다. 목조사천왕상 복장에서는 『육경합부』^{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등의 불서가 다수 발견되어 더욱 주목된다.

1 천년고찰, 보림사

“문화유산으로 치자면 구산선문의 제1가람인 보림사가 있고, 현대문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송기숙·이청준·한승원이 모두 장흥사람입니다.”

선종 대가람 천년고찰, 9세기 불교 미술의 기준

장흥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계곡에 있는 보림사는 동양 3보림^{인도·중국·한국}의 하나로, 선종이 가장 먼저 들어와 문을 연 우리나라 선종의 종가집이다. 한국미술사 내지 한국문화사에서 장흥 보림사가 갖는 위치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유흥준은 “만약 9세기 신라 하대의 문화를 말하면서 장흥 보림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 책은 무조건 엉터리 책”이라고 단언한다.

9세기 신라 하대는 문화의 중심이 경주^{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호족발흥의 시기였으며 사상적으로는 교종에서 선종으로 넘어가는 때였다. 그 문화변동의 상징적 유물은 호족의 이미지를 닮은 철불의 등장이고, 대선사의 사리탑인 부도의 유행이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삼층석탑과 석등의 장식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장흥 보림사는 9산선문 중 첫 번째 개창 사찰이고, 철조비로자나불, 보조선사의 부도 및 비석, 그리고 대적광전 앞의 쌍탑과 석등 모두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물들은 하나같이 절대연대를 갖고 있는 명작이어서 9세기 불교미술의 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림사의 내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조선사 체징^{體澄(804-880)}의 비문에 자세하다. 이 비문에 의하면 원래 원표^{元表}대사가 창건한 절로 체징이 당나라 유학 후 설악산 억성사의 염거화상 문하로 들어가 정진한 다음 왕의 부름을 사양하고 이곳 가지산 보림사에 와 선종을 일으키니 여기는 오늘날에도 그 맥이 전해지는 가지산문의 본가이며, 도의선사, 염거화상, 보조체징으로 이어지는 한국 선종의 종가로 된 것이다. 그래서 9산선문 중에서도 제1가람이라는 명예를 얻은 것이다.

“강서선맥이 모두 동국의 승려로 돌아갔다”



神光不昧萬古輝猷，入此門內莫存知解



百丈曰江西禪脈，摠屬東國之僧猷

내산문에 걸린 주렴 글귀는 전면은 ‘부처의 광명이 어둡지 않고 만고에 찬란하니, 이 문 안에 들어오려면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이고, 후면은 ‘백장이 말하길 강서선맥이 모두 동국의 승려로 돌아갔다’는 글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 깨달음의 문을 연 이래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선종으로 발전한다. 그 시조가 달마대사로 달마는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이다. 달마 이후의 중국 선맥^{禪脈}은 혜가(2조), 승찬(3조), 도신(4조), 홍인(5조), 혜능(6조), 남악회양(7조), 마조도일(8조)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국의 선종은 제6조 혜능에 이르러 확립되어 크게 번창하였고, 이어 남악회양을 거쳐 마조도일 대에 이르러 중국 선종으로 결실을 얻기에 이른다.

마조도일 문하의 139명의 입실 제자 중에 특출난 삼철^{三哲}이 있었는데, 서당지장, 백장회해, 남천보원이었다. 그런데도 서당지장으로부터 강서선맥^{江西禪脈(마조의 선맥, 남종선)}이 중국에 머물지 않고, 신라승 도의^{道義(?~821)}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도의에게 법을 전한 서당지장은 강서성 사람으로 6세 때 스승을 따라가 25세에 구족계를 받았고 마조의 제자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범상치 않아 한 관상가가 “그대의 기골은 비범하여 틀림없이 법왕^{法王}의 보좌가 될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강서성 건주서당에 머물면서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특히 서당의 선풍은 신라에서 흥성하였는데, 그의 제자 중 도의가 신라에 귀국하였고 그로부터 법통을 이어 받는 3세 체징이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하였다.

도의를 보며 ‘강서의 선맥이 신라국으로 간다’고 탄^{歎(찬탄/한탄)}했다는 백장회해는 이름은 회해로 당나라 대표적인 선승으로 중국 선의 황금시대를 활짝 열었던 인물이었다. 마조 밑에서 수도하며 대오^{大悟}하였던 백장은 백장산에서 율원^{律院}으로부터 독립한 선원^{禪院}을 창설하고 다시 율전^{律典}에 구애받지 않는 선종 독자의 규율을 만들어 대중을 이끌고 농사와 선 수행을 병행하여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생활화하였다. “하루 지음이 없으면 하루 먹지 아니한다^{一日不作一日不食}”고 한 백장의 말은 그의 선풍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당시 도의선사는 760년 경 당시 경주의 변방에서 태어나 출가하니 법명이 명적이었고 선덕왕 5년⁷⁸⁴에 사신을 따라 당나라로 건너가, 당에서 37년 동안 수행하면서 남종선의 조사선^{祖師禪}을 공부했던 승려였다. 중국에서 발원한 선법^{禪法}은 당송을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도의로부터 시작한 동국^{東國(신라)}의 선은 구산선문을 거쳐 오늘날 조계종으로 꽃을 피웠던 것이다.

도의~염거~체징에 이르러 가지산문을 열다

도의선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때가 821년^{헌덕왕13}이었다. 당시 신라 사회의 사상적 주도권은 교종이 쥐고 있어, 도의의 선풍을 수용하지 못했다.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창성탑비에 의하면 “처음 도의선사가 서당에게서 심인^{心印}을 전수받고 후일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 선의 이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存神之法(교종)}만을 숭상하여 무위임운의 종^{無爲任運之宗(선종)}에 모이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 높이어 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마치 달마조사가 양 무제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법을 염거선사에게 부촉했다.”

결국 도의선사는 설악산 진전사로 들어갔으며, 여기서 염거^{廉居(?~844)}에게 법을 전했고, 염거는 설악산 억성사에

머물며 다시 법을 보조체징^{普照體澄(803~880)}에게 전했다.

이후 체징은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서 산문을 열었다. 이후 이 산문에는 800여 명의 승려들이 운집해 수행했다고 한다. 이로써 당시 도의선사의 선법이 신라국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말기 여러 산문 가운데 가지산문만 흥성했다. 『삼국유사』로 유명한 일연 스님도 가지산문 승려였다.

결국 중국 강서의 선맥이 도의에게 이어지고, 다시 도의로부터 염거 선사, 보조체징 선사로 이어진 강서의 선맥이 장흥 보림사에서 만개되기에 이르면서 한국에 선종이 뿌리내리는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보조선사가 입적하자 헌강왕은 시호 ‘보조선사’와 탑호 ‘창성탑^{彰聖塔}’를 내리며 원래 ‘가지산사’라는 절 이름도 ‘보림사’로 바꾸도록 하였다.

한국 선종 1200년 종가

현재 한국의 선종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제2장 6조에는 “본종^{本宗}은 신라 헌덕왕 5년 813년에 조계 혜능의 증법손 서당지장에게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宗祖}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청허와 부휴 양 법맥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 조계종 종헌 서문에도 “우리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師承}하사 가지 영역^{가지산}에서 종당을 계양함으로써 구산문이 열개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구산선문 중 가지산문의 도의국사가 엄연히 현 조계종의 조사^{祖師}, 종조^{宗祖}로 공인받고 있음을 명확히 해놓고 있다. 중국의 선승 백장스님의 말처럼, 결국 중국의 선맥은 신라의 도의에 이어져 구산선문의 종찰인 보림사에서 꽃피우게 되었으니, 오늘날 보림사가 한국 선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림사의 산문은 분명히 3조 보조체징이 열었지만, 가지산문은 도의선사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확립되었고 이로써 보림사가 조계종의 시발점, 즉 구산선문의 종찰인 보림사가 한국 선종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년 고찰 보림사도 한국 전쟁의 비극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보림사는 곡성 태안사, 화순 쌍봉사와 함께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큰 사찰로 꼽히며 오랫동안 웅장한 사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폐사될 지경에 이르렀고,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가지산은 영광 불갑산, 광양 백운산, 구례 지리산 등과 함께 좌익 야산대^{野山隊}의 거점이 됐다. 1950년 가을, 전남지역 야산대와 인민군 유격대가 보림사에 집결해 겨울을 났다. 이듬해 봄에 이곳으로 밀고 들어 온 군경합동토벌대는 이 절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토벌대의 공세에 밀린 유격대와 야산대가 퇴각하면서 불태웠다는 말도 있다.

당시 보림사에서 화마를 피한 것은 일주문과 천왕문뿐이었고, 국보 제204호였던 대웅전을 비롯해 20여동의 건물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삼층석탑과 석등, 보조선사 부도와 부도비, 동부도와 서부도 등의 국보급 문화재들은 옛 모습대로 남아있다.

2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불상으로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는 없어졌으나 불신^{佛身}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불상의 왼쪽 팔꿈치 위쪽에 8행 60여자의 명문이 양각되어 있어 확실한 조성연대와 시주자 등을 알 수 있다. 명문에는 헌안왕 2년 무주 장사^{長沙(현재의 영광)} 부관 김수종^{金遂宗}이 왕에게 주청하여 왕명으로 1년 동안 만들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불상을 조성한 시기는 석가여래 입멸 후 1808년이다.

이때는 정왕^{현안왕} 즉위 3년이다.

대중 12년인 무인 7월 17일 무주 장사현 부관 김수종이 진주하여

정왕은 8월 22일 칙서를 내렸는데 몸소 지으시고도 피곤함을 알지 못하였다

當成佛時釋迦如來入滅後 一千八百八年耳

此時情王即位三年也

大中十二年戊寅七月十七日武州長沙副官金遂宗聞奏

情王○八月廿二日勅下令○躬作不覺勞困也.”

그러나 보림사 보조선사탑비문에 헌안왕 4년 김언경^{金彦卿}이 비로자나불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조성의 시작은 김수종이 하였고, 완성을 김언경이 하였다는 설과 김수종과 김언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설이 있다. 또 불상 명문의 헌안왕 2년은 거푸집을 만든 시기로 조성이 시작된 연도이고 탑비문에 새겨진 헌안왕 4년은 철불의 완성 연도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불상의 신체는 각각 따로 주조한 뒤 접합하여 만들어졌다. 육계^{肉髻}와 나발^{螺髮}, 얼굴이 다른 신체에 비해 크게 주조되었고, 손은 작게 표현되었다. 또한 가부좌한 다리는 어깨에 비해 넓게 만들어져 전체적인 균형이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다 두툼한 입술, 커다란 귀 등에서 부처의 위엄이 느껴지며 세부 표현이 안정적이다. 법의는 통견형^{通肩形}으로 양 어깨를 감싸 내려와 가슴에서 V자를 이루고 있다. 작게 표현된 손은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맡아 쥐어 비로자나불의 수인인 지권인^{智拳印(법으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을 취하고 있다.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명문을 통해 조성연대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신라 하대의 조형양식을 선명히 보여준다.

이 작품은 만든 연대가 확실하여 당시 유사한 비로자나불상의 계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며,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걸쳐 유행한 철로 만든 불상의 첫 번째 예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3 보림사 남·북삼층석탑과 석등



비로나자불을 모신 대적광전 앞의 국보 제44호인 석탑과 석등도 명품이다. 석탑은 쌍탑으로 제작되어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다. 1933년 사리장치를 노린 도굴꾼의 도굴로 탑이 무너졌을 때, 1층 탑신부 사리구멍에서 사리와 함께 조성 내용이 기록된 탑지^{塔誌}가 나와 경문왕 10년⁸⁷⁰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석탑은 지대석, 이중기단, 탑신,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대석은 6매의 장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과 서쪽 측면에 각각 2기씩 대고 남쪽과 북쪽 측면에 각각 1기씩 끼워 구성되었다. 지대석 위에는 이중의 기단이 형성되어 있다. 하대기단은 저석·중석·갑석으로, 상대기단은 중석과 갑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신은 3층으로 조성되었다. 각 층의 탑신과 옥개석은 별석이 아닌 하나의 통형으로 만들어졌다. 탑신 양 측면에는 우주가 조각되어 있다. 1층은 비교적 형태가 잘 남아 있으나 2층과 3층은 마모가 진행되어 희미하다. 옥개석의 밑면 받침은 계단형으로 5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처마는 얇고 평평하지만 네 귀퉁이는 경사가 급하여 모서리가 들려 있다. 상륜부는 노반^{露盤}, 복발^{覆鉢}, 양화^{仰花}, 보륜^{寶輪}, 보개^{寶蓋}, 보주^{寶珠} 등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석등 역시 석탑과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기단부에는 사각형의 지대석 그리고 팔각형의 하대석, 보련형의 기둥받침과 간주석이 모두 잘 남아 있다. 팔각형의 하대석에는 안상이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 보련의 기둥받침이 얹혀 있다. 보련은 하대석에 맞춰 8잎으로 조각되었다. 보련의 꽃잎은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하대석과 만나는 부분에는 귀꽃을 장식하였다. 간주석은 팔각기둥으로 별다른 장식 없이 간결하게 조성되었다. 간주석 위에는 하대석 위의 보련과 유사한 형태의 양련이 화사석을 받치고 있다. 양련에는 보련과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나 귀꽃은 나타나지 않는다. 화사석은 4개의 화창을 갖추고 상륜부를 받치고 있다. 상륜부에는 옥개석과 보륜, 보개, 보주 등이 남아 있다. 옥개석은 다른 부재들에 맞추어 8면으로 조성되었고 각 모서리에 작은 귀꽃이 장식되어 있다.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며 위에 보련이 장식되었다. 보련 위에는 보륜과 보개, 보주 등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신라 말 제작된 석탑과 석등 건립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고, 상륜부가 완전하게 남아 있는 드문 예로 중요한 문화재이다.

4 보림사 보조선사탑과 보조선사탑비

대웅보전 오른쪽 명부전 뒤 담장 안에는 보림사를 개창한 보조선사 체징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과 탑비가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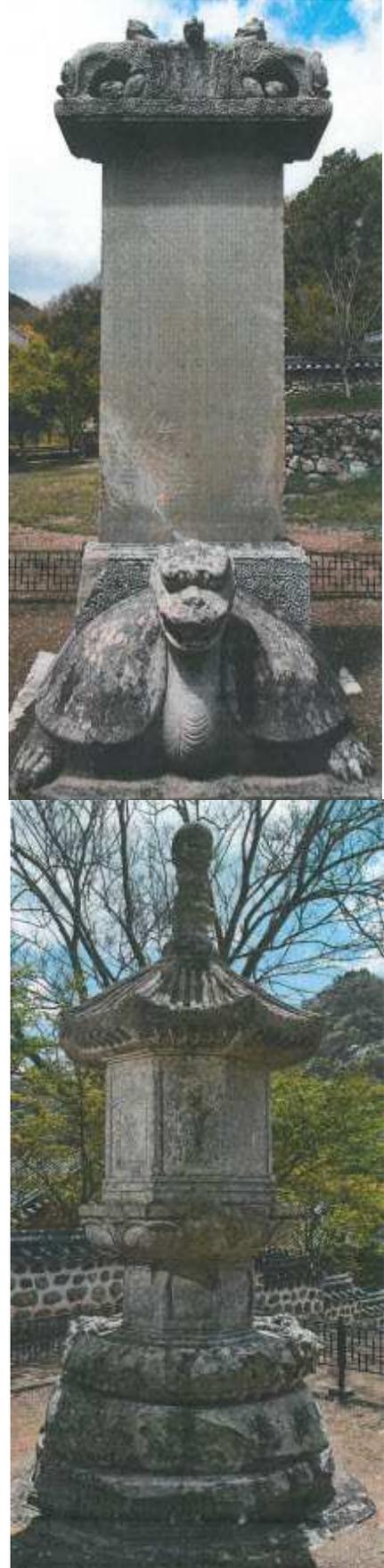
탑비는 전체적으로 거북이 모습을 하고 있다. 머리는 용 모양으로 표현되었고 등은 거북이의 등, 귀갑문을 넣어 묘사하였다. 등 위에는 구름과 연꽃무늬로 묘사된 비좌(碑座)를 얹고 그 위에 비신을 세웠다. 비신 위 이수(이수)는 아래는 구름무늬로 장식하고 위는 대칭으로 용을 조각하여 올려놓았다.

이수 중앙에는 “가지산보조선사비명”이라는 탑비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체징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현강왕은 스님에게 보조라는 시호를 내리고, 사리탑의 이름은 창성이라 지어주며, 김영에게 비문을 짓게 했다. 보조(普照)는 ‘두루 비춘다’는 뜻이고, 창성(彰聖)은 ‘성스러움을 드러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비문의 글씨는 일곱 번째 줄의 ‘선(禪) 자 까지는 김원이 해서체로 쓰고, 그 뒤로는 김언경이 행서체로 이어 썼다고 한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인 귀부와 보조선사의 생애를 기록한 몸돌의 비신, 뿔 없는 용의 모양을 새긴 머릿돌인 이수가 완벽한 형태로 남아 1,200년의 세월을 이겨내었다. 보조선사 탑비가 보물로 지정된 이유다.

보조선사 탑비 옆에는 그의 사리를 모신 무덤인 보조선사 승탑이 있다. 보조선사 체징의 입적 후 4년 뒤 탑비와 함께 건립된 승탑이다. 기단, 탑신, 상륜이 모두 팔각형인 팔각원당형 승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탑신을 받치는 기단의 아래받침돌에는 구름무늬를 매우 입체적으로 조각하였고, 가운데받침돌은 아래위로 띠를 두른 약간 배가 부른 모습이다. 8개의 큰 연꽃조각 위에 놓인 탑신의 몸돌은 앞뒷면에 문짝 모양을, 그 양 옆에는 사천왕상을 새겼다. 두터워 보이는 지붕돌은 밑면에 서까래를 표현해 놓았고, 윗면에는 기왓골이 깊게 파여져 있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완전한 모양은 아니지만 복발, 보륜, 보주 등이 차례로 놓여 있다.

이 탑은 당당하고 장식 문양도 정교하여 승탑의 장자다운 기품과 근엄함이 엿보인다. 몸돌인 탑신 앞면과 뒷면에는 문짝인 문비(門扉)가, 그 사이에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다. 문짝 안에 보조선사 체징의 사리가 있고, 사천왕은 보조선사를 지키는 수호신인 셈이다. 마치 사찰 입구에 사천왕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5 보림사 동승탑과 서승탑



동승탑은 보림사 동쪽 숲 속에 있는 여러 승탑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승려의 사리를 두는 탑신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3단의 기단을 두고 위로는 머리장식을 얹었는데, 각 부분이 8각으로 깎여져 있다. 3단으로 된 기단의 맨 아랫단과 맨윗단에는 8잎의 연꽃잎을 둘러 새기고 각 귀퉁이마다 꽃장식을 얹은 모습으로, 가운데는 8각의 기둥을 낮게 두었다. 탑신은 한 면에만 자물쇠가 달린 문짝 모양을 새기고, 지붕돌은 다른 부분에 비해 좁고 낮은 편이다. 꼭대기의 머리장식은 중간에 둥근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를 나누어 장식하였는데, 그 완전함만큼이나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전체적으로 탑신의 위부분이 높게 이루어진 반면, 기단의 가운데받침돌이 작고 낮아 안정감이 떨어진다. 잘 정돈된 구조가 돋보이며 머리장식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 승탑의 소중함을 더하고 있다.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졌으면서도 고려 전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승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서승탑은 보림사의 서쪽에 있는 승탑 2기로, 보림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8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네모반듯한 바닥돌 위로 3단의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탑신과 지붕돌을 얹은 모습이다. 기단은 아래받침돌에는 2겹의 연꽃무늬를 새기고, 두껍고 넓은 가운데받침돌은 모서리마다 구슬을 꿰어놓은 듯한 기둥을 조각해 놓아 독특한 모습이다. 윗받침돌은 아래받침돌과 그 크기와 넓이가 비슷하며, 8장의 연꽃잎을 새겨두었다. 탑신의 몸돌에는 한쪽 면에 문짝 모양을 새기고 그 안에 자물쇠와 문고리 2개를 본떠 조각해 두었다. 지붕돌은 윗면의 경사가 꽤 급하며, 여덟 곳의 귀퉁이마다 살짝 들려있다. 또 다른 승탑도 역시 전체적으로 8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기단의 모습이 위에서 말한 승탑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가운데받침돌에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고, 윗받침돌이 오른쪽 승탑보다 얇고 넓다는 점이 다르다. 탑신의 몸돌 한 면에는 자물쇠가 달린 문짝을 새겼으며, 지붕돌은 대부분 깨어져 있어 그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위의 승탑이 완전한 형태를 지니고 지나치게 장식적인데 비해, 이 승탑은 우아하긴 하나 장식성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2기 모두 마무리 수법이 같으며, 만들어진 때는 고려 중기로 짐작된다. 머리장식은 모두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1941년 사리를 두는 장치가 도굴되어 1944년 다시 만들어 놓았다.



해탈문과 대적광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홑처마집으로 중앙칸은 통로로 되어 있고 좌우의 양칸에는 4구의 사천왕상을 안치하였다. 사천왕^{四天王}이란 『불설장아함경』에서 처음 나타난 인도의 재래신으로 수미산에 거주하면서 동서남북의 사천국^{四天國}을 다스리는 왕들이며 대승불교에서 불법의 수호신으로 강조되어왔다. 처음 인도에서는 귀족의 모습으로, 중국 및 한국에서는 갑옷을 입고 위엄이 충만한 무인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사찰입구에 사천왕문을 세워 모시고 있다.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에는 동방 지국천왕^{持國天王}과 북방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왼쪽에는 남방 증장천왕^{增長天王}과 서방 광목천왕^{廣目天王}이 위치하고 있다. 보통은 모두 창을 갖지만 서방의 광목천왕은 붓과 책, 북방의 다문천왕은 탑을, 그 외에는 칼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조에 이르면 위치와 지물이 약간씩 달라져 동방의 지국천왕은 칼, 북방의 다문천왕은 비파, 남방의 증장천왕은 용과 여의주(또는 새끼줄), 서방의 광목천왕은 보탑과 당을 받쳐 들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동방 지국천왕은 호화롭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얼굴은 분노한 표정을 하였으며, 복장은 갑옷과 천의^{天衣}를 입고 있다. 건장한 체구에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잡고 왼손은 칼끝을 받쳐 들고 있다. 북방 다문천왕은 높직한 보관을 쓰고 미소를 띤 인자한 모습으로 선비형의 눈썹과 긴 턱수염에서 부드러운 문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비파를 들고 있으며, 발아래에는 힘에 겨운 듯 고통스러워하는 악귀가 왼쪽다리를 받쳐 들고 있다.

남방 증장천왕은 굳게 다문 입과 함께 근엄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있으며, 왼손은 무엇인가 쥐고 있는 듯한 자세만을 취하고 있다. 당당해 보이는 신체는 수호신으로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방 광목천왕은 부릅뜬 눈에 입을 벌리고 소리 지르는 듯한 위엄 있는 모습이다. 오른손에는 깃발을 잡고 왼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 모습인데 보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사천왕상 대부분이 중국식 갑옷에 각기 다른 상징물을 들고 있으며 발밑에는 악귀를 밟는 형태상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무장한 분노상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천의자락을 휘날리며 보관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 카락이 깃바퀴를 돌아 어깨 위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자비로운 보살상의 모습이 추가되고 있다. 보림사의 사천왕상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앞서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조각사적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조성 시기는 천왕문에 걸린 목판과 『보림사중창불사기록』에 의하여 중종 10년¹⁵¹⁵에 조성되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림사 사천왕상은 현존하는 천왕문 목조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 부의 조각이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기본이 되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된다.

7 장흥의 영산 천관산과 천관사

“(…) 조령^{鳥嶺} 남쪽 바닷가 옛적 오아현 지경에 천관산이 있는데, 꼬리는 궁벽한 곳에 서리고 머리는 큰 바다에 잠기어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며 높고 우뚝하게 솟아 여러 고을 땅에 걸쳐 있으니, 그것은 큰 기운이 쌓인 것이리라. 서로들 전하기를, ‘이 산을 지제산^{支隰山}이라고도 한다.’ 하는데, 『화엄경』에도 있듯이, ‘보살이 머물렀던 곳을 지제산이라 하고, 현재 보살이 있는 곳을 천관이라고 한다.’는 설도 이와 같았다. (….) 후에 통령화상이 탑 동쪽에 절을 창건하였는데, 지금의 탑산사이다. 이 대사가 하루는 꿈을 꾸니, 북갑^{北岬}이 땅 속에서 솟아 나오는데 가지고 있던 석장^{錫杖}이 날아서 산봉우리를 지나 북갑에 가서 꽂혔다. 석장이 꽂혔던 곳이라고 어렵듯이 생각되는 곳에 가시덤불을 베어내고 절을 지었으니, 지금의 천관사이다. 신라 신호왕, 신무왕이 태자로 있을 때에, 마침 임금의 견책을 받아 산의 남쪽 완도로 귀양 갔는데, 화엄 흥진대사가 본래 태자와 좋아하는 사이라, 동궁^{東宮}의 일이 다급함을 듣고 달려가서 이 절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정성껏 예를 하며 화엄신중^{華嚴神衆}을 불렀다. 그러자 여러 신중^{神衆}이 감동하여 부름에 응하여 절 남쪽 봉우리에 죽 늘어섰으니, 지금의 신중암이 그것이다.”
-승려 천인^{天因}의 『천관산기』

장흥군 관산을 천관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문선』 「천관산기」, 『지제산사적』, 『지제지』 등의 기록을 통해 신라 애장왕 대의 통령화상^{通靈和尚}이 화엄종 계열의 사찰로 창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신무왕 시기 흥진대사^{洪震大師}에게 계승되었다. 『동문선』 「천관산기」에 흥진대사와 신무왕의 친밀한 관계와 왕실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천관사의 성세^{盛勢}는 9~10세기에 조성된 신라 계열의 삼층석탑과 석등 등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 천관산 일대는 정안현~장흥부로 이어지는 치소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우왕 5년¹³⁷⁸ 치소를 철야현으로 옮겼고, 이후 조선 태조 원년¹³⁹² 수녕현^{遂寧縣} 중녕산^{中寧山}에 성을 쌓고 중심지로 하였다. 이 시기 남해안과 바로 인접하였던 천관사는 이러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태종 7년¹⁴⁰⁶ 장흥은 도호부로서 선교^{禪敎} 각 1사씩 2개의 자복사^{資福寺}(조선초에 고려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을 재정비하여 지정한 지방 군현의 중심 사찰)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자복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각종 기록과 유적, 유물을 통해 보림사와 천관사가 자복사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천관사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그리고 16~7세기에 천관사에서 간행한 각종 전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적의 간행은 인쇄술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주변 사찰에 대한 지도력, 경학 수준 등이 완비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천관사의 역할과 사세를 추정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의 천관사는 1898년 3월 연재 송병선^{1836~1905}이 천관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장흥의 많은 인사들이 동참했는데 구룡봉에 18명의 인명이 암각된 기문이 있다.

천관사는 현대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있다. 현재 삼층석탑^{보물 제795호}, 석등^{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오층석탑^{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등의 지정문화재가 현존하고 있다.

이렇듯 천관산은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장흥 일대의 중심 산으로서 봉수^{烽臺}를 설치하거나, 국가의 치제를 지내는 영험한 산으로 활용되어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동문선』에 수록된 「천관산기」 등 천관산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수 전해 내려올 뿐 아니라, 인근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과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면에서도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길이길이 흥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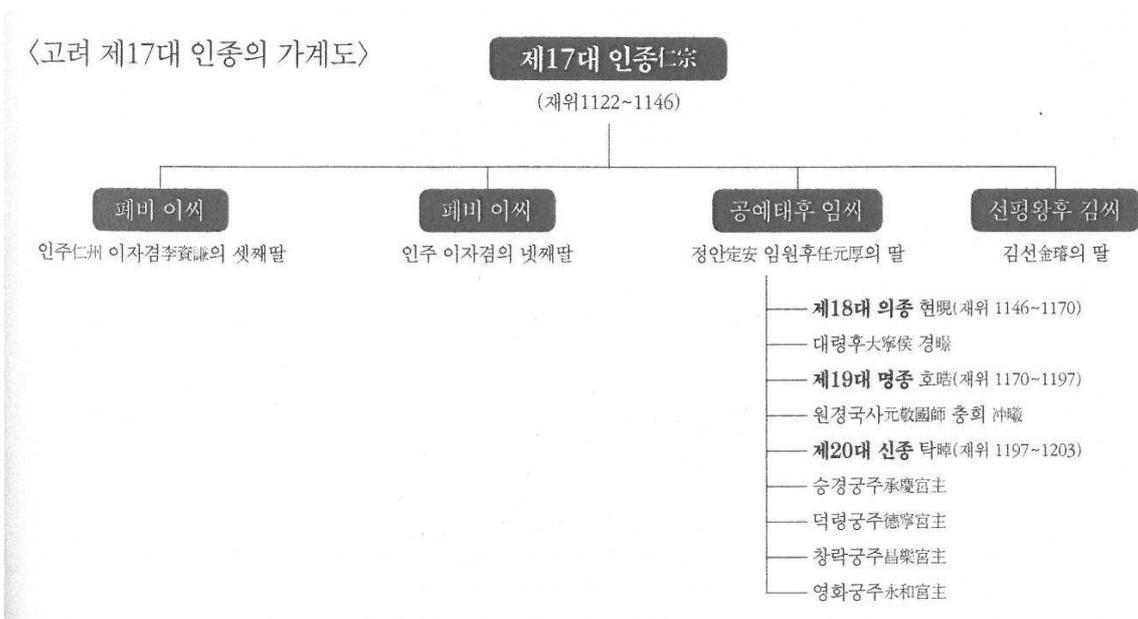


고려 시대의 장흥

장흥은 본래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으로,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오이^{烏兒}로 고치고, 보성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장흥이 정안현^{定安縣}이란 이름으로 영암의 관할 하에 소속되었는데, 고려 인종 왕비인 공예태후 임씨의 고향이라 하여 이름을 '장흥'으로 고치고 지장흥부사^{知長興府事}로 승격시켰다. 지금의 장흥이 공예태후 임씨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원종 6년¹²⁶⁵에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시켰고 충선왕 2년¹³¹⁰에 다시 장흥부로 강등되었다. 이런 부침 속에서도 이후 장흥부는 오늘날의 장흥군, 강진군, 보성군, 고흥군의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전남 중남부지역의 중심 고을로 성장하였다. 별호^{別號}는 정주^{定州} 또는 관산^{冠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천관산과 4개의 소속현이 있다고 『고려사』 「지리지」는 기록하고 있다.

1 공예태후와 장흥부

공예태후^{恭睿太后(1109~1183)}는 고려 제17대 인종의 후비^{后妃}로, 아들인 의종·명종·신종이 뒤이어 차례로 왕위에 즉위함으로써 태후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공예태후는 장흥의 역사에 있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장흥이란 지명이 공예태후 임씨^{任氏}의 관향^{貫鄉}이라는 이유로 정안현^{定安縣}에서 장흥부^{長興府}로 승격되면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군현의 승격은 지리적인 규모나 행정적·제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뤄지기보다는 국가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한 포상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장흥 또한 고려 중기부터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태후의 관향 승격의 경우에 해당된다.



인종은 본래 고려시대 최고의 문벌귀족인 이자겸의 두 딸을 왕비로 삼았으나, 이자겸의 난으로 그의 딸들이 폐비가 되자 정안임씨 가문의 딸을 새로운 비로 들였다. 이는 이자겸의 난으로 왕권이 크게 실추된 정치 상황 속에서 기존의 왕실의 외척으로서 오랫동안 강력한 권력을 차지했던 인주이씨(仁川李氏)의 세력이 아닌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줄 새로운 가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안임씨 가문은 문하시중을 역임했던 이위 등 당대의 유명 가문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가며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새로운 외척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듯하다. 즉 귀족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명망을 갖추고 있었던 정안임씨 가문의 증서령 임원후¹⁰⁸⁹⁻¹¹⁵⁶의 딸이자 문하시중 이위의 외손녀인 공예태후 임씨와의 혼인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예태후는 인종 4년¹¹²⁶ 18세의 나이에 궁에 들어가 연덕궁주(延德宮主)로 불리었다. 일반적으로 왕족이 아닌 일반 귀족 출신은 왕비에 곧바로 책봉되지 않고 궁주나 궁인의 칭호를 먼저 받았는데, 고려 전기부터 후비궁으로 쓰였던 연덕궁에 거처하였기에 연덕궁주의 칭호를 받았던 것이다. 공예태후는 인종 5년¹¹²⁷에 의종을 낳고 2년 뒤인 인종 7년¹¹²⁹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인종은 장흥부를 속현(屬縣)인 정안현에서 장흥부로 승격함으로써 공예태후의 관향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태후의 관향 승격은 고려 왕실의 권위와 관련되는 사안으로써 정치적 이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승격된 시기는 『고려사』 지리지에 ‘인종조’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역대 고려 태후의 관향 승격에 있어서 현 국왕의 모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 아닌 의종 때로 보기도 한다. 정안현에서 장흥부로 승격된 후에 영암군의 속현이었던 수녕현·탐진현과 보성군의 속현이었던 회령현·장택현 4현을 이속시켜 거느리게 되었다. 결국 현재의 장흥 지역과 탐진장·남해안에 연해 있는 강진 남부의 탐진현을 거느리면서 서남부의 중추적 고을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의종 4년¹¹⁵⁰에는 외향인 수주 또한 안남도호부로 개편되었는데, 개편 배경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공예태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승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예태후는 인종과 혼인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왕실의 외척으로서 정안임씨 가문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무신의 난으로 아들인 의종과 왕손을 잃는 등 자식들의 생사만을 염려하다가 태후의 권위와 위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명종 13년¹¹⁸³에 생을 마감한다. 능호는 순릉(純陵)으로, 시호를 올려 공예태후라 하였다.



정안사. 천관산 아래 자리 잡은 정안사(正安寺)는 정안임씨(훗날 장흥임씨)의 시조 임호와 그의 아들 임의, 손자인 임원숙, 임원후, 임원준 등 3대 5위(五位) 위패를 봉안한 사우(祠宇)이다. 1998년 장흥임씨의 발상지로 알려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당동마을에 건립되었다. 주요 건물로는 위패를 모신 신실인 정안사의 경모재(景慕齋), 장천당(長川堂)이 있고, 장흥임씨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공예태후 정안임씨의 사적비와 기전비가 세워져 있다.

조선 시대 장흥의 선비들

장흥에는 조선 건국 이후 왕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공을 세운 인물이 있었다. 마천목과 백수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와 함께 장흥의 양반들은 유교적 가치규범에 따라 가문과 향촌이 운영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1398년^{태조7} 장흥향교가 세워져 일반 정사와 교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또 양반들의 자체들은 꾸준히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여 향촌사회와 중앙정치에서 활약하였다.

김괴는 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원의 관원으로서 활약하였고, 그의 아들 김광원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유교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천방 유희인은 조식·이황 등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장흥 사람의 지주가 되었다. 또한 장흥에 유배 온 신잡에게서 배운 백광홍은 뛰어난 문장으로 국왕의 깊은 신임을 받았고, 가사문학의 효시이자 「관서별곡」을 남겨 가사문학의 효시가 되었다. 그의 동생 백광훈은 시와 글씨로 명성을 남겼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란으로 불탄 향교를 재건하고, 서원과 사우들을 세웠으며, 문중 재실에서 향촌의 젊은이를 교육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조선후기 내내 장흥 지역에는 위백규를 비롯한 뛰어난 학자와 관원을 배출하였다. 위백규는 성리학자이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려는 건의를 국왕에게 하는 등 예의와 염치를 아는 향촌사회를 만들려 노력하였다.

이렇듯 지역에서 많은 선비가 배출됨으로써 후에 ‘문림장흥’이라는 이름의 배경이 되었다.

1 전라병영을 설치한 마천목

마천목은 본래 장흥부의 속현인 회령현의 토성^{土姓} 출신이었다. 그런데 조선 초에 속현이 폐지되면서 회령이 장흥에 합쳐짐으로써, 더불어 그의 본관도 장흥으로 칭해지게 되었다. 한편 그가 장흥 회령에서 출생하여 모친 평산 신씨^{平山申氏}의 연고를 좇아 곡성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으로 전한다.

그는 24세 되던 우왕 7년¹³⁸¹에 산원^{散員}으로서 처음 환로에 올랐다. 장흥 내지 곡성의 토착세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라도의 군적^{軍籍}에 올라 정지^{鄭地} 장군의 휘하에서 군사 활동을 통해 첨설직^{添設職}을 얻었다. 마천목은 고려 말에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서 무공을 세워 첨설직을 받아 관직에 진출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신흥무인의 한 전형이었다.

마천목은 조선왕조의 개창과 함께 정안군 이방원, 곧 후일의 태종 휘하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군사적 능력과 충직함을 바탕으로 태종의 신임을 얻어 사직^{司直}으로 발탁되었다. 마천목은 정변에서 태종의 명을 직접 시행하는 측근 무인으로서 1398년^{태조7}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2}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정안군을 도와 크게 공을 세워 대장군·상장군에 올랐고, 1401년^{태종1}에는 익대좌명공신 3등으로 책봉되었다.



곡성 장흥마씨 마천목장군 사당 영모재

공신에 오른 이후 마천목은 줄곧 군사적 직임을 맡아 활약하였다. 중앙군 최고지휘부의 일원으로 궁궐 숙위와 도성의 순찰을 관장하였다. 권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군권의 행사에 마천목이 깊이 관여하였으며, 군부의 유력자로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비중을 지닌 존재였다. 마천목은 국방의 문제에도 관여하였다. 여진족의 움직임에 대비하도록 지명된 고위 무신 중의 하나였다. 또한 그는 전라도 병마도절제사 판나주목사¹⁴¹², 판우군도총제부사¹⁴²⁵ 등을 지냈다. 특히 1417년^{태종17} 전라도 병마도절제사로 재임할 당시 왜구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광주에 있던 전라병영을 강진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고려 말에 신흥무인으로 몸을 일으켜 조선왕조에 들어 태종의 신임 속에 공신으로 책봉되고 군부의 유력자로 활약했던 그는, 평생을 무직^{武職}에만 전념한 전통시기 무인의 전형이었다. 그는 이후 1429년^{세종11}에 장흥부원군이 되었고, 1431년^{세종13}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천목의 비상한 출세는 곡성의 장흥마씨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흥마씨는 처음 모계인 평산신씨의 도움으로 곡성에 정착하였지만, 머잖아 지역사회에서 손꼽히는 유력 가문으로 자리를 잡았다. 외부에서 이주해 온 세력이었음에도 곡성의 장흥마씨는 마천목의 출세에 힘입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유력 가문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도록 내내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



장흥군 기산리 동계마을 기양사에 배향되었으며, 면암 최익현 선생 찬(撰)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2 중종반정에 참여한 백수장

백수장^{1469~1543}은 수원인으로 자는 팽조이다. 팽택·연기 현감을 지내고 호조판서에 추증된 백맹하와 공주이씨 아들로 장흥군 안양면 동촌에서 태어났다. 1498년^{연산군4}에 무과 증시에 급제하여 영흥판관으로 임명된 후, 진도군수·훈련원도정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1506년^{연산군12}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이 즉위한 중종반정 때의 활약으로 정국공신에 녹훈되고 정해군에 봉해졌다. 1509년^{중종4} 전라도 진도에서 민란이 일어나 진도군수에 제수되었는데, 그는 민란을 안정시키고 질서를 회복시켰다. 이후 훈련원도정 등을 거쳐 공조판서를 지냈다. 만년에 사촌마을 장재도에 백사정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고 전한다.

유품으로 1507년^{중종1} 2월에 중종이 내린 교서 백수장정국공신록훈교서^{白壽長靖國功臣錄勳敎書}와 교지 등이 전해지고 있다. 묘소는 안양면 주산 서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양면 기산리 동계마을에 있는 기양사^{岐陽祠}에 배향되었다. :

3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

백광홍^{白光弘(1522~1556)}의 자는 대유, 호는 기봉이다. 본관은 수원이나 이후 해미로 옮겼으므로 해미사람으로 일컫게 되었다 한다. 이후 장흥으로 이거하였다. 1522년^{중종17} 장흥 안양 기산리에서 삼옥당 백세인^{1500~1573}의 큰아들로 출생했다.

기봉은 동생 백광안, 백광훈, 종제인 동계 백광성과 함께 당대의 문장가로 숭앙되었다. 전북 태인의 일재 이항의 문하에 들어가 김인후와 동문수학하였고, 또 1521년 장흥으로 유배되어 17년간 유배생활을 한 영천 신잠에게 배웠다. 신영천이 유배에서 풀려 태인군수로 재임할 때는 그곳에 가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임억령, 김인후, 이이, 기대승, 정철, 이후백, 양응정, 최경창, 임제와 같은 당대의 명현들과 도의지교를 맺고 시를 수창^攄하였다. 1549년^{명종4} 28세 때 사마양시에 급제하고, 이어 1552년 11월에는 문과에 등재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되고, 그해 왕명으로 성균관에서 영호남의 문신들이 재주를 겨룰 때 기봉은 ‘동지^{冬至}’로써 으뜸을 차지하여 「선시^{選詩}」 10권을 특사받았다. 이 10권의 「선시보주」는 현전하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553년에는 호당에 뽑혀 사가독서했다. 1559년^{명종10}에 평안도병마평사가 되어 서도지방의 백성의 폐해를 보살피면서 그곳 향촌사정과 자연풍물을 시문으로 음영하던 중에 국문가사 「관서별곡」을 지었다. 기봉이 지은 「관서별곡」은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정수이며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보다도 25년이나 앞서 지은 것이다.

「관서별곡」

관서명승지에 왕명으로 보내므로
 행장을 다사리니 칼하나 뿐이로다
 근조문 대달아 모화고개 넘어드니
 귀심이 빠르거나 고향을 생각하라

「관동별곡」

관동 팔백리에 왕명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망극하다
 연추문 드리다라 경희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몰라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이듬해 병환이 빌미가 되어 벼슬을 내어놓고 돌아와 8월 27일 부안의 처가에서 생을 마치니 35세였다. 사후인 1808년^{순조8} 장흥의 기양사에 배향되었다. 그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그를 아끼던 스승 이항은 통한했으며, 양응정·이후백·최경창·기대승·홍진 등은 만사를 지어 이를 슬퍼했다.

기봉의 유고는 임진란과 병자란으로 상당량 유실되었으나 세상을 떠난 지 295년만인 1851년^{철종2} 후손 백진항이 유고를 모으고 홍직필^{1776~1852}의 서문을 받아 필사한 책을 만들어 후세에 전했다. 이것을 1866년 기봉의 8세손 백후진이 증보할 때 국문가사 「관서별곡」도 함께 첨가하였던 것을 1899년 12대손 백희인이 2책으로 장흥 안양 주산에서 목각하여 처음 간행했다.

「관서별곡」은 기봉이 평안도평사가 되어 서도관방에서 정사를 보살피면서 그곳의 향촌세태와 자연풍물을 두루 돌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읊은 것으로, 3·4조 또는 4·4조로 된 전 174구의 국문가사이다. 이것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보다 무려 25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에 많이 애송되면서 송강의 「관동별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도 여러 문인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이른바 ‘장흥가단’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장흥 부산 호계리로 가는 길목의 사자산 언저리에 묘소가 있고, 그 밑 길가에는 1987년 문학비동호인회에서 건립한 ‘관서별곡가비’가 세워졌다.

4 장흥에 유배온 신잠과 호남시사

신잠^{1491~1554}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화조도 4폭은 원래 병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날폭의 족자로 되어 있다. 처음부터 4폭이었던지 확실하지 않지만 8폭 등 더 많은 폭 수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신잠의 본관은 고령이며, 자는 원량, 호는 영천자 또는 아차산인이다. 신숙주의 증손자이고, 부친은 예조참판 신종호, 모친은 세종대왕의 11째 아들 의창군 이공의 딸이다. 1519년^{중종14} 현량과에 급제하였으나, 같은 해에 기묘사화로 인하여 파방되었다. 1531년



신잠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화조도

신사무옥 때 안치겸 사건에 연루되어 장흥에 유배, 17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장흥 억불산과 천관산 아래에서 살면서 백광홍·백광안을 가르쳤다. 광주의 박상, 능주의 양팽손, 해남의 윤구·유성춘 등이 서로 찾았다. 기묘사화로 파직당하고 쫓겨 온 선배, 동료였다. 시회도 열었는데, 강진의 만덕산 백련사와 장흥의 가지산 보림사가 주요 무대였다. 이름하여 ‘호남시사’였다.

1537년에 양주로 옮겨졌으며, 1538년에 거주의 편이가 허락되어 아차산 아래에 은거하여 서화에만 몰두하다가, 인종 때에 다시 복직되어 태인과 간성의 목사를 역임하고 상주목사로 재임 중 사망하였다. 1668년에 장흥 예양서원에 배향되었다. 풍도와 아량이 있어 소문과 명망이 자자했다고 하며, 또한 식견과 도량이 명민하고 학식과 덕행, 재능과 기예, 지조가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정사룡 등 당대의 대표적인 문사들과 교유하였다.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에 의하면 문장에 능하고 서화를 잘하여 삼절로 일컬어졌다고 하였으며, 『패관잡기』에는 특히 묵죽^{墨竹}에 뛰어났다고 하였다. 『연려실기술』에는 묵죽과 더불어 포도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였다.

5 **삼당시인, 백광훈**

백광훈^{1537~1582}의 자는 창경, 호는 옥봉. 본관은 해미로 1537년^{중종32} 10월 22일 장흥 안양 기산리에서 백세인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아들로 출생했다. 그의 만형은 「관서별곡」을 지은 백광홍이고, 둘째형은 백광안인데 사촌 백광성과 더불어 4형제가 모두 문장에 뛰어나 ‘한 가문에서 사문장^{四文章}이 나왔다’고 하였을 정도였다.

어려서부터 시재^{詩才}가 있어 석천 임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유년 시절에는 해남 옥천에 있는 정응서의 문하생으로 입문하여 학문을 익혔다. 13세에 상경하여 양응남·노수신 등에게 사사하였다. 또 17세 때에는 백형 백광홍의 주선으로 송천 양응정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1554년 귀향하여 있다가 1558년에는 진도에 유배와 있는 노수신에게 수학하였으며, 1560년에는 해남 옥천면 월경산 옥봉 아래에 만취당^{晩翠堂}과 옥산서실^{玉山書室}을 짓고 생활하였다.

1572년^{선조5} 명나라의 사신 한세능·진삼모가 오자 노수신을 따라 백의^{白衣}로써 제술관이 되어 시재와 서필^{書筆}로 사신을 감탄하게 하여 백광선생^{白光先生}의 칭호를 얻었다. 그는 1577년 처음으로 선릉 참봉에 제수되어 벼슬에 나서고 이어 영전 참봉으로 옮기고 이듬해 청릉 참봉, 1580년 예빈사 참봉 겸 주자도감 감조관, 소격서 참봉 등을 지냈다. 1582년^{선조15} 5월 4일 4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옥봉이 별세하자 선조는 영여^{靈輿}를 하사하여 한양에서 해남까지 반장해 왔다고 전하며, 그 당시의 ‘영여’가 현재 보관중이다. 1590년 강진 서봉서원, 1808년 장흥 기양사에 제향되었다. 그는 시문에 뛰어났는데 그의 시는 천기^{天機}로 이루어진 것이라 평해졌으며, 최경창·이달과 함께 송시^{宋詩}의 풍조를 버리고 당시^{唐詩}를 따르며 시풍^{詩風}을 혁신하였다고 해서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고 불리었다. 장성에 있는 서릉의 정려비문 글씨를 썼다. 또 이산해·송익필·최경창·최립·이순안·윤탁연·하응림 등과 함께 조선 최고의 문장인 팔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천재시인 이하^{李賀}에 비견된다는 칭송도 들었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왕희지의 초서체에 뛰어났으며 현존하는 작품을 통해 활달하고 대담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선 8문장가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박상, 김인후, 임형수, 양응정, 임억령, 최경창, 박순, 임제, 고경명 등과 함께 호남명류십걸^{湖南名流十傑}로 꼽힌다.

옥봉의 저술인 『옥봉집』은 아들 백진남^{1564~1618}이 1608년에 선친의 유고를 수습하여 정리하고, 당시 전라도 관찰사이던 윤안성이 월사 이정귀의 조언을 얻어 1509년에 간행했다. 재간은 1742년 5세손 백수경이 간행했으며, 그 뒤 후손 백영규가 1933년 간행했다. 서문은 1609년에 유근과 이정귀가, 1611년에 신희이 각각 쓰고, 발

문후서는 1609년 윤광계^윤가 썼다. 신희는 서문에서 옥봉 백광훈을 최경창과 더불어 세상에서 이들을 최백^{崔白}이라 부른다 하고 이들의 시가 성당^{盛唐}의 풍취를 갖추어서 기^氣가 완성되었으면서도 색^色이 담고^{淡古}하며 그 뜻이 아킵^{雅則}한 것들인데 병화로 많이 없어져서 수습한 작품이 적다는 데 유감을 표시했고, 유근은 그가 시뿐만 아니라 필치에도 뛰어나 ‘필법이 준경^{遵勁}하여 종왕^{鍾王}의 법에 필진^{逼眞}하다’고 하여 이절^{二節}이라 칭찬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동방의 시인들은 소동파와 황산곡을 숭상함이 많아 200년 동안 모두 한 가지 투를 본받았다. 근세에 이르러서 최경창과 백광훈이 처음으로 당시를 배워 맑고도 힘든 시를 짓기에 힘쓰므로 최^崔백^白이라고 부른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았으므로 내려오던 습관도 거의 변하였다.”

『옥봉집』에는 모두 504수의 시가 실려 있다. 해남 옥천면 송산리 옥산서실에서 목품과 유품 등이 전하여, 1991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81호 지정되었다. 옥봉 백광훈은 장흥 출신이지만 해남 옥천에서 거주하였다. 당시 옥천은 영암 땅이었지만, 1906년 이래 현재는 해남에 속한다.

6 당대 석학들과 교유한 장흥 사림의 지주 유희인

“이미 진사에 오르고 과업^{科業}에 종사하지 않고 학문에 힘쓰며 멀리 남명 조 선생을 찾아가서 교유하였고 동방 유학의 종^宗이라고 하는 율곡 이 선생을 찾아 비로써 사승을 맺고 교회를 받았다. 평일에는 한가하게 시와 글을 읊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빗대고 돌려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여 멀리하고 심학^{心學}을 옹계 여기지 않았고 남을 가르침에 삼가하고 삼가서 게으르지 않았으며 나물과 물로 끼니를 때워도 평안하게 여겼다.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연하동 임천에 기거하며 집안 그옥이 쌓인 서책을 벗 삼아 근심을 잊고 살았다. 당시의 사람들은 선생을 산당^{山堂} 유처사^{劉處士}라 불렀다.
- 존재 위백규, 「행장」

당대 최고 석학들과 교유하다

장흥 출신 성리학자 천방^{天放} 유희인^{劉好仁(1502~1584)}. 그의 자는 극기^{克己}, 임금으로 받은 사호가 천방, 또 다른 호가 산당^{山堂}이다. 본관은 강릉이다.

1502년 장흥읍 건산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32세 때 사마시에 급제한 것 외에는 평생을 관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재야의 선비로, 재야의 학자로 보냈다. 그러던 중 남명 조식^{1501~1572}의 학풍과 사표로서 위명을 전해 듣고, 먼 길을 걸어 조식을 찾아가 그와 교유했다. 남명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동시대인인 퇴계 이황에 버금가는 학문을 이루어 당대를 대표하는 최고 학자요 선비였다. 남명은 천방에 대해 “유모^{劉某}는 나에게 넘치는 벗이다^{吾益友也}”고 할 정도였다. 남명에서 그치지 않고 퇴계 이황^{1501~1570}도 찾아갔다. 천방을 만난 퇴계는 천방을 두고 “호남 제일의 선비^{湖南第一士}”고 했다. 또한 천방이 70여세일 때 노구를 이끌고 34세나 연하인 율곡 이이를 찾아가 율곡과 사승 관계를 맺었다. 당시 율곡은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경기도 파주 율곡촌 등지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을 때였다. 율곡은 천방을 ‘대가^{大架}’라고 칭찬했으며, 천방이 귀향할 때 “탄식하며 내 도가 남쪽으로 내려간다^{歎吳道之南}”고 했다.

이처럼 천방은 ‘삼벽^{三僻(地僻人僻姓僻)}의 고을 장흥 땅’을 벗어난 중앙 무대에서도 당대 대석학들과 교유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과 교우지계^{交友之係}를 맺고 학문을 강론하곤 했다. 대곡 성운, 삼죽당 김대유, 황강 이희운, 중봉 조현, 사계 김장생, 구봉 송익필, 북창 정렴, 지산 조호익, 월정 윤근수 등 강호 제현들과 막역간의 교우가 되었다.

1574년(72세) 가뭄으로 기우제를 명받고 싶단에 올라가, 자기 몸을 스스로 불사르려는 정성으로 기도하여 비를 얻었다. 그러자 임금은 임금은 “하늘이 비를 내려 그를 죽음에서 방면하였다.”고 하여 ‘천방^{天放}’이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1584년(82세) 2월 28일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흥 사람들의 정신적 스승

천방은 주로 장흥지역에 제자들을 두었는데, 스스로 율곡의 제자로 율곡의 문인록에 올라 있어 제자들에게 기호학파의 이론을 장흥 지역 사족들에게 교육하였다. 이 제자들은 장흥에서 각 성씨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사실 성 그 성씨의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주정씨 장흥문중의 정신적 지주인 반곡 정경달이 아들 명렬에게 전하고, 장흥위씨 청계 위덕의는 아우 덕후와 조카인 정훈·정렬·정철·정명 등 집안의 모든 자제를 모아 교육하였다. 그리고 다시 이 맥은 존재 위백규에게로 이어져 다암 위영복을 거쳐, 위계룡으로 이어진다. 위계룡은 연재 송병선, 면암 최익현, 송사 기우만과 사승을 맺었다. 남평문씨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풍암 문위세는 외가 집 해남윤씨와의 관계로 퇴계 이항의 문인이 되고 큰형 문위천의 아들 희개는 천방의 제자가 되었다.

영광김씨의 김광원은 조광조의 학문을 계승하였고, 후손 오남 김한섭은 노론 임헌회와 화서 이항로의 제자가 된다. 인천이씨 이방언은 김한섭과 임헌회 문하에서 동문수학했으나 후일 이방언은 동학의 지도자가 된다. 인천이씨 이민기는 민정중의 제자인데, 민정중은 남인에게 밀려 장흥으로 유배 온 서인이다. 수원백씨의 경우도 기봉 백광홍이 영천 심잠의 영향을 받았고 성리학자 일재 이항의 제자가 되어 이를 이었으며 백문린은 천방의 제자다.



예양서원(장흥읍 예양리). 1610년 신사무옥으로 장흥에 유배되어 풍속을 순화한 신잠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이후 1653년 김광원과 유호인을, 1664년 남효온을, 1681년 이색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대빗질을 하여 탐관오리를 없애자

“얼레빗으로 빗고 참빗으로도 빗질하니^{木梳梳了竹梳梳}
산란한 머리 가지런하고 이는 절로 없어져^{亂髮初分虱自除}
어찌하면 천만척이나 되는 큰 빗을 얻어다^{安得大梳千萬尺}
백성들 속에 들끓은 이떼를 다 없앨까^{盡梳黔首無餘}”

천방의 ‘빗을 읊은 시^{詠梳詩}’는 당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없애야 한다는 우의시^{寓意詩}로 당시 시인 묵객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었던 시였다. 유정양은 이 영소시를 평하여 “...(당시에는) 백성들의 고향을 짜내는 어둡고 횡포한 풍속이 관리들에게 만연되었다. 아, 이제 누가 빗^梳으로서 그런 자들을

빗긴다는 것인가. 처사^{處士} 천방의 시에는 그런 감정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허균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두 번이나 실리기도 했을 정도다.

이처럼 천방은 당시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야인, 즉 처사로서 삶을 유지했지만, 성리학자로서 당대 인륜과 천륜에 어그러져 있는 세태, 사리사욕에 물든 위정자들의 행태 등을 시로써 비판하고 풍자하며 고발하는 이른바

현실 참여주의의 시를 썼다. 당시 걸만 치장하는 벼슬아치들에 대해 비판하는 시로서 '관대공복^{冠帶公服} _ 걸만 꾸미는 자들^{外飾自衆}'이란 시도 이와 다름이 없다.

관(冠)은 바르고 띠(帶)를 두른 위엄한 것이지만^{正冠垂帶儼威儀}
 요컨대 중심에 스스로 공경함을 지켜야 하네^{要在中心敬自持}
 속을 안 지키다면 세인들 웃음을 사리^{堪笑世無人內守}
 침승의 머리나 방정맞은 창기와 무엇이 다르랴^{沐淋輕躁更倡技}

7 장흥의 가사문학

호남은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하여 생산물이 풍부한 지리적 환경과 빼어난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서 예술이 잘 발달된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호남 지방은 문학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 원류를 찾아 올라가면 호남은 옛날 마한의 집단가무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서 분화 파생된 백제의 '정읍사'를 모체로 속요, 단가, 경기체가, 가사, 판소리 등 다양한 형식의 문학이 생성 발전해 오며 따라 우리나라를 시가 문학의 요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의 가사문학에 이르면 호남 지방은 더욱 활기 찬 면모를 보여준다. 정극인을 비롯하여 30여 명의 전라도 출신 작가들이 나왔다. 또한 유배, 전쟁 출정, 관리부임 등으로 이 지방에서 지은 작품과 작가도 많다. 유배 가사의 효시로 알려진 조위의 「만분가」, 이서의 「낙지가」, 정철의 「성산별곡」·「관동별곡」·「사미인곡」·「속미인곡」 등이 호남 지방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작품들이다. 가히 가사 문학의 보고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호남 지방 가사 문학의 중심에 장흥 지방이 놓여 있다. 장흥 출신 가사 작가와 그 작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뛰어났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남 출신 가사 작가는 30여 명이고, 그 작품 수는 56편이다. 이를 다시 출신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장흥 출신 가사 작가는 기봉 백광홍을 비롯한 7명으로 호남 지방 가사 작가 전체의 22.58%를, 이들의 가사 작품 수는 총 15편으로 호남 지방 출신 작가에 의해 창작된 전체 작품의 26.79%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의 가사문학으로 가장 뛰어난 것은 백광홍의 「관서별곡」이다. 백광홍은 1555년 봄 평안도 평사에 부임하여 그 곳에서의 삶과 정취, 자연 풍광을 노래한 「관서별곡」을 지었다. 이 가사는 우리나라의 기행가사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정철의 「관동별곡」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기행가사는 단순히 여정과 사실을 기록한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풍물과 자연을 접하고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담았다.

이후 장흥에는 뛰어난 가사 작가들이 계속 나와 좋은 작품을 남겼다. 「금당별곡」(위세직), 「안일가」·「초당곡」(이상계), 「자회가」·「선유가」(위백규), 「천풍가」(노명선), 「장한가」(이중전), 「덕강구곡가」·「덕천삼일가」(문계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사문학의 전통은 오늘날 장흥 출신의 뛰어난 시인과 소설가들이 많이 나오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존재는 2세에 6갑을 외웠고, 6세에 글을 지을 수 있었으며, 8세에 『주역』을 공부했다. 10세 이후에는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해 천문·지리·복서·율력·선불·병법·의약·관상학·배와 수레·공장 등 온갖 기술에까지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모두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천재였다. 25세에 병계 윤봉구 선생에게 집지한 제자가 되어 예전의 잡다한 학문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성리학에 침잠했다.” 천재 임현희, 『존재집』, 『서문』

“호남의 학문은 하서 김인후·고봉 기대승을 이어서 손재 박광일과 목산 이기경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학맥을 이은 대학자가 바로 위백규” 매산 홍직필, 위백규의 『묘지명』

조선 중기 이전에는 호남에 3걸이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3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3걸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높은 벼슬에도 오르지 못하고, 문학이나 학문에 큰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불행하게 생을 마쳤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화순 동복의 신재 최산두, 해남의 유성춘, 고산 윤선도의 선조인 굴정 윤구가 바로 그들이다. 모두 과거에 급제해 옥당벼슬로 호당에 들어간 명사들이었으니, 사회에 좌절하고 말았다.

호남 3천재는 순창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 고창의 이재 황윤석, 존재 위백규가 그들이다. 18세기를 살아가면서 조선 후기의 실학을 찬란하게 꽃피운 3대 천재 실학자들이었다. 신경준은 문과에 급제해 승지에 올라 세상에 큰 이름을 날렸으니, 황윤석과 위백규는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오로지 학문업적 때문에 임금의 은혜가 내려져 시골의 재야학자로는 낮은 벼슬이나마 지낼 수 있던 행운을 얻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언급할 때는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등 기호지방에 근거지가 있던 학자들이 거론된다. 그런데 호남 3천재의 경우는 호남이라는 시골에서 특별한 실학관계 학문의 연원도 없이 자생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문에 도달했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빛나는 업적으로 다루게 된다. 위백규와 황윤석은 비슷한 연배로 서로 교류하면서 학문을 논했고, 기호학계 성리학 대가들의 제자이기도 했다. 위백규는 병계 윤봉구의 문인으로 성리학에도 밝았지만, 시대의 진운에 눈감지 않고 실학에 전념했던 학자다. 또한 이재 황윤석은 미호 김원행이라는 노론계 성리학자의 제자로 실학에 큰 업적으로 남겼다.

천관산 아래에서 천하를 보다

한국실학의 발흥지라 할 호남실학자 가운데 장흥 출신의 실학자로 위백규^{1727~1798}가 있다. 위백규는 1727년^{영조}³ 5월 15일에 장흥 관산읍 방촌리 계춘동에서 삼족당 위세보^{1669~1779}의 손자, 춘곡 위문덕^{1704~1784}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꿈에 흰 용이 뜰아래 우물로 내려 왔다고 하여 처음 이름을 용이라 하였다고 한다. 자는 자화, 호는 존재 또는 계암, 본관은 장흥이다.

3세부터 숙조 춘담공에게 천자문을 배운 이래 일찍부터 천문, 지리, 율력, 복서, 산수 등에 통달했다. 아홉 살 때 천관산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특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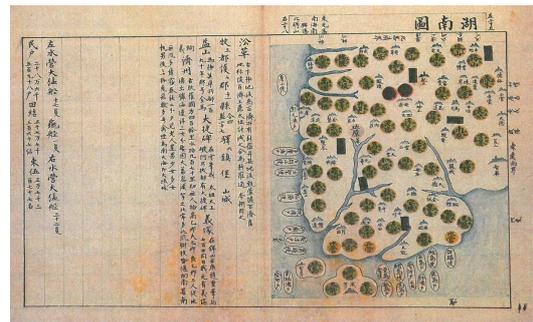
천관산에 발을 디어 / 공중사다리도 봄하늘에 오르도다
인간세상을 굽어보니 / 먼지가 그득하여라

13세 때에는 ‘선기옥형’이란 관측기를 만들어 천문관측을 하기도 했으며, 역례설, 역총계몽 등을 연구하여 약

관의 나이에 이미 학자가 되었다. 1750년^{영조26} 장흥부사 이진의의 향친^{鄕薦}을 받았다. 1751년 병계 윤봉구^{1681~1767}를 충청도 덕산으로 찾아가 15년간 경서, 의례, 이기심성론 등을 배웠다. 스승과 토론하면서 학문이 크게 열렸다.

위백규는 과거에 계속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32세 때부터 4년에 걸쳐 국가와 사회의 폐습에 대한 고발서인 『정현신보』(시폐 13조)를 지었고, 계속 연구하여 30년 후인 65세 때에 이 같은 폐단을 구할 구폐 32조목을 제시하여 『정현신보』를 완성하였다. 1765년^{영조41} 39세의 나이로 생원이 되고, 천관산 기슭 계암산 속의 다산정사와 천관산 입구 장천재에서 배우지 못한 문중 자제와 노비들을 모아 사약을 실시하며, 스스로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당시 문란해진 예양의 도를 바로잡고 순속을 기르는데 힘썼다. 이것은 그가 일찍이 시무10조에서 지적한 폐단을 돌이켜 보려고 한 노력의 일단이었다. 비록 벽촌에 묻혀 지냈지만 경세치용의 뜻과 기개는 그 어느 정치가의 이론보다도 정연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어버이에게 공양을 극진히 못 하였음을 뉘우쳐 「자회가」를 지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겨 저술이 90여 권에 이르렀다. 1758년에 지리서인 『환영지』를 저술하여 43세 때인 1770년에 증보하였다. 『환영지』는 세계지리서 겸 우리나라 팔도지리서인데 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보다도 100여 년이나 앞 선 것이다.



천문과 지리 등에 관해 그림과 설명을 붙인 『환영지』

다산정사에서 은거하여 독서와 저술로 생애를 외롭게 보낸 그는 조정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1792년 장흥부사 원영주에게 이재민 구호에 관한 「분진방략」을 말해주자 그의 경륜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1794년에 풍수해가 나자 서영보가 위유사로 파견되었을 때 그는 존재의 문집을 찾아서 보고 조정에 계문하였다. 1796년에 『환영지』와 함께 그의 문집에 서울로 보내졌고 임금의 부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25일 정9품에 해당하는 산공감 부사과라는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노령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3월 3일 서울에 도착하여 임금에게 「만언봉사」를 올리고 하직하니 정조는 위백규를 옥과현감에 제수하였다. 옥과현감으로 재임시 선정을 베풀어 이임할 때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당시 올린 「만언봉사」의 한 구절이다.

“(…) 조정에는 노숙한 덕망을 지녀 나라의 안위를 맡길 만한 자가 적고, 재야에는 학문과 지조가 한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옛 사람의 이른바 “나라가 텅 비었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가 해이해지고 폐지되어 사대부들에게는 선^善을 으뜸으로 삼는 습속이 없어지고, 군정^{軍政}이 무너져 나라에는 활 쏘 줄 아는 군졸이 없으며, 병기가 무더져 못쓰게 되어 창고에는 변란에 대응할 만한 병장기가 없습니다. 조운^{漕運}하는 배는 해마다 침몰하여 저축은 날마다 고갈되었다고 하고,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장사나 합니다.”

1797년 종6품인 장원서 별제를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1798년^{정조22} 11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위백규가 세상을 떠난 그해에는 장흥에서 멀지 않은 순창에서 기정진이 태어났고, 위백규가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인 순조 1년 겨울에는 40세의 다산 정약용이 장흥에서 멀지 않은 강진으로 귀양살이를 하기 위해 도착했다.

향촌사회의 변화를 갈망한 경세치용론

존재 위백규의 학통은 이이, 김장생, 송시열, 권상하, 윤봉구로 이어지는 노론계이나 향촌생활을 통하여 형성

된 강한 현실비판의식이 저술에 나타나 있어 그의 학문적 성격은 경제적 실학의 색채가 짙다. 경전의 이해나 심성론은 전통 성리학자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정현신보』나 『봉사류』에서 당시의 현실을 세세하고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어 그의 실학자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주장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향촌사회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지방교육 개선을 통하여 향촌 질서의 유지와 교화뿐만 아니라 관리선발, 지방관리 선도책 등을 구상하고, 둘째 정치기강 해이와 이에 따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기 위한 관제축소, 향촌의 자율적 공평부세론, 지방관리 선도책 등을 구상하고, 셋째 향촌방위체제의 견실을 주장한 점이다. 이 향촌사회 개선론을 일관하는 기본구상은 향촌의 자율성 모색과 공의의 구현으로 집약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촌사회의 지식인들이 자율성과 공의창달의 주도자로서 또는 중간 계층으로서 사회의 견제 및 비판과 민중 옹호의 양면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지적한 폐단의 일부를 보자.

“부자간에는 인륜이 없고 부부간에는 법도가 끊기고 형제간에도 서로 흠쳐 도망치고 음성이나 역보는 술집이 반을 차지하고 궁벽한 마을도 열 집 가운데 서너집은 술집으로 사시를 가리지 않고 술과 엿을 팔아 이로 인해 남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여자들은 길쌈을 하지 않으니 어찌 주공인들 이 폐습을 구하랴.”

존재는 경제론 외에도 경학, 지리, 역사, 의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본초강목』, 『고금』, 『격물설』, 『월류』, 『연어』 등이 그 업적이다. 가사작품인 「사회가」, 시조인 「농가」 9수 등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는 기존의 사대부의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연, 즉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한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경제치용의 사상을 문학으로 풀어냈던 것이다.



존재고택 전경

방촌마을의 다산과 강진의 다산초당

장흥은 전라도의 땅끝마을이다. 장흥읍의 입구에는 존재 위백규의 동상이 우람하게 서 있다. 육지의 땅 끝에 가장 우람하게 서 있는 산은 장흥의 천관산이다. 장흥군 방촌은 천관산 산자락을 제대로 이용해 아름답게 자리한 마을이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방촌마을은 수백 년 동안 장흥 위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했던 마을이다. 산이 좋고 물이 좋은 탓인지, 마을의 어느 구석에도 가난은 보이지 않

고 부귀의 모습만 보인다. 고랫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고, 마을 앞의 넓은 들판을 건너 마주보는 천관산은 이곳이 역시 현인들의 거주지임을 깨닫게 한다. 산자락에 이어져 벌여 있는 우람한 기와집에 존재 위백규의 선조들이 살아왔으며, 존재가 태어나 오래도록 생활했던 곳도 그곳이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군청 소재지로 보면 겨우 4~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다. 장흥군 방촌마을의 뒷산 자락의 한 부분을 다산이라고 하는데, 강진의 만덕산 아래 산자락의 한 줄기가 또 다산이다. 장흥의 다산에서 존재 위백규가 다산정사를 짓고 학문에 힘쓰며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강진의 다산초당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위백규는 전라도 출신의 큰 실학자였고, 정약용은 경기도 출신이지만 다산초당에서 학문을 완성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세상일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위백규는 노론계통의 학자였고, 정약용은 남인계열의 학자였다. 다산이 귀양 오기 3년 전에 타계해 위백규의 학풍이 다산이 살아가던 곳에 남아 있을 법도 한데, 다산의 저서에는 위백규가 언급된 바가 없다.

전란기 나라를 지킨 사람들

장흥 사람들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분연히 일어났다. 반곡 정경달은 임진년에 선산부사로서 의병을 모집하여 금오산전투를 비롯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의병총대장이 되었다가 이순신의 요청으로 막하 종사관으로 보좌하였으며, 이순신이 투옥되자 선조에게 나아가 무죄를 직간하였다고 한다. 해남현감이었던 위대기는 이순신의 조전장^{助戰將}으로 참여하여, 옥포·적진포·울포 해전 등에서 활약하였고, 권율을 도와 금산·웅치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위대기와 함께 종군한 신용호 형제도 이순신의 유격장으로서 전투마다 용맹하게 싸우고 모두 전사하였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창의에 나선 사람들도 있다. 문위세를 중심으로 한 남평문씨, 장흥파씨 마하수 5부자, ‘초계변씨 13충훈’이라 일컬어지는 초계변씨가 그들이다. 또한 장흥의 회령포는 세계 최고의 해전으로 기록되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그 12척의 신화를 가능하게 했던 역사의 현장이자 그 전초기지였다.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장군에 대한 장흥과 남도지역민들의 많은 인적, 물적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이순신의 위대한 승리가 가능했음을, 이름 없는 이들의 기억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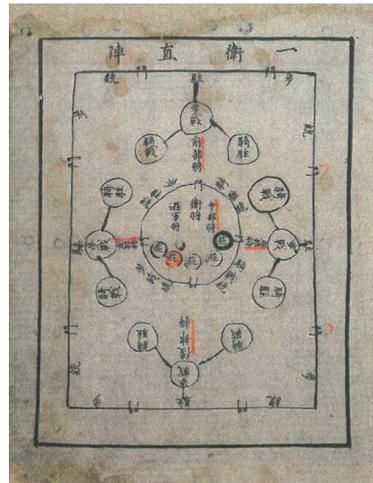
1 육전의 난중일기를 쓴 반곡 정경달

정경달^{丁景達(1542~1602)}은 천방 유희인의 문인·수제자이다. 그는 천방의 시문 100여 수를 필사해 남겨 오늘날까지 천방의 시문이 전해질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천방의 행장을 남겼다. 또한 스스로 “한 글 자라도 알게 된 은혜는 모두가 천방 선생의 은덕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정경달은 자는 이회^{而晦}이고, 호는 반곡^{盤谷}이다. 1570년^{선조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여러 벼슬을 거쳐 1592년^{선조25} 선산부사로 재임하였다. 그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많은 왜군을 포로로 잡았으며 관찰사 김성일, 병마절도사 조대곤과 함께 경상도 금오산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쳤다.

1594년에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계청^{啓請}으로 그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때 세운 전공이 책록되어 통정대부로 승진하였다. 1597년 이순신이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계략으로 투옥되자, 조정에 나아가 왕에게 “전쟁에 나가 싸움을 미루는 것은 병가의 승책^{勝策}인데, 어찌 적세를 살피고 싸움을 주저한다 하여 죄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이순신을 석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경달은 임진왜란 발발시부터 『난중일기』를 썼는데, 정경달이 임진왜란 초에 참전했던 일기와 명군집 반사로 재직할 당시의 일기이다. 원래 2책이었으나 현재 1598년^{선조3}부터 1602년까지의 내용만 남아 있다. 당시의 해전뿐 아니라 육전의 상황도 상세히 기술하였고, 대외교섭에 관한 기록도 남기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는 수백 편의 시문집을 남겨 『반곡집』으로 간행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국역되어 간행되었다.



정경달이 진법을 기록한 반곡진법



반계사

룡의 『징비록』이나 백사 이항복의 『임진록』 못지않게, 아니 그것들보다 나은 가치를 지닌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제자 정수철에게 보낸 여러 편 의 서신에서도 반곡을 언급하였다.

정조가 죽은 1801년, 다산 정약용은 40세의 나이로 정적들에 의해 사지에 몰렸지만 겨우 목숨을 건져 18년간의 긴 유배생활에 들어간다.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한 다산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중심으로 많은 저작과 시문을 남겼지만, 바로 이웃 고을인 장흥과 장흥 사람들에 대해 남긴 말은 별로 없다. 바로 앞선 시대, 장흥의 실학자 존재 위백규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다산이 장흥사람 중에 유일하게 수차례 언급한 이가 바로 반곡 정경달이었다. 특히 다산은 ‘반곡 정공의 난중일기에 제함’이라는 글을 통해, 반곡의 『난중일기』가 서애 유성

2 장흥에서 의주까지 간 청계 위덕의

청계 위덕의^{1540~1613}는 1573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성리학 연구에만 전심을 다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부친의 병이 위급하자 고통을 함께 하고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리는 효성을 보였다. 부친이 별세하자 묘소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며 아침저녁으로 엎드려 통곡했다. 그 자리에 풀뿌리가 돋아나지 못하니 향리 친척들이 다 ‘위 효자’라고 칭송하여 상을 내릴 정도였다.

임진왜란 때 왕이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흥에서 90일 간 걸어서 의주 행재소^{行在所}에서 임금을 알현하니 군신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 선조는 위덕의를 향하여 “그대는 참다운 충신이다”라고 칭찬하였다고 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명 장수 려응중은 공을 보고 “동국^{東國}의 산은 천관산이 있고, 사람은 위덕의가 있어 보배롭다.”고 했다. 또 조선에 구원병으로 출전했던 전말을 기록한 『동정기^{東征記}』에는 유성룡, 이항복, 이덕형, 정몽주와 함께 이름난 현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이 귀경한 후 위덕위는 영남 운량관^{運糧官}을 제수받았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이어 호종의 공으로 진원현감에 제수해도 취임하지 않으니 호종원종 일등에 록^錄하고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광주 황산사와 관산 죽천사에 배향되어 있다.



문위세 유허비와 강성서원의 전경

3 남평문씨의 일문창의

강성서원은 문익점과 문위세를 모시는 서원이다. 강성서원의 ‘강성’은 문익점의 호이다. 문익점^{1332~1402}은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외국인이 가져가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목화씨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복 생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선비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서원이 처음부터 문익점을 모셨던 것은 아니다. 이 서원은 원래 1644년^{인조22}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던 문위세를 모시기 위해 월천사^{月川祠}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734년^{영조10} 문익점을 추가로 모셨다. 1785년^{정조9} 김상추 등 전라도 유생이 문익점의 공덕을 흠모하여 사액할 것을 청하여 ‘강성’이라는 액호^{額號}를 받았다. 초대 원장은 채제공, 부원장인 원이^{院二}는 유향주가 맡았다. 강성서원은 원래 장흥 유치면 녹용리에 있었는데, 탐진호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유치면 조양리로 옮겨졌다. 서원이 있던 땅이 수몰지역이 되어 서원이 제자리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원래 터를 잃었지만, 그 이름과 정신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일문창의^{一門倡義} 한 집안 사람들이 대거 의병에 동참했다는 뜻이다.

“(1592년) 7월 1일 전라도 장흥의 진사 문위세가 본부^{장흥}와 강진·해남·영암의 여러 사위^{士友}들에게 통문을 돌렸다. 드디어 백중씨^{伯仲氏}와 함께 관산관에 모여 의논하여 향병^{鄉兵}을 모았는데 가동^{家僮} 100여 명을 먼저 내고, 아들 영개 등이 함께 양향^{襄餉}(군량)을 도모하였다. (...) 드디어 근왕^{勤王}을 하고자 하나, 무리들 모두가 전주는 태종의 신령이 있는 곳이고 영남은 호남의 보장이라 마땅히 먼저 영남으로 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장차 금산으로 향하고자, 전 보성현감 임계영과 박광전과 더불어 보성 관문^{官門}에 모이기로 기약하였다.” 『풍암문선생실기』

문위세^{1534~1600}는 전라좌도 남부지역 동인 계열 사림의 주축이자 퇴계 이황의 수제자였다. 11세 때에 처숙부인 굴정 윤구^{1495~1549}에게서 처음 소학을 배우고, 굴정과 왕래가 있는 미암 유희춘에게서 경의와 어록의 어려운 곳을 물어 배웠다. 13세에 퇴계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 도산서원에서 글을 배워 나중에 퇴계의 고제가 되었다. 34세에 모친의 권유로 과거를 보아 향시에 장원하고 그해 10월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동방으로는 청계 유몽정이 있다. 광해군의 사부를 지낸 죽천 박광전이 그의 자형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퇴계 이황 문하에서 함께 수학했던 박광전, 임실현감을 지낸 삼도 임계영과 의논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200여 명의 의병과 집안 노복 100여 명을 이끌고 나아가 전라좌의병의 군량미 확보, 조달 총책을 맡았다. 낙안, 순천, 구례, 남원에 이르기까지 전라좌도를 돌며 군세를 강화하고 무주, 진안, 장수,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워 소강상태에 이르렀다. 도산서원에서 동문수학했던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의 구원 요청을 받아 영남지역 성주, 개령지역 수북 전투에도 참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군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지략이 뛰어나 재갈량으로 비유되었다. 흰옷 입은 의병장으로 불리어지며 ‘백의의병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1595년 용담^{전북} 진안 현령에 임명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 때에도 읍민을 동원하여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많은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 뒤에 병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있던 중 파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1600년 3월 13일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숙종 때 월천사를 세워 배향하였다가 순조 때 광주의 충장사에 합향하였다.

일문창의에 나선 문위세 집안 사람들

문위세의 장남 문원개^{文元凱(1562~1636)}는 1592년 7월 20일 보성에서 전라좌의병의 창의에 참여한 뒤 아버지 문위세의 명에 따라 고향에 머물러 가묘를 지키면서 문위세의 활동을 뒷받침했다. 아버지가 용담 현령으로 5년 동안 재직할 때에도 아우들과 함께 주변을 지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냈다.

차남 문영개^{文英凱(1565~1640)}는 성주와 개령 전투에 참전했다. 정유재란 때는 동생 형개, 흥개, 여개와 함께 이순신 진영에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어부들의 배를 동원하여 명량해전을 돕기도 했다. 문영개는 선무원종 3등공신에 책록되었다.

3남 문형개^{文亨凱(1568~1627)}는 보성 창의에 동참했고, 성주성 회복 전투에 참전했으며, 무주와 장수 일대의 유격전에도 참전했다. 아버지의 관할인 용담 주변을 수비하여 왜적의 침입을 막았고, 명량해전에도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그는 형 영개와 두 동생 홍개 및 여개와 더불어 종전 이후 종7품 벼슬을 받았다.

4남 문홍개^{文弘凱(1571~1638)}는 보성 창의, 성주성 전투, 명량해전에 참전했다. 그는 1604년 선무원종 3등공신에 책록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갓 2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5남 문여개^{文汝凱(1573~1634)}도 보성 창의, 용담 읍성 방위, 명량해전 등에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그는 1624년 이괄의 난 때에도 형 홍개와 함께 창의하여 가문의 충의 정신을 빛내었다.

문위세의 사위 백민수^{白民秀}는 보성 창의에 함께했고, 남원, 무주, 성주, 개령 등지의 전투에 빠짐없이 참전하였으며, 용담을 지켜내는 데에도 공을 세웠다. 백민수는 선무원종 3등공신에 책록되었다.

문위세의 큰조카 문희개^{文希凱(1550~1610)}는 임란 때 삼촌 문위세를 따라 창의했다. 그 혁혁한 공적을 인정받아 고창현감으로 발탁되었고 정유재란 때는 왜적이 성을 포위하자 아들 익명, 익졸과 함께 적을 격퇴하고 고을을 사수하였다. 사직 후에는 부산면 부춘리 부춘정에서 만년을 보냈다.

문위세의 자형 박광전^{朴光前(1526~1597)}은 전라좌의병의 지도자였다. 67세라는 고령과 신병 때문에 직접 전투에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전라좌의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정유재란 때에도 72세의 나이마저 잊은 채 의병장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박광전의 두 아들도 모두 의병군으로 참전하여 활약하였다.

문위세의 7촌 문기방^{文紀房(1547~1597)}은 1579년 무과에 급제한 장수로서, 임진왜란 내내 여섯 아들과 4명의 사위와 함께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1597년 8월 16일 남원성 전투 때 순절하였다. 남원성이 매우 위급하여 잘 훈련된 군사와 고향 장흥에서 데려온 가노 수백 명과 함께 전라병마절도사 이복남의 부사령관으로서 남원성 북문을 지켰는데, 일본군들한테 여러 겹으로 포위되어 입고 있던 적삼소매에 혈서를 쓴 뒤 갑옷을 벗어 하인에게 넘겨주고 육박전으로 싸워 장렬하게 순절하여 남원수호공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또 다른 7촌 문명회^{文明會(1560~1597)} 또한 무과 출신으로 문기방과 더불어 선무원종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4 이순신과 함께 싸운 마하수 5부자

마하수^{馬河秀(1538~1597)}는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자는 선천, 호근 주촌, 본관은 장흥이다. 장흥부원군 충정공 마천목의 7세손이다. 마천목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서 전라도 병마절제사로서 강진의 병영성을 축성한 인물이다.

마하수는 1564년^{명종19} 무과에 합격하여 선공감주부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 건조에 참여하여 이순신을 도왔다. 1597년 이순신이 투옥되자 관직을 사퇴하였다가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되어 전라도 회령포에 이르렀을 때 네 아들과 향선^{嚮船} 10여척을 거느리고 이순신을 배후에서 도왔다. 그해 9월 명량해전 때는 왜선에 포위되어 고전하던 중 적탄을 맞고 전사하였다. 명량해전에서 아들 성룡·위룡·이룡·화룡 4형제도 용감하게 싸워서 승전하였다.

마하수는 후에 병조참판에 추증되고, 경기도 충현사와 장흥 학송마을 충현사에 배향되었다. 마하수의 네 아들은 명량해전이 끝나고 고향인 장흥군 안양면 학송리로 돌아와 벼슬을 하고, 고향 마을 뒷산에 묻혔다. 학송리 마을 네 아들의 후손들은 제실을 짓고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5 초계변씨 13충훈

남평문씨, 장흥마씨 외에도 임란 당시 활약했던 또 다른 가문이 있다. 바로 초계변씨 가문이다. 당시 초계변씨는 충남 아산, 경남 초계, 장흥 안양 동촌 마을 등지에서 세거를 이루고 있었다. 장흥에 터를 잡은 초계변씨들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통제사 이순신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장군의 어머니가 초계변씨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초계변씨들은 가족들이 합세하여 의병에 참여했다. 임란 때는 주로 권율의 막하에서,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 막하에서 활약하다 모두 순절했다. 후에 이들은 ‘초계변씨 13충훈’으로 불리고 있다. 변홍원·변홍제·변홍주·변덕항·변홍건·변홍달·변홍적·변홍선·변홍량·변덕장·변공의·변덕일이 바로 그들이다. 이 중 변홍주는 명량해전에서 전사한 마하수의 사위였고, 변홍건은 사위가 남원성에서 전사한 문기방이었다. 현재 안양면 수양리에 ‘초계변씨십삼충훈유허비’가 선대의 터전이었던 동촌마을을 바라보고 서 있다.



6 김응원의 각왜비

-김응원 제각비, 일본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비석(장흥읍 평장리 금안)

1881년^{고종18}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던 김응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김응원은 형 김응규와 함께 1595년^{선조28} 의병을 모아 도고동^현 금안마을 뒷산에서 훈련을 하였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직접 부딪치는 것을 피해 수천 개의 등을 도고동 뒷산에 매달고 마을 사람들을 매복하게 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일제히 큰 함성을 지르게 하여 많은 수의 의병이 매복한 것처럼 꾸미자 일본군이 달아나 버렸다고 한다. 이때 나라에서 벼슬이 내려지고 도고동 바위에 각왜동^{却倭洞}이라 새기게 하였다. 현재 각왜비^{却倭碑}는 정면·측면 각 1칸의 비각 안에 있으며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비석에는 ‘有明朝鮮國成均館生員行參奉慶州金公却倭碑^{유명 조선국의 성균관생원 행 참봉인 경주 김공이 왜를 물리친 비석}’이란 뜻이 새겨져 있다.



7 명량해전의 전초기지, 장흥 회령포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길 길이 없다.” 『난중일기』

원균의 칠천량 전투 패전 소식을 들었을 때 적은 7월 18일 일기이다. 그러나 통곡도 잠시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힘겨운 여정에 나선다.

8월 3일, 삼도수군통제사에 다시 임명되었지만 고작 군관 9명과 군사 6명뿐만이 옆에 있었다.

8월 9일, 보성에 도착하여 약간의 병기와 120여 명의 군사를 확보하여 미약하지만 다가올 결전을 준비한다. 이때 ‘수군을 육지에 합치라’ 하는 어명이 내려온다. 이에 이순신은 비장한 경의가 담긴 장계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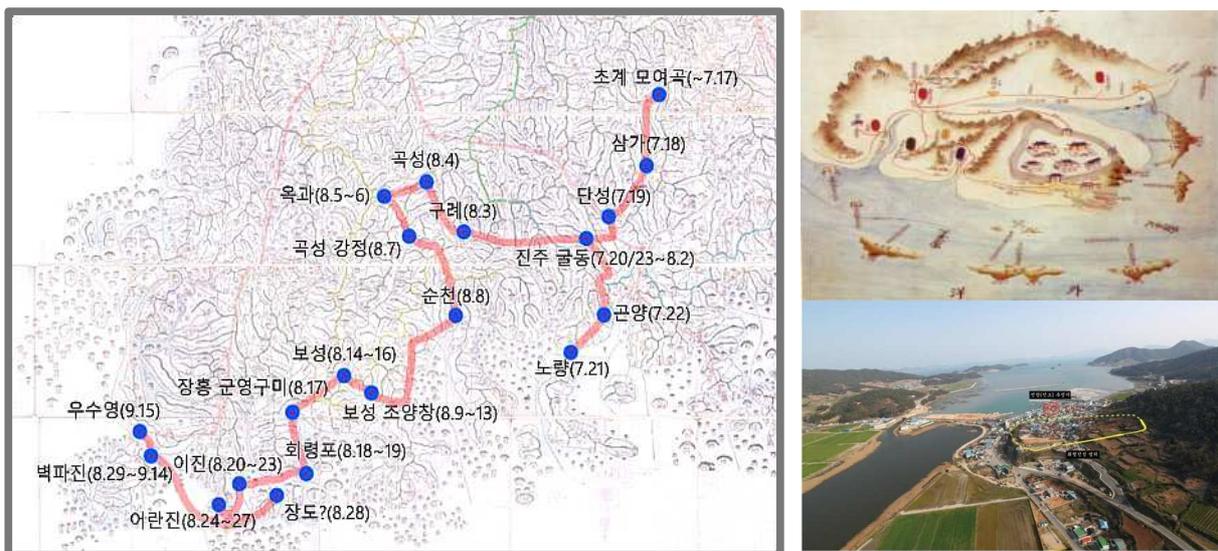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보성을 나서 8월 18일 장흥, 회령진성에 도착한다. 군사를 살피고 전선을 점검하며 여러 소속인 군대를 하나로 통일한다.

8월 19일, 교서와 유서에 숙배하게 하고 삼도수군통제사에 취임을 한다.

9월 16일, 세계 최고의 해전으로 기록되는 명량해전을 치른다.

회령진성은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자 그 전초기지였다. 칠천량 전투 패전 이후 당시 경상우수사 배설이 부서진 배 12척을 이끌고 피신을 하였으며, 그 배를 고쳤던 곳이 덕도 덕산마을이다. 이순신 장군은 통제사 취임 후 곧바로 전선 정비를 착수하여 덕도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을 동원해 난파 직전이 배를 수리하였다. 아직도 마을에는 배를 숨겨 놓은 고집들^{庫集들}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으며, 덕산 마을에는 12척의 배를 수리하던 거두쟁이^{獨쟁이}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순신의 조선 수군 재건(좌) / 1872년의 장흥부회령포진(우상) / 현재의 회령포(우하)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불꽃

1894년 1월 3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성을 점령한 후 무장에서 기포하였다. 장흥에서는 4월 18일 이방언·이인환·강봉수·접주 등이 1천여 명을 이끌고 동학농민군 본영인 백산^{부안군 백산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방언·접주를 비롯한 장흥 농민군은 4월 23일 장성 황룡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당시 이방언은 자신이 고안한 장태를 활용하여 관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이방언은 장태장군이라는 별호를 얻었다. 동학농민군의 황룡촌 전투승리는 4월 27일 전주성의 함락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할 기미를 보이자, 조정 관료들은 청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군까지 국내로 들어왔다. 전봉준은 전라관찰사 김학진과 협의하여 전주화약을 맺었다. 전봉준은 전주성에 집결한 농민군을 해산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폐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자진 해산한 동학농민군은 고향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나주와 운봉을 제외한 모든 군현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장흥의 경우 1894년 6월 이사경 대접주의 근거지인 자라면지^{부안면 금자리 효자마을 앞}에 집강소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장흥의 남상면, 고읍면, 대흥면 등에도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청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내정을 간섭하였다. 전봉준이 일본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2차 봉기를 선언하자, 장흥지역에서도 대접주 이방언이 5천 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2차 봉기에 가담하였다. 이 틈을 타 장흥도호부·전라병영·벽사역의 관군이 장흥 지역에 남아 있는 농민군과 동학교인을 탄압했다. 이 소식을 들은 금구 대접주 김방서가 농민군을 이끌고 장흥 외곽인 흑석장터^{장평면 봉림리}까지 진출하여 관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한 동학농민군은 11월 25일 금구 원평, 11월 27일 태인 전투에서 다시 패함으로써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장흥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대회전에 나서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였다. 11월 21일 구교철이 이끄는 농민군 수 천 명이 웅치면에서 기포하고, 11월 25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기포하여 회진의 회령진에 무혈 입성하였다. 이들은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뒤 고읍면과 남면을 거쳐 11월 27일 경구교철의 농민군과 합세하였다. 1894년 12월 1일 3만여 명의 농민군이 장흥부 외곽의 사창으로 모여들었다. 집결한 농민군은 벽사역을 점령하고, 이어 장녕성 전투, 강진현 전투, 전라병영성 전투에서 차례로 승리하였다. 우금치 패배와 잇따른 전봉준의 체포 이후 절망에 빠진 동학농민군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게 했다.

이렇게 장흥농민군이 세력을 확대해 가자 당황한 관군과 일본군들은 농민군들을 토벌하기 위해 장흥으로 집결하였다. 3만의 장흥농민군들은 일본군들을 상대로 장흥읍 석대들에서 이들에 걸쳐 치열하게 싸웠으나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관산을 옥산에 재집결한 농민군은 다시금 일본군과의 전투를 계속하였고, 대덕 월정리 전투를 마지막으로 장흥농민군의 전투는 끝이 났다.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최대 전적지 석대들은 2009년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이곳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장흥에 동학이 전파되다

장흥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시기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30년 전인 1864년으로, 웅치면에 살고 있었던 박병락 부부가 처음으로 동학에 입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동학교주 최제우가 처형된 뒤 7개월 후의 일이며, 용반접의 이사경과 같이 대물림 접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학혁명의 시기에 장흥의 동학세력은 30여 년 이상 계속해서 포교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또 1891년의 『천도교회월보』에는 이렇게 적고 있다.

“본군 이인환, 이방언, 문남택 제씨가 교문^{敎門}에 입도하다. 이때에 장흥·보성·강진·완도 각 군에 포덕이 대진하여 신도가 수만에 달하다”

이방언·이인환과 같은 지역의 향촌 지식인들이 동학에 입도하자 장흥지역의 동학 교세는 급격히 성장하였고, 보성, 강진, 완도 등 전남 남부 연해지역까지 동학이 널리 확산되었다.

장흥의 경우 현재의 용산면 묵촌의 이방언접, 부산면 용계의 이사경접, 당시 장흥에 속한 웅치의 구교철접, 대덕면 대홍의 이인환접, 관산읍 고읍의 김학삼접 등 이른바 장흥의 5대접이 형성되었다. 그 외에도 남외의 박채현, 관산 농안의 손자삼, 용반의 백인명, 안양의 고채화, 대덕의 홍순·강봉수·오동호 등의 접주급 지도자들이 있었고, 당시 장흥의 동학교도가 자그만치 7천여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동학의 수용을 달가워하지 않은 계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유학자들은 성리학에 더욱 정진할 것을 서로 격려하고 다짐하였다. 강진향교의 장의인 오남 김한섭과 강진 유생인 일사 박기현 등은 장흥과 강진에 확산되는 동학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들은 동학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강진향교와 더불어 향약계를 조직하였다. 또한 김한섭은 임헌회 문하에서 동문수학했던 이방언에게 동학을 그만두라고 강력히 종용하기도 했다.

한편,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동학 지도부는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들은 포접제와 같은 조직을 바탕으로 교조 최제우의 신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공주와 삼례취회를 거쳐 1893년 5월 전국의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에 집결했다. 보은취회에 각지에도 2만여 명의 교도가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라도의 동학교인과 농민들이었다. 이방언도 장흥의 동학교도와 함께 참가하였다.

장흥 농민군들의 1차 기포

1894년 1월, 전봉준이 고부 농민 1천여 명과 함께 고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했지만, 이 조치는 ‘악수’였다. 수습은커녕 일체의 죄를 동학교도들에게 뒤집어씌우며 체포, 방화, 폭행, 살상을 일삼았다. 그리하여 전봉준, 손화중 등 남접의 지도부가 음력 3월 20일 재차 봉기하였다. 이른바 무장기포였다.

장흥동학군은 무장기포 당시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접주 등이 기포해 농민군을 이끌고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 그 뒤 4월 23일, 장성 황룡강 일대에서 초토사 홍계훈이 이끌었던 관군과의 첫 전투인 황룡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전투에서 장흥 대접주 이방언은 ‘장태장군’으로 이름을 날렸다. 유치면 한치리 출신인 당시 나이 24살의 이성환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

농민군은 황룡춘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5월 31일 전주성을 공격해 점령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그러자 국제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조선 정부와 농민군 지도부는 6월 11일 전주화약을 맺었고 농민군들은 각자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장흥의 농민군들도 전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때의 광경은 온통 승리에 도취되어 금의환향하는 모습이였다. 귀향하는 농민군들은 말을 타고 나팔과 피리를 불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고 하며, 또 한 일화는 전주성 전투에서 관군의 포탄에 맞아 전사했던 부산면 금자리 출신 김양한의 운구행렬이 유치면에서 부산면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시하다

전주화약과 함께 전라도 관찰사에 새로 부임한 김학진은 전봉준과 각 군마다 집강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나주, 남원, 운봉 등 몇몇 고을에서 양반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설치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호남지방 대부분의 고을에는 이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장흥은 1894년 음력 6월 20일경부터 집강소 활동이 시작되었다. 장흥의 자라번지^{현 부산면 금자리 효자마을}에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동학도인’들이 죄인들을 잡아 징치하였다. 이 집강소는 이사경 접주가 주도한 용반점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장흥에서는 목촌의 이방언점을 능가할 정도였다. 강진에도 얼마 후인 음력 7월 초순 집강소를 설치하여 토호세력을 징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흥과 강진에서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이 추진되자, 기존의 신분질서와 수취체제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 중에는 오남 김한섭이 대표적 인물인데, 그는 이방언과 같이 임헌회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였다. 이들은 음력 7월말 부임한 장흥부사 박현양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강진 유생 박기현의 『일사日史』에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강진에서도 이교吏校들이 음력 9월에 읍성 안에 도소 설치를 저지하였으며, 이어 강진 병영에서도 도소를 철폐하고 수성소守城所를 설치하였다. 다음 달 18일에는 병영의 수성군 지도부는 민간인을 징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음력 11월에는 동학교인을 죽이거나 집을 파괴하기까지 할 정도로 대범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성군 측에서는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회유 활동도 전개하였다.

장흥 농민군들의 재기포

각지에서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8월 초순,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했다. 이에 전봉준 등은 전라감사 김학진의 협조를 얻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재기포 준비에 돌입하여 집강소 활동보다는 반외세 활동으로 국면을 전환하였다.

전봉준의 동원령에 따라 장흥에서는 이방언의 주도로 농민군을 동원했는데, 그 규모는 5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이 북상하자 장흥과 강진의 수성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게다가 수성군측은 강진 병영의 병력과 무기를 활용할 수 있었고, 장흥 벽사역의 역졸 800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장흥의 농민군 측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전봉준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지영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강진 병영과 장흥부에서는 관리배들이 다시 발호하여 동학당을 침범한다는 급보가 논산 대본영에 들어왔다. 강진 본영으로 말하면 육군을 양성하는 호남의 중진^{重鎮}이요, 장흥부도 또한 웅주거읍^{雄州巨邑}으로 유명한 곳이라 장흥부사와 강진병사가 밀모^{密謀}하고 동학대군이 북진하고 없는 틈을 타서 앉아 있는 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침

력이 심하다 하는지라 이 급보를 듣고 정히 걱정하던 차 금구대접주 김방서가 자원 출전하겠다 하는지라 대본영에서는 그를 곧 허락하여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강진으로 향하여 내려갔다.” 『동학사』

장흥과 강진에서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이 거세므로 지원을 요청했고, 전봉준이 김방서에게 지원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방서의 농민군은 음력 11월 초 장흥 흑석장터까지 진군하였다. 이들은 같은 달 중순까지 장흥부 외곽인 사창·웅치·회령·대흥 등지에 농민군을 집결시켰다. 뿐만 아니라 광주·나주·남평·보성·능주·화순 등지의 농민군들 일부가 장흥으로 속속 남하해왔다. 이들은 음력 12월 초하루 장흥부 외곽의 사창에 주둔했는데, 군세가 대략 1만~3만여 명을 헤아렸다. 이때 이방언은 집결한 농민군들에게 장흥부와 병영성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진격하자는 내용의 대중연설을 하였고, 이어서 실제 장흥부와 벽사역이 있는 장흥읍 진출을 시도하였다.

한편 장녕성에 있었던 장흥부에는 1894년 6월, 박헌양 부사가 부임하면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을 결성하여 동학의 탄압에 나섰다. 또 가까운 강진현과 병마절도사가 있는 강진 병영성에서도 동학군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체포해 가두고 죽이는 등 관군과 동학농민군간의 본격적인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부 복진했던 농민군의 후방을 지키던 대흥접주 이인환, 웅치접주 구교철 등 농민군들은 11월 21일부터 기포를 시작했다.

벽사역을 점령하다

사기가 오른 농민군들은 3일 이방언이 평화리에 진을 치고, 이인환과 구교철의 대흥, 웅치 농민군이 지금의 장흥고등학교 자리인 건산리 모정 일대에 진을 친다. 또 금구의 김방서 부대는 원도리 벽사역 뒤쪽 평원에 진을 쳤고, 이사경과 용반접의 농민군들은 행원리 앞 평원에 진을 쳤다. 4일 새벽부터 벽사역에 대한 농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관군 측의 기록에 따르면 농민군은 벽사역의 건물들과 가옥에 총과 대포를 쏘아 불을 지르며 공격하였고, 연기와 불덩이가 장흥의 하늘과 성에 가득 찼다고 한다. 벽사역은 지금의 원도리 일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방어 성곽이 없는 평지의 군사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벽사역의 찰방 김일원은 구원요청을 빌미로 병영과 나주로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벽사역은 농민군에게 쉽게 격파되었다.

장녕성을 점령하다

벽사역을 점령한 농민군은 다음날^{5일} 새벽, 장흥부사가 지키고 있는 장녕성^{장흥읍성}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대포소리를 신호로 해 공격을 시작하여 차가운 탐진강의 강물을 건너 이사경 부대가 북문을 넘어 진격했고, 연이어 남문과 동문을 부수고 농민군 부대가 성내로 진입하는데 성공한다. 관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전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동문 앞 탐진강의 죽교를 부수고 농민군에 맞서 싸웠다.

이때 박헌양 부사 등 96명이 전사했다. 이들의 위패가 장흥읍 영회당에 모셔져 있다. 당시 일본군은 장흥부사 이하 500명이 죽고 관아와 민가 3,700여 호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장녕성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여성 지도자 이소사가 크게 활약하였다.

강진읍성을 점령하다

장녕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6일, 강진과 경계에 있는 사인정으로 옮겨 가 강진 방면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다.

사인정은 병영성과 강진읍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농민군은 다음날인 7일 새벽에 출발하여 곧바로 강진읍성을 포위했다. 이때 강진현감 이규하는 구원요청을 명목으로 병영과 나주로 도망가 버렸고, 민보군을 지휘하는 김한섭이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수성군과 함께 성을 방어하고 있었다. 한때 동문수확했던 이방언과 김한섭이 이 강진읍성 전투에서 대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기가 떨어진 강진읍성의 수성군들은 전력도 열세인데다가 지휘체계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농민군들에게 성을 내주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수성군 도통장 김한섭 등 수성군 지도부 6명이 희생되었고 읍내 가옥들이 소실되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이 강진읍성 공격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무리 되었고, 농민군은 곧바로 병영성 공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강진 병영성을 점령하다

강진읍성을 점령한 농민군은 점심을 먹고 나서 세 갈래 방향으로 이동하여 병영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정규 군사시설인 병영성의 함락은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농민군은 이틀에 걸쳐 인근 산봉우리와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병영성 공격은 10일 오전에 시작되었다. 수만의 농민군이 병영성을 향해 몰려오자 강진현감 이규하, 병영성을 지휘하던 병사 서병무는 변장을 하고 피난민 사이에 섞여 성을 빠져나가서 영암(나주)으로 도망가 버렸다. 병사가 도주하자 남아있던 1천여 명의 수성군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나 성을 빙 둘러서 목책을 쌓고 방어준비를 했다. 농민군은 병영성 인근의 봉우리에서 일제히 포를 쏘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여 성문을 부수고 성안으로 진입했다. 이때 성 안에서도 농민군과 수성군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공격했던 농민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무기 창고를 지키던 김두흠은 화로를 안고 엄청난 량의 화약을 보관하고 있었던 창고에 뛰어들어 그것을 폭발시켜 버렸다. 그래서 농민군들은 크게 기대했던 화력 보충을 할 수 없었고, 때문에 이후의 여러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관군과 일본군들에게 큰 패배를 당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전투로 인하여 병영성은 284칸이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민가가 화약 창고의 폭발 때 불타버렸다. 그렇게 병영성은 농민군에게 패배한 관군 사령부로 낙인이 찍혀서 재건되지 못하고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야야 성곽과 성문이 복원되었다.

석대들 전투의 전야, 조양촌 전투와 유앵동 전투

한편, 장흥의 소식은 초토영이 있는 나주에도 전해졌다. 강진과 장흥이 농민군의 수중에 장악되자, 관군과 일본군은 세 방향으로 압박하여왔다. 이두항이 통솔하는 군대는 순천에서, 이규태가 이끄는 군대는 영암에서, 일본군은 나주에서 이동해온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장흥의 연합 농민군은 장흥읍 남문 외곽과 건산 모정 등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장흥지역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전투는 유치농민군의 조양촌 전투로부터 시작된다. 12월 12일 아침, 유치농민군들은 영암으로부터 재를 넘어 장흥으로 진입하는 일본군과 첫 전투를 치렀다. 농민군은 후퇴하여 조양마을 인근 산에 숨었다가 문씨 종갓집에서 아침을 먹던 일본군을 기습하여 물리쳤으나, 이내 퇴각하였다가 돌아온 일본군은 종갓집을 태우고 동학대장의 부인을 정자나무에 묶고 고문했다.

12월 13일에는 부산면 유량리 일대에서 유앵동 전투가 이어졌다. 유치에서 장흥으로 들어서는 길목인 유량리에 일본군이 나타나자 장흥 농민군 수백 명이 맞섰다. 이에 일본군들은 산등성이를 점령하고 일제사격을 시작했고 농민군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격전을 벌였다.

최후의 불꽃, 석대들 전투

12월 14일, 일본군이 장흥 읍내로 진출하면서 전투가 본격화되지만 남문 밖과 모정 등에 주둔하던 수천의 농민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자올재를 넘어 퇴각하였다.

며칠간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농민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방언과 이인환의 지휘 아래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농민군은 마지막 승부처를 석대들녘으로 삼았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15일이 다가왔다.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금월 15일 장흥읍에 도착하여 읍의 상황을 탐문하였다. (...) 뜻밖에 농민군 3만 명이 높은 봉우리 아래로부터 북쪽 산마루까지 산과 들 가득히 수십 리에 뻗혀 봉우리마다 나무 사이로 기를 꽂고 함성을 질러 서로 호응하며 포를 쏘아대며 날뛰어 창궐하니 그 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내 백성들은 창황히 도망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군 중위와 상의한 뒤 통위영 병정 30명으로 후록 주봉의 적을 막게 하고 본대 병정과 일병日兵은 장흥성 모퉁이 대나무 숲 아래 숨게 하고 먼저 민병^{民兵} 30명을 헤아려 내보내 평원 뒤로 유인하게 하였다. 시졸들이 분발하여 총을 들고 양로로 나누어 진격하여 죽 늘어서 대열을 벌이며 진격하면서 접전하여 수백 명을 포살^{砲殺}하였다.”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농민군 3만 명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으나, 관군의 유인전술에 말려들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때 농민군의 규모는 3만여 명으로 자올재를 넘어 장녕성의 뒤쪽 장원봉 일대까지 점령하고 장흥부를 포위했다. 그러나 곧바로 강진 방면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가 합류하고 일본군의 유인작전에 말려서 들판으로 진출한 농민군들이 매복해있던 일본군의 집중사격을 받아 진영이 무너져 버렸고, 그에 따라 농민군들은 눈물을 머금고 자올재를 넘어 퇴각하고 말았다.

후에 장흥에서는 이 전투를 두고 ‘석대혈전^{石臺血戰}’이라고 표현했다. 그 만큼 이 전투는 농민군과 일본군 피아간에 서로 저서는 안 될 중요한 전투였던 것이다. 전투가 벌어졌던 이때는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이었고, 농민군들은 일본군들에 비해 빈약한 무기와 입는 옷마저 허술하기 그지없었다. 가진 것은 썩어 빠진 봉건 왕조와 외세를 몰아내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다.

석대들 전투 이후_ 학살의 시간

14~15일의 석대들 전투 이후 후퇴했던 농민군들은 다시 16일, 관산읍 옥산에 재집결하여 항전하였다. 그리고 17일, 월정리 전투를 끝으로 장흥 농민군들의 전투는 끝이 났다.

결국 기울어진 대세를 회복하지 못한 채 각자의 살 길을 찾아 해산하고 말았다. 이들은 인근의 천관산이나 바다를 건너 섬으로 피신하였다. 하지만 관군과 수성군에게 붙잡힌 수많은 농민군들은 장흥 장대와 벽사역 부근에서 처형되었다. 남도장군으로 불리며 장흥 농민군의 지도자였던 이방언 역시 체포되어 나주에서 서울로 압송되어 재판관을 받아 무죄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는 보성에 은거 중 다시 체포되어 음력 4월 27일 벽사역에서 아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이듬해 1월 13일에는 고읍접주였던 김학삼 이하 14명이 체포되어 벽사역에서 포살되었고, 21일 대홍접주 이인환은 천관산에 피신했다가 붙잡혀 나주로 압송되었다가 음력 3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사경 역시 1월 15일 벽사역에서 포살되었으며, 김방서는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풀려나 다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농민군들이 희생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름이 확인된 장흥지역 농민군 전사자는 357명,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사자는 1,165명이나 된다고 한다. 석대들 전투를 전후하여 농민군 1,500명 이

상이 사망했으며, 수성군 측 역시 장흥부사 이하 약 600명이 희생되었다.

이와 같이 관군·일본군은 장흥을 비롯한 전남의 서남부지역으로 농민군을 몰아붙여 섬멸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장흥 석대들 전투 이후 일본군은 농민군의 재기를 막기 위해 더욱 잔혹하게 학살하였다.

“장흥·강진 전투 이후로는 많은 비도를 죽이는 방침을 취하였다. 필경 이는 소관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훗날에 재기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다소 살벌하다는 느낌을 살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공사와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위의 내용은 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남소사랑이 보고한 내용이다. 이들은 농민군이라 판명되면 무조건 죽였다고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일본군은 총살, 돌살, 타살, 소살 등 참혹한 방법으로 농민군을 학살하였다.

석대들 전투 이후_ 정토군의 시간

장흥에서의 전투가 모두 끝난 2월 중순, 일본군의 원대 귀환령이 내려졌다. 2월 28일 오후 4시가 넘는 시간, 농민군의 진압에 참여했던 2천여 명의 일본군·조선군이 군부대신 조희연의 환영을 받으면서 용산 만리창 들판에 정렬했다.

군무협판 권재홍은 일본군 지휘관 미나미 소좌에게 임금의 유서를 전달했다.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웃나라의 친분으로 이 오한의 날시에 험준한 산곡을 지나 많은 고난을 거쳐 우리나라를 위해 동학당 비도를 초토하고 우리나라의 치안을 보존하며 우리 백성을 도탄의 고통 속에서 구하니 짐은 깊이 그 높은 뜻을 찬탄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미나미는 이를 전군을 향해 봉독했다. “대조선국 군주 폐하는 특별히 불초 등이 동학당 토벌의 공을 이르시어 개선함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칙어를 주시니 일동은 모두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라는 답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미나미의 선창으로 모든 군인들이 “대군주 폐하만세”와 “대일본 황제폐하만세”를 삼창했다.

다음날 오후 고종은 일본군 장교들을 경복궁으로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정토의 실상을 들었다. 일본공사 이노우, 왕태자를 비롯해 총리, 그리고 여러 대신들이 배석했다. 고종은 일본 장교들의 전공을 낱낱이 듣고 치하를 했다. 다음으로 참석자 모두 대군주 폐하만세를 삼창했다. 다음으로 내무대신 박영효가 환영사를 했다. “특별히 여러분의 덕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일대 우환인 동학의 대내란을 진정시킨 것은 성심을 다해 국가를 위해 한 일로 만강의 사의를 표한다.”고.

다시 만세삼창이 울려 퍼졌고 질편한 요리와 맛있는 술로 여흥을 즐겼다. 이들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나와 다시 본영에서 환영 잔치를 벌였다. 이후에도 연달아 초대의 자리가 열려 토벌의 전말과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대대적인 환영과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이때 농민군과 가족들은 수성군과 민보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산골이나 섬으로 도망을 가 기아에 허덕이거나 얼마 되지 않은 재산마저 빼앗기는 처참한 신세였다.

장흥 농민군의 여성 지도자, 이소사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닌 듯싶소. 몸이 날렵하고 목소리가 청아하여 사람을 모으는 재주가 있으며 말을 남자 못지않게 잘 다루니 필시 크게 쓰일 데가 있을 모양이오.” 명금해정, 『깊은 강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장흥의 민인^{民人} 등이 잡아 바친 여자 동학은 그들이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일컫는데 요사스런 말을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현혹한 일대 요물이다.” 『양호우선봉일기』

“동학당에 여장부가 있다. 동학당의 무리 중에 한 명의 미인이 있는데, 나이는 꽃다운 22세로 빼어나기가 경성 지색^{傾城之色}의 미인이라 하고, 이름은 이소사^{李召史}라고 한다. 오랫동안 동학도로 활동하였으며, 말을 타고 장흥부가 불타고 함락될 때 그녀는 말 위에서 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꿈에 천신^{天神}이 나타나 오래된 제기^{祭器}를 주었다고 하며, 동학도가 모두 존경하는 신녀^{神女}가 되었다.” 『國民日報』 1895년 3월 5일자

장녕성^{장흥읍성} 전투에서 활약한 농민군 중 여성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소사^{1874~1895}이다. 동학교인으로 아리따운 젊은 여성이 말을 타고 장흥부 공격을 앞장서서 지휘했다. 마치 프랑스의 잔 다르크가 연상된다. 형형한 눈빛의 젊은 여인 이소사가 이끄는 농민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다. 이소사의 낭랑한 목소리에 화답한 동학군들의 함성은 소리만으로 성벽을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소사는 여성동학농민군으로서 유일하게 빈약하게나마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정확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소사’는 이 여성의 이름이 아니고 지금의 ‘여사’ 또는 ‘씨^氏’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결혼을 했거나 또는 혼인할 정도로 나이를 먹은 여성들을 부르던 호칭이라고 한다.

이소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20대 초반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진이나 초상화는 물론 어디서 나고 어떻게 자라나 무슨 까닭으로 동학군이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적인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병사가 쓴 군사 일지에서 짧게 언급한 내용을 비롯해 이 무렵 일본에서 제작된 인쇄물에 미미하게 남아 있는 기록들을 뼈대로 하여 역사적 상상력이 더해진 출판물들을 통해 8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설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이소사는 일가친척 중에 동학에 입도한 이가 있어 그의 영향을 받아 동학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여성과 어린이는 물론 자연이며 만물도 다 한울남이니 모두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동학의 생명존중사상, 만물평등사상에 기우는 몸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동학군이 되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온 의지를 다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장녕성 전투에서 농민군들을 지휘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하기도 했으나 석대들 전투 후 끝내 붙잡혀 극심한 고문을 받고서 심하게 앓다가 나주로 압송되어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때로부터 수 세대가 흐른 후 우리에게 이소사는 혁명 당시를 담대하고 치열하게 살다 간 이름 없는 ‘여성 전사’로만 남아 있다. 전쟁이라는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었으나 그 시기 대다수 여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소사 또한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공적인 기록에 남지 못했던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의 행간’을 뒤적이는 작업이 꾸준히 시도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더 늦기 전에 공식 역사에서 지워져온 삶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은 여성들이 치러야 했던 전쟁

1894년 갑오년은 동학농민혁명이 온 나라로 들불처럼 번져가면서 ‘남성’ 동학농민군들이 농기구며 죽창 등을 손에 거머쥐고서 죽음을 무릅쓰고 집밖을 나선 해였다. 그때 그들의 부인인 여성농민들과 그들의 어머니며 딸들을 포함한 주변 여성들은 어떠하였을까? 아마도 개벽세상을 염원하며 처절한 싸움터에 기꺼이 발을 내디딘 농민군들이 떠나 더 기울어진 집안을 돌보면서 기약 없이 떠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했으리라. 그러면서도 관아의 횡포며 토벌군의 무례와 야만을 온몸으로 견뎌가며 여성들은 남은 자들의 전쟁을 치러야 했으리라. 관군들과 일본군들은 농민군들이 떠난 수많은 집들을 불태웠고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식량이며 살림살이를 약탈하면서 여성들을 희롱하거나 강간하고 농민군인 남편의 행적을 대라며 그들을 나무에 묶어서 구타하고 고문했던 것이다.

이 무렵, 장흥을 비롯하여 싸움터가 되었던 나라 곳곳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아마도 거의 다 비슷했을 것인데, 마을에 남아서 그 공포를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건 사회정치적으로 더 약자인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 이렇듯 농민군 남편들이 전쟁을 치러낼 때, 아이들과 여성들 또한 화염에 휩싸이는 집과 몇 줌 남지 않은 식량을 모조리 털리고 뺏기며 그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집에서 내몰리고 쫓겨나 타지를 전전하며 일상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마을에 겨우 남았더라도 풍비박산 난 집안에서 목 놓아 울거나 정신을 놓을 새도 없이 처참한 싸움터를 며칠에 걸쳐 뒤지며 시신을 수습하는 건 여성들의 몫이었다. 행여나 반란죄에 연루되거나 역적으로 낙인찍힐까 봐 집안의 남성들인 형제들조차 꺼려하는 그 일을 남장까지 해가며 농민군들의 부인, 어머니, 며느리, 누이, 딸들이 몇 십리나 되는 길을 걸어가서 무거운 시신을 들쳐 업고 오기도 했다.

장흥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시신 수습을 행한 여성들의 이야기 이외에는 갑오년 혁명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화했는지에 관한 기록물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 대부분이 글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 자신의 삶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배운’ 남성들에게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어 애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살아남은 여성들 자신이 직접 겪은 그 난리 당시의 시신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그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뒤늦게나마 한 줌의 역사로라도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3 장흥동학농민혁명, 그 기억의 장소들

용산면

장흥읍을 기준으로 동남부 쪽 해면에 자리한 용산면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있기 이전부터 ‘남면’이라 불리다가 1940년에 지금의 지명으로 바뀌었다. 용산면 일대에 자리하고 있는 큰 산인 부용산으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석대들 전투에서 살아남은 농민군들 대부분이 자울재를 넘어 남면으로 후퇴했고, 어산 등지에서 결집하여 옥산과 월정으로 진출해갔다. 석대들 전투 이후 일본군들은 살아남은 농민군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때문에 ‘남면 토벌전’이라 불리었던 무차별

적인 수색 작전이 남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졌다. 토벌군들은 남면 마을 곳곳을 이 잡듯이 뒤지며 마을의 집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화와 약탈과 고문과 살인을 자행했다. 퇴각한 농민군들이 대거 이동한 곳이 남면이기도 했거니와 장흥의 다른 읍면에 비해 혁명에 참여한 농민군들이 살던 마을 수가 많았기 때문인데, 토벌이 심하게 행해졌던 만큼 마을주민들의 희생 또한 컸다.

이방언 접주와 도르쇠 들판

도르쇠 들녘이 자리하고 있는 묵촌은 문방사우 가운데 마을 뒤쪽에 자리한 부용산 필봉이 붓을, 그 아래에 있는 현암이 벼루를 의미하고, 마을에 동백나무숲 옆으로 종이 생산지인 따밭도 있었으나 먹이 없다가 하여 묵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곳이 이방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한편 월송천을 끼고 묵촌마을과 이웃해 있는 월림마을은 이방언의 처가가 있던 곳이다.



(왼편) 묵촌마을 앞 들녘인 '도르쇠'와 한쪽에 기울어진 채로 묻혀 있는 선돌의 모습 (오른편) 농민군들이 쉬어가곤 했던 어산리 들판의 푸조나무

이방언은 이 묵촌과 월림을 오가며 농민군들을 조직하고 도르쇠 들녘에서 훈련을 지휘했다. 도르쇠 한쪽에는 대장기가 펠럭였고, 15미터 정도 높이의 선돌 2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 100여 년간 시나브로 들판이 농경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으며 1기가 사라지고 현재는 나머지 1기만이 비스듬하게 누운 채로 땅에 묻혀 남아 있다. 묵촌마을에는 이방언의 가족묘가 조성되어 있고, 월림마을에는 그가 살았던 집터가 남아 있다. 또 농민군들이 쉬어가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면서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동학농민군들이 주도하여 만든 일종의 지방자치기구였던 집강소로도 썼다고 전해지는 터가 월림마을에 남아 있다. 또한 일본군들과 관군들을 피해 자울재를 넘어온 농민군들이 집결하여 그 아래에서 숨을 고르며 이후를 도모했다는 어산리 들판의 커다란 푸조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용산의 원혼들

자울재는 장흥읍에서 남쪽 방향으로 나 있는 고갯길로, 오래 전부터 장흥읍과 용산면을 오가는 통로였다.

(왼편) 농민군들이 장흥읍 석대들과 남면을 오가는 통로가 되었던 자울재 옛길. (오른편) 부용사로 숨어들었던 농민군들이 토벌군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옛 부용사의 요사체 자리

석대들 전투 이후 농민군들은 자울재를 넘어 일부는 천관산으로 또 다른 일부는 용산면 운주마을 뒤로 높고 넓게 자리하고 있는 부용산으로 숨어들었다. 부용사와 산골짜기 곳곳에 숨는 것으로 토벌군의 무자비한 살상을 피해 보려고 하였으나 많은 농민군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이후의 재봉기를 철저히 차단하려 했던 토벌군의 잔인무도함은 부용산의 겨울을 피로 물들인 후에도 계속되어 이듬해 여름 무렵까지 이어졌다. 토벌군들은 부용사와 부용산 주변 마을의 집들 수십 호에 마구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여 농민군들을 색출했다. 부용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때 원통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원혼을 위무하는 동학위령제가 매년 9월에 치러지고 있다.



박팽년의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면서 결집의 상징물로 삼았다고 전해지는 당건바위

뒤늦게 되찾은 박팽년 후손의 지위

박팽년^{1417~1456}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 역모 죄로 죽음에 이른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역적 집안이 되어버린 박팽년 일가는 이후에 큰 고초를 겪었다. 가문이 멀하게 된 위태로운 상황 중에 박팽년의 막내아들인 박분이 유모에 의해 강진 칠량면 ‘옷밥골’이라는 산골로 도피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뒤로는 장흥 대덕 분토로, 거기서 다시 용산 고실로 옮겨 다니며 순천박씨라는 본관을 밝히지 못하고 고실박씨로 박팽년의 자손임을 숨긴 채 500여 년을 살아왔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본관을 되찾고 공식적인 박팽년의 후손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겪은 아픔은 너무도 컸다. 1862년, 동학의 전신인 무극도에 입도한 어른을 비롯하여 집안의 다섯 어른이 임술농민봉기에 가담해 목숨을 잃게 되고, 동학농민혁명 때는 많은 집안 남성들이 싸움터에 나가 모두 11명이 죽음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시신을 찾으려고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섰던 시어머니, 며느리, 손주며느리마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또 이 싸움터에서 겨우 살아남아 돌아온 두 남자어른은 부상과 고문의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집안사람 다수가 직접 혁명에 가담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털어 농민군들을 지원하면서 새 세상이 열리기를 염원했으나 몰살에 가까운 처참하고 원통한 죽음으로 또 한 번 비운의 가족사를 겪었다.

이들은 당시 혁명이 끝나면 살아남아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하며 자신들이 살던 고실마을의 바위 하나를 그 징표로 삼기도 했는데, ‘당건바위’라 불려 온 이 바위는 용산면 계산마을(옛 고실마을) 초입을 지나쳐 본 마을로 들어가는 길가 왼쪽에 지금도 덩그마니 놓여 있다.

당시 농민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서로 혈연·지연·학연들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피를 나누는 같은 집안사람들끼리의 연대활동이 많았다.

대대로 장흥에 터전을 잡고 살아왔던 김해김씨 공간공파는 동학농민혁명에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농민군에 참여했다.

장흥에서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재계의 아버지 김규현과 회진 덕도의 그 일가족들이 거의 모두 동학이나 농민군에 참여했다.

동학 당시 한 집안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한 인천이씨를 들 수 있는데, 용산접주 이방언, 대흥접주 이인환, 용반접주 이사경 등이 그러하다.

용산면 고실마을에 터전을 박고 살았던 박팽년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부 산 면

장흥읍 북쪽과 유치면 사이에 있는 부산면^{옛 용계면}은 갑오년 당시 장흥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용반접의 근거지이다. 이곳 농민군들은 용반리에서 대대로 살아 왔던 이사경 대접주를 중심으로 전봉준의 1차 기포에 참여하였고,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시기에는 용반리 근처 자라번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활발한 폐정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용반접주 이사경

용반마을은 인천이씨의 집성촌으로, 기와집이 많아서 ‘지외물’이라고도 불렸다. 갑오년 당시 2백여 호가 넘는 큰 마을이었다. 이사경 접주의 아버지 이호인 접주는 동학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 용반접을 장흥의 주요한 세력으로 성장시켰다. 석대들 전투 이후 이사경은 용반리 맞은편에 있는 기역산 자락으로 피신했

다가 관군에게 체포되어 벽사역에서 처형되었다. 이사경의 묘소도 자신이 잡힌 기역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부산면에서는 용반리를 비롯하여 심천리·효자리·금자리·내동리·지동리 등 6개 마을에서 모두 28명이 전사했다. 용반리에서는 당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매년 1월 마을 사당인 채서당에서 합동 제례를 지내왔는데, 모셔진 위패가 모두 열다섯 분이다.

이들은 모두 석대들 전투가 끝난 1895년 1월 관군 측에 의해 처형당했다. 관군 측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관군들이 몰려와서는 2백여 호가 넘는 마을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고,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던 가장 부자집이었던 이회근의 집터는 명당이라 해서 그곳에 관군 측 사람이 자신의 조상의 묘를 써버렸다. 농민군 이회근은 당시 마을 뒷산으로 가는 절골로 도피하는 도중에 관군이 쏜 총알을 맞고 말았다.

유앵동 전투

부산면의 유앵동은 동학혁명 당시 유치에서 빈재를 통해 장흥읍으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지금의 유량리 일대를 말한다. 유치 조양촌 전투에 이어 장흥동학군의 2차 대일본군 전투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전투상황이 일본군 전투상보와 일본군 참전일기 등에 전투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2월 13일 유앵동 전투 후에 작성된 일본군의 보고서에는 “장흥북방 20리 지점에서 싸워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일본군 병사의 참전일기에서도 300여명의 농민군과 접전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격전이 벌어지고 전투규모가 컸던 것이다.

자라번지 집강소

전주화약 이후 장흥에서도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개혁을 진행했다. 장흥의 대표적인 집강소가 바로 자라번지 집강소이다. 자라번지 집강소는 호남서남부를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조직인 강진병영성의 산성별장을 체포하여 처벌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을 펼쳐 나갔다.

유치면

유치면은 산봉우리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산중이다. 북으로는 영암 금정에서 넘어오는 덩재와 장평면으로 통하는 피재가, 남으로는 부산면과 장흥읍으로 넘어가는 빈재가 자리 잡고 있다. 1894년 12월 유치면의 농민군들은 나주에서 덩재를 넘어 침략해오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조양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깃발을 들고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인암 마을에서는 총기와 탄약을 제조했고, 절터골에서는 수백 명의 농민군이 모여 훈련을 하고 있었다.

12월 12일 이른 아침, 유치면 조양촌(지금의 원등리, 조양리 조양마을, 신흥리 일대)에서 조일연합군과 농민군의 첫 장흥전투가 벌어졌다. 조양촌 전투에서 일본군에 밀려 퇴각한 농민군들이 산에 숨어 있다가 문씨 종갓집에서 아침을 먹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했고, 이에 일본군들을 허둥지둥 몸을 피했다. 때문에 일본군들은 이내 다시 그곳으로 와, 자신들이 공격당했던 그 집을 불태워버렸다.

한편 한국전쟁 때 ‘빨치산’과 ‘동학농민군’을 한 줄로 볼 수밖에 없었던 유치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흠이 잡힐 것 같은 무엇이라도 있으면 서둘러 불을 태우거나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더구나 산사람들을 진압하면서 군인과 경찰들은 유치의 거의 모든 마을의 민가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유치에 남아 있는 것은 잿더미뿐이었다.



농민군과 일본군이 첫 장흥 전투를 벌였던 조양과 신흥마을

장 평 면

웅치접을 이끌었던 구교철 대접주. 석대들 전투 후 그는 홀연히 사라졌다. 이방언·이사경·이인환 대접주들과는 달리 이렇다 할 기록이나 구전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여기 한 후손의 증언만이 남아 있다.

“장평면 와리^{구씨} 집성촌인 기동마을 구가만 산다고 개들만 산다고 와리라고 했다. 그 당시 웅치접주 구교철 증조부가 45세 정도. 8촌 일가가 장평면에서 다 살다 팔세가 심해서 마을을 떠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누이동생 두 분, 고모들 두 분, 이고지고 거지같이 처가로 피난 갔다. 할아버지 처가인 화가 오지호씨 집안, 화순 동북으로. 생면부지. 나도 동북에서 태어났다. 청룡에 땅이 이천 평 있어, 몇 년 전 재팔이 아저씨가 동북에 있는 묘소를 청룡리 선산으로 이장해서, 동학을 새긴 돌비석도 설치했다. 구교철 증조부의 시신은 못 찾아 증조모를 모셔서 함께 이름을 새겼다. 아버지는 다른 말은 없고 다만 동학 하다 우리 집안은 망했어야, 이 말만 하셨다. 조부님은 서울 구파발에서 말 관리 일을 했다고 들었다. 조부님은 반란군 아들이라고 일제강점기 지서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해 39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

웅치접주 구교철

장평면 기동마을에서 구교철 대접주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이 발견되었다. 무덤에는 ‘東學鬪士 長興府 熊峙接主 綾城具公 教轍(동학투사 장흥부 웅치접주 능성구공 교철)’이라 새겨져 있다. 물론 육신이 없는 가묘이다. 부인은 영광김씨로 새겨져 있고, 그 옆의 아들 천우의 묘에는 부인 동북오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석대들 전투 패전 후 아버지의 부재를 뒤로 하고 아들은 가솔들을 이끌고 처가인 화순 동북으로 피신했던 것이다.

구교철이 접주로 있었던 웅치는 1894년 당시에는 장흥부 소속이었다. 당시 웅치 사람들은 웅치면 유산리 내 동마을 입구 ‘충의각’에 모여 폐정개혁을 실행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 충의각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운 김훈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해 놓은 비각이다. 김훈은 임진왜란 때 경상우병사 최경회 장군과 창의하여 싸우다 경남 진주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부인 초계변씨는 1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달려갔으나 유해를 찾을 길이 없어 화살통과 옷가지를 가지고 돌아와 초혼장^{招魂葬}을 치렀다.

웅치접의 두령이었던 김보열이 영광김씨 효열비각이었던 충의각을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하는 집강소로 제공, 이곳에서 웅치·회천·장동 등지의 동학농민혁명에 따른 업무를 총괄했다. 하지만 혁명에 주로 참여했던 영광김씨들이 죽거나 빨빨이 흩어지면서 광산김씨가 사들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웅치접의 농민군들은 그해 12월 장흥부 장녕성을 공격하기 위해 곰재산 밑 “미륵반대기”(웅치면 중산리 서촌 마을인데, 돌로 된 미륵 부처상이 있고 넓은 들이 있던 마을이다)에 모여 곰재를 넘어 장흥부로 진격하였다. 지금은 그 당시 농민군들이 지나던 길목 위로 제암산 공설묘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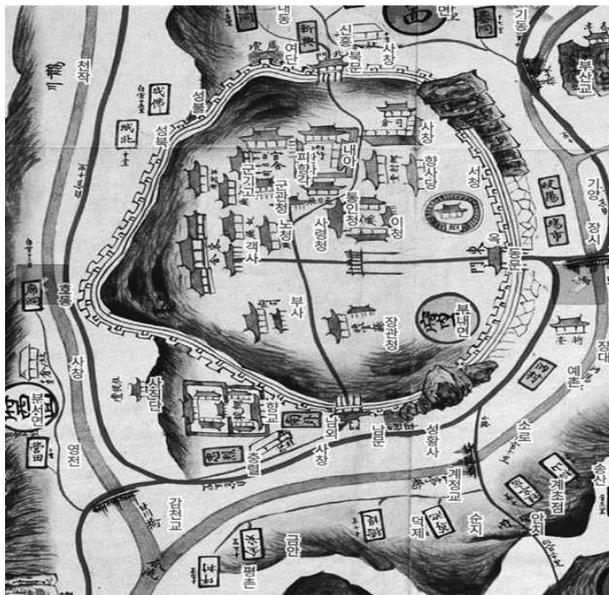


(왼편) 웅치접의 집강소로 사용되었던 웅치면 유산리에 있는 충의각과 (오른편) 구교철 대접주의 무덤

장 홍 읍

장흥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1월 장흥동학농민군이 기포하고, 11월 26일 대흥접의 회령진성 점령으로부터 시작되어 12월 17일 월정리 전투로 마무리된다. 석대들 전투는 이러한 일련의 장흥지역 전투과정에서 일본군과 관군 연합부대와 치러진 12월 13일~15일 석대들을 비롯한 장흥읍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석대들 전투가 벌어진 시기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모두 관군에 체포된 후였다. 전투에 참여한 농민군 규모는 3만 명에 달하였으며, 사상자가 모두 2천여 명에 이를 정도다.

장흥읍의 석대들은 1894년 12월 15일, 장흥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와 마지막 격전이 벌어진 곳이다. 2009년 5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았다. 석대들 사적지에는 농민군이 깃발을 꽂았다고 전하는 석대와 천도교당, 이 전투에서 전사한 관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사당인 영회당^{永懷堂}이 포함된다.



영회당



(맨위) 석대들 전경. (아래 왼편) 장녕성도. (아래 오른편) 영회당과 벽사찰방 김일원의 불망비. *영회당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을 방어하다가 죽은 장흥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장졸 95인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당시 호남도 순무우선봉장이던 이두황이 수성하다가 순절한 부사와 장졸에 대한 공을 찬양하고 포상을 내렸으며, 전라어사 이승욱이 1898년 단을 쌓고 1899년 광서20년 갑오동란장졸순절비^{光緒二十年甲午東亂將卒殉節碑}를 세웠다. 그 후손들이 계를 만들어 당을 짓자 순무사 이도재가 영회^{永懷}라는 당호를 내렸다. 영회당 건립에 도움을 준 김택규 군수와 벽사찰방 김일원의 불망비^{不忘碑}도 있다.

장녕성

장흥부가 있던 장녕성은 1894년 12월 5일, 이방언이 이끄는 농민군과 박헌양 장흥부사의 수성군 사이의 격전

이 벌어진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장소이다. 장녕성은 고려 말부터 빈번한 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장흥부의 치소가 고읍(관산)에서 장흥으로 이전하면서 1392년에 축성되었으며, 현재 장흥법원과 경찰서 일대가 중심부이다. 주된 출입문이었던 동문은 현재의 중앙교회 일대이며, 남문은 장흥문화예술회관 부근이다. 장녕성 전투는 1만여 명에 가까운 장흥농민군의 포위공격으로 장흥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수성군 96명이 전사하고, 관가의 건물과 민가 수백 채가 불타는 치열한 전투였다.



벽사역 터

벽사역은 장흥읍 원도리의 구 장흥교도소 근처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공공 교통 통신기관이었던 역도를 관리하던 기관이다. 장흥 벽사역의 관할구역은 장흥-강진-해남-진도로 이어지는 길이었으며, 6품 찰방이 1천 5백여 명의 관리와 역졸, 역노비 등을 거느린 일종의 군사시설이었다.

고부봉기 당시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을 때, 이용태는 장흥 벽사역의 역졸 8백여 명을 이끌고 가서는 고부의 농민들을 심하게 탄압했다. 이곳은 농민군이 점령한 곳이지만, 농민군들의 주요 처형장소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이름이 확인된 장흥지역의 동학군 전사자 345명 중 벽사역에서 처형된 농민군은 용반점의 이사경 접주 등 296명이다.



장대 터

지금의 장흥서초등학교는 조선 시대에는 장대, 즉 장흥도호부 장졸들이 무술을 연마하는 장소였고 무과 시험을 시행하였던 곳이다. 한편, 장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남도장군으로 일컬어진 동학 대접주 이방언과 그의 아들 성호가 이곳 장대에서 1895년 1월 20일 처형당한 곳이기도 하다. 1908년, 의병장 심남일 부대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 보병 1개 소대, 속칭 '우찌야마^{内山} 토벌대'가 주둔하기도 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본군이 교정에 진을 치기도 했고, 해방까지는 일본인 회립소학교^{日本人會立小學校}로 사용되었다. 해방이 되어서는 미군이 진을 쳤는가 하면,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인민군 정규군이 주둔하며 인민군 지원군을 모집했으며, 전황이 바뀌면서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군경합경토벌대가 이곳에 진을 쳤다. 풍랑의 세월, 그 긴 역사를 기억한다는 듯, 지금도 땀나뭇가 곳곳하게 서 있다.



(위) 옛 장대 터와 (아래)오늘날의 장흥서초등학교

자울재

자울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읍에서 용산 등 장흥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였으며, 석대 들녘의 남단인 덕제리에서 용산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1894년 12월14~15일 이틀에 걸친 석대들 전투 당시 용산에 퇴각하여 재집결한 농민군이 일본군과의 최후 석대들 전투를 감행하기 위해 석대들로 진출한 통로였으며, 퇴각과정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 등 석대들 전투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이다.

총렬리 구묘역과 금산리 신묘역

현재 장흥읍 총렬리의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진 자리는 원래 총렬리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이다. 지역의 동학연구자와 유족회 등에서는 이곳을 당시 동학농민군의 집단매장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석대전투와 색출과정에서 많은 농민군이 전사하거나 처형되었고 이들에 대한 처형방식이 유지기를 씌워 태워 죽이는 화형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신 훼손으로 연고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 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게다가 장흥 전투에는 다수의 타 지역 농민군이 합세하였으므로 이들 전사자와 사망자들이 무연고로 방치되었을 것이므로 이들을 집단 매장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리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벌과정을 주도한 우선봉 이두황이 장흥을 떠나면서 장흥의 각지에 방치되어 있는 농민군의 시신을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석대들 전투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야산 언덕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1989년 장흥군이 이곳에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서 1,231기의 무연고 묘지를 장흥읍 금산리의 공설묘지 신묘역에 이장하였다. 이때 처음 무연고 묘지로 파악된 봉분이 870여기였으나, 이장 과정에서 361기의 시신이 추가로 발굴되어 모두 1,231기의 묘역이 조성되었다. 이 묘지의 숫자는 당시 주민들이 ‘시신이 서로 겹쳐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을 되새겨 볼 때, 얼마나 많은 농민군들이 석대들 전투에서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암산 장흥공설공원묘지에 있는 동학농민군들의 무덤

관 산 면

관산은 장흥을 대표할 만큼 신령스러운 산 천관산의 이름을 딴 지명을 지을 정도로 천관산과 깊은 인연이 있다. 천관산에는 남방불교 전래설을 뒷받침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고려시대 때 공예태후의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렇듯 장흥에서 가장 많은 설화와 역사가 깃들여 있는 천관산은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옥산 전투와 무명동학군 묘지

옥산은 관산읍 서편의 옥당3구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산으로 1894년 12월 16일 용산에서 솔치재를 넘어온 일본군과 이에 맞선 농민군이 죽천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 관산에 살고 있던 백성들 대부분이 바로 옆에 있는 옥산으로 피신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온 산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난리통이었다고 한다. 지금 관산 남송마을 산등성이에는 ‘무명동학군 묘지’라는 팻말 뒤에 둥그런 봉분들이 잡풀에 쌓여 있다.

김학삼 접주와 그 부인

김해김씨 공간공파 김학삼 접주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42년 전인 1852년, 지금의 용산면 월림마을에서 장흥 일대에서 널리 알려질 만큼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던 매헌공^{梅軒公}의 손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영광김씨인 김어단과 혼인했다. 장흥동학의 대표적인 장군이 된 이방언과도 친척(내당숙질)이었다.

월정전투를 마지막으로 체포된 김학삼은 벽사역으로 끌려갔다. 그때 김학삼은 일본군들의 고문과 취조에 일체

응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잘라버렸다고 한다. 12월 28일, 김학삼은 여느 농민군들과 마찬가지로 벗 짚으로 만든 도롱이 같은 모양의 유지기를 씌워서 기름을 부은 다음 불을 붙여 처형당했다. 당시 나이 43살이었다.

한편 부인은 남편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이내 남편의 죽음 소식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듣자 하니 처형한 시신을 아무데나 버려버린다고 하니, 시신이라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길로 벽사역으로 달려갔다. 그것 역시 죽음을 무릅쓴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들은 반란군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부인들 역시 죽여 버렸으니 말이다. 부인이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처형당한 농민군들은 모두 얼굴이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치 처참했다. 그런데 타다 남은 시신의 다리 바짓단 밑에 자신이 만들어준 땃님이 묶여 있었다. 그렇게 간신히 찾은 남편의 시신을 자신의 치마단으로 고이 감싸서 그곳 벽사역에서 관산 성산리까지 모셔와 안장했다. 지금도 관산읍에서 성산마을로 입구에는 그렇게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김학삼 접주의 묘가 있다.

대 덕 읍

대흥접주 이인환과 대덕읍 연지리

이인환의 대흥접이 있었던 연지리는 온통 농민군들의 기지 같은 곳이었다. 동쪽으로는 현재의 고흥군인 흥양현과 지금은 보성이지만 예전에는 장흥부에 속해 있었던 옹치에 접해 있었으며, 북으로는 관산과 천관산을 반반씩 나뉘어 차지하고 있었고, 남녘 바다 쪽으로는 덕도라는 천도교도들의 대대적인 집단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쪽으로는 강진의 칠량과 대구 쪽의 천도교도들이 마치 서울처럼 빈번히 드나들던 곳이었다.

이인환은 나주 남평면에서 태어났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대덕 연지리에 근거지를 두고 대접주로 활약했다. 농민군의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이인환은 특히 무기와 화약을 다루고 군사지식에도 능통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이인환은 회령진성 전투에서 장흥동학의 첫 승리를 일궈냈고, 여기서 노획한 조총과 대포, 화약 등속의 무기를 바탕으로 이후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할 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인환은 월정전투에서 패한 뒤, 천관산으로 피해 들어가 연지리 쪽 윗편 한 바위굴 속에 숨어 지내다가 이듬해 1월 10일에 관군에게 체포되었다. 이 바위굴이 지금도 대덕읍 연지리 마을 뒤 천관산 자락에 남아 있다. 체포되어 벽사역으로, 다시 일본군 대대본부의 본영이자 감영이었던 나주로 이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고 난 뒤 1895년 3월 3일 문공진, 이득춘, 최동린 등 농민군 주모자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당시 나이 45살이었다. 유해는 그곳에서 처형된 680명의 시신들과 함께 나주 남문으로부터 400미터 쯤 떨어진 곳에 버려졌다.



첨경, 1895년 2월 14일 호남초토사가 군무아문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초토사는 동학농민군 중 범법자로 지목된 8인을 군민들이 보는 가운데 총살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때 장흥의 최신동·문공진·이득춘·이인환이 처형되었다.

이인환의 부인 유소사 역시 1월 2일 체포되어 벽사역 감옥에 수감되어 남편의 행방을 대라는 혹독한 취조를 받았다. 이때 부인은 그 지독한 고문을 이겨내며 옥산전투에서 사망했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벽사찰방은 1월 4일 그녀를 석방했다.

청년장수 최동린과 대흥읍 연지리

대흥읍 연지리 마을 사람들 중 낭주최씨 일족들도 농민군에 적극 참여했다. 그 중 최동린은 불과 1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동학농민군을 지휘했던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연지리에서 태어나 13살에 동학에 들어갔고, 석대들 전투에서 이인환, 이소사와 함께 말을 타고 농민군을 지휘한 사람으로 여러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후 옥산 전투에서 말을 타고 농민군들을 지휘하던 중 다리에 일본군들이 쏜 총을 맞고 말았다. 당시 침략군으로 참여했던 일본군 쿠스노키 마사마루란 사람이 쓴 일기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이때 농민군 진영에 최동^동이라는 자가 말 위에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즉각 저격하여 다리 부분을 관통당하여 낙마했다. 옆에 있던 농민군이 최동을 도와 도주했다. 추격하고자 했으나 해가 지고 특히 뜻밖에 큰 눈이 내려 행방을 놓쳐버려서 포획할 수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최동이란 자는 나이가 17세로 지혜로운 자여서 대군 동학농민군의 지휘관이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최동린 장수는 근처 학송이란 마을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나 사흘 뒤 어떤 이의 밀고로 일본군들에 체포되었다. 장흥에서 강진을 거쳐 해남까지 갔다가, 7일 뒤 최동린은 나주에 있는 일본군 대대본부로 이송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일본군의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다. 온 몸이 얼어붙는 한겨울인데다가 지내는 감옥은 돼지우리과 같았다. 총상을 당한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장수는 그 부분의 다리를 잘라내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나주로 이송된 지 보름 후인 양력 2월 4일,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최동린은 집안의 족보에서마저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집안사람들이 청년 장수 최동린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려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대덕읍 연지리에는 낭주최씨 후손들이 살고 있다. 후손 중 한 분이 남몰래 오랫동안 당시 농민군이 마을에서 만들어 사용했던 포탄을 보관해오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그것을 기증했다.



(왼편) 대덕읍 연지리에 있는 방죽. 이 마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인환 장군이 접주를 맡았던 대흥읍이 있었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농민군에 참여했다. 이 방죽 근처에 당시 농민군들이 무기를 제조했던 군사시설이 있었다.

(가운데) 연지마을에 살고 있는 최동린 장수의 후손이 오랫동안 보관해오다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기증한 포탄

(오른편) 연지리 최동린 생가

회진면

천관산 남쪽의 회진면. 고려시대 말, 이곳 회진에서는 일본을 정복하려는 몽고군들이 고려와 연합군을 이뤄, 천관산에서 베어낸 나무로 회진 선창에서 배를 만들어 일본을 공격했다.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명량해전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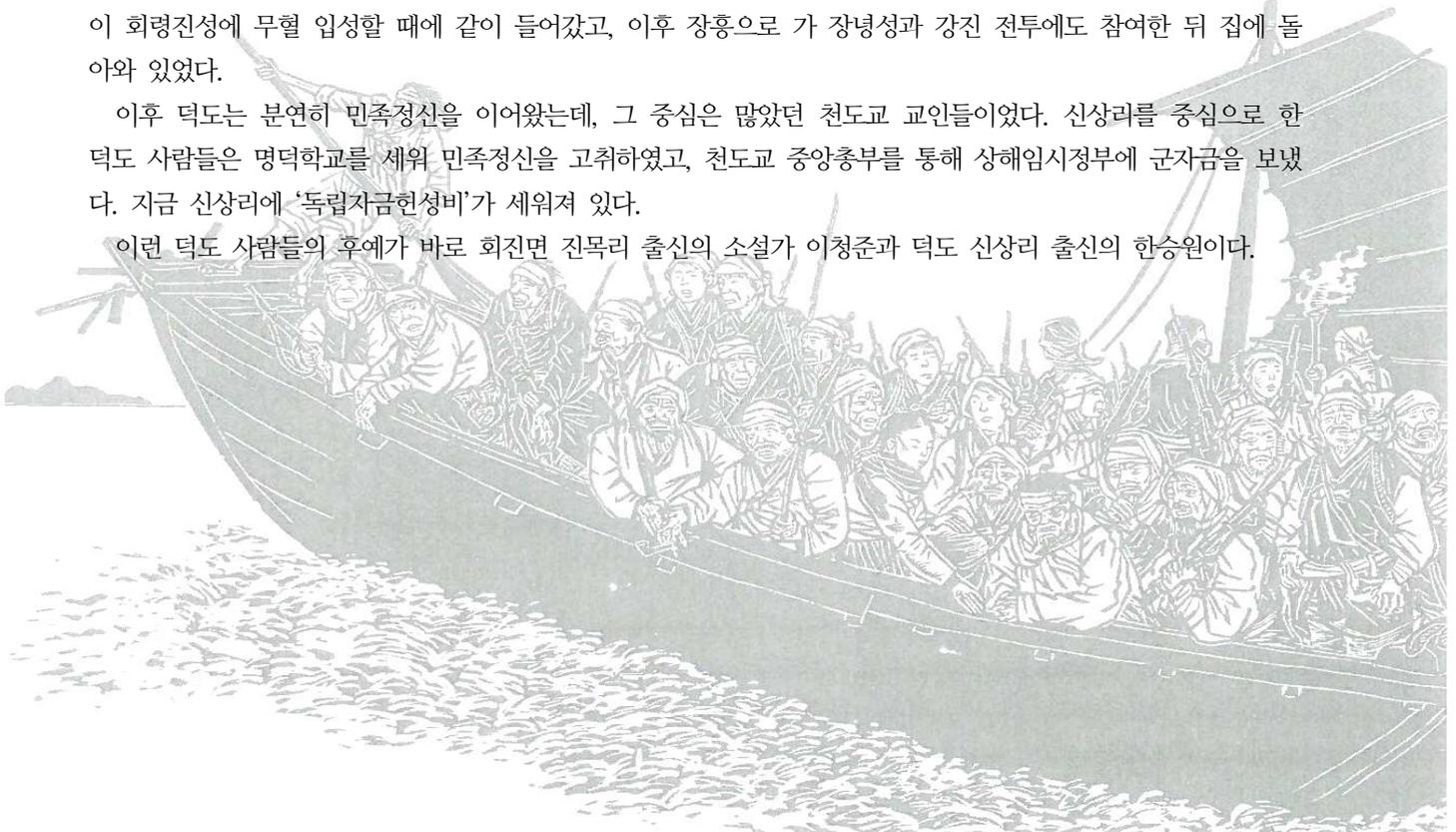
갑오년 당시 거의 모든 섬사람들이 동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었다. 대덕에서 이인환 접주를 중심으로 한 대흥기포가 일어났고, 장흥 농민군의 최초의 승리인 회령진성 함락을 이루기도 했다. 바로 이곳에 장흥의 최후 전투였던 월정 전투를 마지막으로 패퇴한 농민군들은 용산면 부용산 방면과 강진의 대구와 칠량, 회진 등지로 몸을 피해야 했다. 그 농민군 500여 명이 회진의 섬 덕도로 피신해 왔다. 다리가 놓인 지금과 달리 당시 덕도는 섬이었다.

그러나 덕도는 불과 여섯 개 마을밖에 없는 작은 섬이었고, 당시는 또 겨울이었으니 가뜩이나 귀한 먹을 식량이 귀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그때 일본군과 관군들은 동학군들이 그렇게 섬에 들어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훤히 알고 있었다. 당시 회령진성에는 이두행이 지휘하는 관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또 덕도 바다 쪽에서는 일본군 남소사령^{楠小四郎}이 이끄는 두 척의 군함이 덕도를 중심으로 인근 섬들을 경계하며 농민군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 덕도 주민들이 농민군에게 온갖 식량을 가져다주었다. 회진 쪽에서 배를 운행했던 선장은 관군이 자기를 찾으면, 일부러 어디 면전에 와 있다고 하며 한참이나 시간을 보낸 뒤에 나타나곤 했다. 또 한 당시 나이 불과 16살에 불과했던 장산리 소년 뱃사공 윤성도는 회령진성 쪽 관군과 섬 쪽의 일본군 순시선의 눈을 피해 살날을 파고드는 추위와 짙은 어둠을 틈타 몇 명씩 은신중인 동학군들을 노력도 쪽 바닷가 죽섬 포구로 데려가 배를 태워서는 인근 고금, 약산, 금일, 거금 등지의 섬으로 피신시켰다. 당시 그보다 더 나이가 적었던 집안의 동생 윤희도와 당시 나이 54살이었던 홍우범이 이 일을 같이 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동학군들이 회령진성에 무혈 입성할 때에 같이 들어갔고, 이후 장흥으로 가 장녕성과 강진 전투에도 참여한 뒤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후 덕도는 분연히 민족정신을 이어왔는데, 그 중심은 많았던 천도교 교인들이었다. 신상리를 중심으로 한 덕도 사람들은 명덕학교를 세워 민족정신을 고취하였고, 천도교 중앙총부를 통해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냈다. 지금 신상리에 ‘독립자금헌성비’가 세워져 있다.

이런 덕도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회진면 진목리 출신의 소설가 이정준과 덕도 신상리 출신의 한승원이다.



4 엇갈린 인연, 이방언과 김한섭

장태장군·남도장군, 이방언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인 이방언^{1838~1895}은 용산면 목촌리에서 이중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인천이고, 자는 지방 혹은 방언인데 민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의 집안은 양반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 대제학을 지낸 이문화의 19대손이고, 이방언의 아버지는 장흥향교인 용산리 향약 청원계의 도장을 맡았다고 하며 그 가세가 꽤 부유했다고 한다.

촌로들의 구전에 의하면, 그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해 장흥 지방에 가뭄이 들어 농사는 당연히 흉년이 들었다. 농민들은 생계를 이어 나갈 형편도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아에서는 전결세^{田結稅}를 바치라는 독촉을 계속했다. 그러자 이방언은 관아의 조처에 참지 못하고 장흥부사를 찾아가 감세를 진정했으나, 부사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방언은 다시 전주로 가서 전라감사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진정하여 감사를 감동시켜 면의 결세를 감면받았다고 한다.

의협심이 강한 그에게 동학은 상당한 매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학이 전라도에 포교되는 시기는 1880년대에 해월 최시형^{1827~1898}에 의하여 지금의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이 널리 알려지고 난 이후, 주로 해월의 지도를 받은 전라도 출신의 동학 교인들의 동학교문의 증경지도자로서 성장하여 독자적인 포교에 나섰던 1890년대였다. 이때 장흥지방에도 동학에 입교하는 교인이 나오게 된다.



1890년, 이방언이 최익현에게 보낸 편지.

"(...)저 정석은 타고난 자질이 비루하고 식견이 어두운데다, 사는 지역도 궁벽하고 어려운 시운을 만나 어려서부터 배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또 부모님은 연로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실의에 빠져 혼자 곤경에 처해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중죄를 지은 모진 목숨은 아버님을 잃고 오래 사모한 지 이미 10년이며 제 나이도 벌써 반백이 넘었습니다. 말년에 아버님을 잃음을 후회하고 늙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으로 부지런히 애쓰며 죽은 뒤에 그만두겠다는 처지이나 저버린 은혜는 따를 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중암 선생께서 내치지 않고 제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어 사도^{斯道}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비로소 확신하였습니다.(...)" _1890년 8월 15일 소생 이정석 재배

이방언은 부유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유명한 유학자인 고산 임헌회의 제자로 한말 유생 오남 김한섭과 동문수학한 사이였다. 이러한 그가 동학에 입교한 사실은 사회경제적 처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동학의 어떤 면이 이방언을 입교하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가지로 짐작할 수 있다.

첫째, 당시 주자학 지상주의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적 안목을 지녔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그가 일찍이 봉건관료의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전주감영까지 찾아가 남상면 일대에 대한 감면조치를 얻어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점으로 보아 농민들의 처지를 상당히 이해하는 인물로서 남상면 일대에서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는 주자학의 폐해를 지적하고 천도에 합치하는 수행을 통해 새 세상을 이룩하자는 동학의 가르침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주자학적 배경을 가진 수운의 제자들이 우리 도는 결코 해민패속(害民敗俗)하는 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방언 역시 동학이 지닌 진보적인 측면을 일정하게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당시 농민들의 처지와 입장을 크게 반영하는 동학의 교리에 대하여 공감함으로써 입도하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지방의 유력자가 동학에 참여하게 되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이방언은 장흥 어산점의 접주로서 동학농민군의 지도자가 되었다.

수성군이 되어 동문과 맞선 김한섭

김한섭^{1838~1894}은 호가 오남이요, 자는 치용이며, 본관은 영광이다. 선대는 원래 경주김씨였으나 고려 성종조에 영광군으로 봉해진 김심언에서부터 영광김씨로 본관이 바뀌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조광조의 문인이었던 김광원은 기묘사화 대 조광조를 구하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전남 해남에 유배되었고, 이후 장흥의 흥룡동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김한섭은 25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고, 세 형이 모두 요절한 데다 차남까지 요절하는 등의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3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이항로에게 가서 현실의 명리를 쫓아 수십 년 간 경향의 과장에 출입하였던 잘못을 고백하고 그의 문하에서 수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가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업한 지 일 년이 채 못되어 이항로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상을 마친 뒤 이항로의 문집, 초록 등을 가지고 귀향하였다. 이후 그는 흥직필의 문인인 임헌회를 찾아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8년 동안 그를 사사하였고, 40세를 전후해서는 기정진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수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에 그는 이항로 문하의 김평묵·유중교·최익현과 임헌회 문하의 송병선·전우 등과 도의의 교분을 맺으며, 또 기정진 문하의 기우만·이희석 등 많은 석학들과 학문적 교류를 가졌다.

한편 그는 아버지를 여인 뒤 고향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가 40세 때 타향인 금릉의 대명동(현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대월)으로 이주하여 서재와 정사를 짓고 제자의 훈육에 정력을 기울였으며, 50세 때 다시 가족을 수양리(강진군 도암면)로 옮기고 그 자신은 대명동에 남아 강학을 계속하였다. 3년 뒤 그는 가족이 있는 수양리 봉양동에 봉양정사를 짓고 말년의 서식처로 삼아 수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병약과 가세의 빈곤 속에서 강학의 일과를 보냈다.

57세 되던 해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그는 강진현 도총장의 책임을 지고 동학농민군의 강진 입성을 저지하려다가 총탄에 맞아 그 해 12월 7일 세상을 떠났다.

5 한 일본군 병사의 종군일지

- *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학살’ 전담부대의 하나였던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제2대 제1분대 크스노키 비요키치 상등병의 ‘종군일지’이다.
공식 제목은 『메이지 27(1894년) 일청교전 종군일지』인데, 크스노키 마사하루가 필사했고, 박맹수 교수가 번역했다.
- * 아래 표는 ‘종군일지’ 중 장흥 관련한 부분만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일 자 별	내 용
1894년	7.23 도쿠시마현에서 후비역 보병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제2분대 병사로 소집됨.
	11월 6일 인천에 상륙, 동학군 토벌시작 : 용산-경기도-충청도-경상도
	12월 26일 전라도 남원-곡성-옥과(1.2)-능주(1.4~5)
1895년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흥농민군 7~80명과 교전, 40~50호의 농가를 불태우고 농민군 10명을 죽임. •11시경 농민군 300여명과 교전. •장흥읍에서 2천여 명의 농민군과 교전, 농민군 수십 명 전사 농민군 자율재 방향 퇴각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녕성 안의 농민군 습격함, 착검 돌진(돌살)과 일제사격, 방화. 농민군 수십명 전사, 부상자 부지기수.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만의 농민군과 교전, 장흥에서 8명의 농민을 생포해 3명을 타살(때려죽임)했고, 이어서 도망치던 농민을 추격해서 1중대가 48명을 타살하고 다친 사람 10명을 생포해 고문한 다음 소살(불태워 죽임).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흥 일대 통행자를 모조리 붙잡아 고문했고, 저항자는 옷에 불을 붙여 달아나면 총을 쏘아 죽임. •죽청동 인근에선 12살 아이를 찢어 동학군을 지목하게 한 다음 16명을 고문하고 8명을 총살해 시신은 불태움. •죽천 장터에서도 18명을 죽임. •말위에서 지휘하는 최동을 저격하여 다리관통, 낙마하였으나 도주함. •대흥면 쪽으로 가다 11명의 농민을 붙잡아 죽였고, 3명은 옷에 불을 붙여 바다 쪽에 빠져죽음.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8시30분 월림동에 있는 대접사 이법헌^{李法軒}, 이광연^{李光演}의 집을 수색, 비밀서류를 찾고 집을 불 지르고 우마 여섯 마리 포획. •대흥방면으로 수색 중 11명을 처형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흥면 산에서 농민군 수십 명을 잡아 죽임. 길옆과 도랑에 버린 시신이 수십 명이었음. •순창읍의 한 주막에서 전봉준을 포획했다는 소식을 들음.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흥에서 농민군 17명을 체포해 죽임. •안양 학송마을에서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도피한 최동이라는 17살 동학 지휘관을 체포. •장흥전투 후 돌아온 농민군을 붙잡아 죽인 숫자가 300명에 달함.
	2월 해남-나주
	12.9 귀국 및 부대해체

1894년

- 01.10 고부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남
- 03.20 무장에서 1차 봉기, 포고문 선포. 장흥 이방언이 인환·강봉수, 전봉준 진영에 합류
- 04.07 황토현 전투
- 04.23 농민군,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초토사 홍계훈의 관군을 이김. 이때 이방언이 고안한 장태를 이용하여 승리함.
- 04.27 농민군, 전주성 점령
- 04.30 조정, 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국에 원병을 요청함
- 05.05 청군, 아산에 상륙함
- 05.06 일본군, 인천에 상륙함
- 05.07 “전주화약” 체결
- 05.09 농민군, 전주성에서 철수. 각지로 돌아와 도회소 설치 시작
- 05.23 전주에서 해산한 동학농민군, 장흥에 들어옴
- 6월 농민군이 전라도 대부분의 고을에 집강소 설치. 장흥 집강소 설치(부산면 금자리 자리번지)
- 06.01 김한섭, “적도에게 경계하는 글”을 지음
- 06.23 청일전쟁 발발
장흥과 강진의 읍내에 도소를 설치함
- 8월 일본군의 경북궁 점령과 친일 내각 성립
- 08.01 장흥부사 박헌양, 향교에서 유림과 함께 농민군의 토벌을 논의함
- 09.10 전봉준의 농민군이 재봉기, 복상을 위해 13일 삼례에 집결함
- 09.18 동학교주 최시형, 봉기 쪽으로 선회함. 남접 농민군과 연합하여 무력 봉기할 것을 선언
- 10.23 충청도 공주, 이인, 효포에서 관군과 농민군이 1차 접전, 농민군이 논산으로 퇴각함
- 11.08 농민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대공세를 펼쳤으나 관군과 일본군에 패함.
- 11.17 공주에서 후퇴한 전봉준 부대와 청주에서 후퇴한 김개남 부대가 강경에서 만나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흩어짐. 전라도 나주·영광·금구·태인·광주·황해도 해주 등지에서 전투를 벌임
- 11.21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응치에 집결함(장흥 응치 구교철 대접주 기포(수천 명))
- 11.25 이인환, 장흥 대흥면에서 봉기하여 응치의 동학농민군과 합세함
- 12.01 장평 사창에 장흥 농민군 집결(금구 김방서 부대 등 나주·남평·농주·보성의 동학농민군)
- 12.02 전봉준,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됨
- 12.03 동학농민군, 평화 송정등·건산 후등·벽사 뒤들·행원 앞들까지 진출. 장흥부 포위

- 12.04 동학농민군, 장흥의 벽사역을 점령함
- 12.05 동학농민군, 장녕성을 함락함. 이때 장흥부사 박헌양 등 96인이 순절함
- 12.07 동학농민군, 강진현을 포위하여 함락함. 이때 김한섭이 순절함.
전봉준, 일본군에 의해 담양부로 압송됨
- 12.10 동학농민군, 전라병영성을 점령함
- 12.12. 관군이 모정에 집결하여 동학농민군을 격파(장흥 전투 1일째)
장흥 농민군, 일본군과 유치면 조양촌 전투
- 12.13 관군과 일본군 선발대가 남문 밖에서 농민군 20명을 죽임(장흥 전투 2일째)
장흥 농민군, 일본군과 부산면 유영동 전투
- 12.14 이인환·이방언의 동학농민군이 다시 집결함(장흥 전투 3일째)
- 12.15 일본군 본대가 장흥에 들어옴. 동학농민군, 석대들 전투에서 관군·일본군에게 패배함(장흥 전투 4일째)
- 12.16 장흥 농민군, 관산을 옥산 전투
- 12.17 장흥 농민군, 대덕읍 월정 전투
- 12.18 보은 북실(중곡) 전투, 일본군과 상주 유격병이 농민군 2,6000여 명을 살육함.
- 12.19 이소사·최동린이 일본군에 체포되어 나주로 압송됨. 1895년 3월에 처형됨
- 12.20 이두항의 관군, 장흥에 들어옴
- 12.24 이방언 대접주, 남면에서 체포되어 서울 압송 후 방면되었다가 1895년 4월 23일 아들 성호와 함께 장대에서 처형됨
- 12.26 고읍 접주 김학삼, 체포되어 처형됨.
- 12.28 이사경 접주, 부산면 기역산에서 체포되어 장흥 벽사역에서 처형됨

1895년

- 1월 대흥접주 이인환, 체포되어 3월에 처형됨
- 03.29 전봉준·손화중·기덕명·최경선·성두한 등 농민군 지도자 교수형
- 04.17 청일강화조약 조인

1992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2004년

- 02.27 장흥동학농민기념사업회 창립
- 03.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7177호)

2009년 최후 전투지 ‘석대들’ 국가사적 제498호 지정

2015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다시 피는 녹두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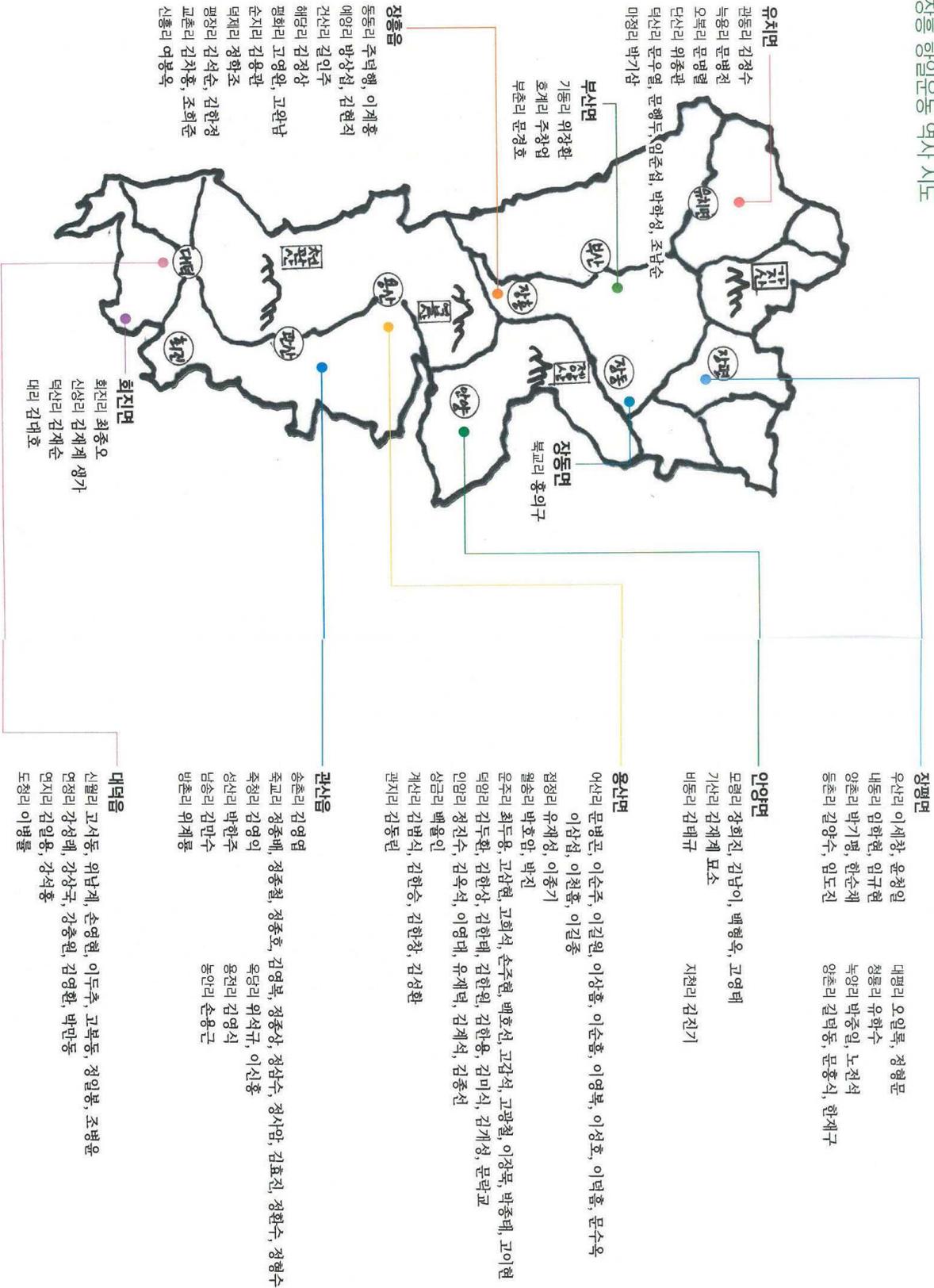
근현대 장흥의 사회운동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거친 뒤, 장흥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의 장흥도호부는 나주부 장흥군¹⁸⁹⁵을 거쳐 전라남도 장흥군¹⁸⁹⁶으로 변모하였으며, 장흥에 속했던 일부 섬¹⁹⁰⁶과 응치면·회천면¹⁹¹⁴이 각각 완도군과 보성군으로 편입되어 군의 경계도 변하였다. 또 1905년 사립 명진학교^{현재 장흥초등학교}가 처음 개교한 이래, 많은 근대적 학교가 곳곳에 생겨났다.

한편, 장흥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자 이를 막고자 1908년 심남일의 의병이 유치면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전과를 올릴 때 참여하였다. 또 국권을 상실한 뒤에는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1운동 이후 김재계를 비롯한 장흥의 천도교인들은 천도교청년회 장흥지회를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벌였고, 1930년대 독립운동비밀결사조직인 ‘전남운동협의회’에 많은 장흥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런 전통은 광복 이후 안중근을 모시는 해동사라는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장흥 항일운동 역사 지도



출처; (사)장흥문화재단, 『1894 식대 “대” 장 흥 항 일 운동 에 이 야 기』, 2020

1 '살아서 설 자리가 없어' 순절한 운암 정두흠

정두흠^{1832~1910}의 자는 응칠, 호는 운암으로 본관은 진주이다. 아버지 정철주와 어머니 영광김씨 사이에서 1932년 10월 28일 장흥 유치면 운월리에서 태어났다. 9세 전부터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침식을 거르며 열중하였고 13세 때에 장흥부사 김기석에게 소학 1질을 하사받았고 그의 권유에 따라 영암의 승지 최상관에게 수업하여 16세 때에는 문리가 트였다. 19세에 완산이씨 이운삼의 딸과 혼인하였다. 20세 때는 능주 은적사, 23살 때에는 영암 도갑사, 25살 때에는 능주 개천사 등지에서 독서를 하였다. 32세 때 완산이씨가 세상을 뜨자 주자 가례에 따라 예를 다했고, 33살 때 청주한씨와 재혼하였다. 35세 때 향시, 38세 때 동당시, 39살 때 회시를 보았고, 40세에 이르자 인근에서 제자들이 수없이 몰려들었다. 48세가 되던 1879년^{고종16} 윤3월에 문과에 급제하여 6월에 거주서를 제수 받은 이래 11월에는 승문원 정자, 1880년 4월에는 성균관 전직, 12월에는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1881년과 1882년에 차례로 부모상을 당해 시묘를 했다. 1887년 56세 때에 사헌부 지평이 되어서는 국가의 기강을 세울 것을 상소하였다.

그는 개혁에 반대하는 양이^{洋夷}를 주장하였고, 「만언소」 등을 올려 정치 도의를 바로잡을 것, 직언을 받아들여 인로를 개방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892년 10월 벼슬을 버리고 유치 운월리로 귀향하여 망화대^{望華臺}를 설단하였다. 그는 동계와 면계를 통해 향촌교화에 주력하였다.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 체결, 1906년의 칙익현의 순국 등 소식을 접하고 비통해 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북망통곡^{北望痛哭}하여 의고선성문^{擬古先聖文}을 지어 목욕재계하면서 “내 무슨 면목으로 하늘의 일월^{日月}을 대하리요. 살아서 설 자리가 없으니 죽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방문을 닫고 식음을 끊었다. 그해 10월 25일 마침내 극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순절하였다. 그의 나이 79세였다. 이듬해 10월, 부친 한씨도 소상을 지낸 뒤 “나라는 망하고 지아비는 죽었는데 어찌 혼자 살겠는가?” 하면서 음독자진하였다.

1912년 7월에 황철원이 행장을 지었고, 12월에 송사 기우만이 묘갈명을 지었다. 1913년 3월에 문인인 오기영이 행록을 지었다. 운암의 저술인 『운암집』 4권 2책이 전한다.

2 '삼갈 것은 늘그막', 위계룡과 채용신



초상화를 보고 스스로 찬하다.

너는 부모님께서 남기신 몸으로
몸가짐은 반듯이,
눈길은 깨끗해야 한다.
날마다 성현의 옛 글을 읽어
잠시라도 잊지 말라.
어리숙한 내 모습을 옮겨
비단 폭에 올리니
옛날에는 그리도 젊더니만
지금은 이리도 늙었구나.
집 벽에다 걸어 두고
수시로 살피고 되돌아보자
삼갈 것은 늘그막의 모습인 것을.

1925년 12월 15일 일오헌 주인
1925년 겨울 종2품 여든 노인 석지가 그리다

이 초상화는 조선말기 초상화가로 유명한 석지 채용신^{1850~1941}이 그린 오헌 위계룡^{1870~1948}의 초상화이다.

위계룡은 면암 최익현, 연재 송병선, 송사 기우만, 일신 정의림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도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용신은 수많은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중에서도 항일운동가, 유학자 등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인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위계룡도 최익현의 제자이면서 의병활동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릴 동기는 충분히 보인다.

위계룡의 초상화는 채용신의 초상화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은 머리에 정자관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었다. 손에는 서책과 함축산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는 산수화병풍, 바닥에는 화문석이 있고 주자대전과 같은 서책을 쌓아놓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세밀한 얼굴의 묘사, 산수병풍의 사실적 표현 등이 다른 어느 초상화보다 뛰어나다.

3 장흥의 항일의병

장흥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엄청난 규모로 휩쓸고 갔기 때문에 일본군에 죽은 이들도 수천 명이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10여 년 후 또다시 항일의병으로 나섰던 것이다. 훨씬 많은 장흥사람들이 항일의병으로 활동했겠지만 판결문 등 기록으로 남아있는 장흥 항일의병은 30여 명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이는 이세창, 김차홍, 황덕성, 김영엽, 박중일, 오일록 등 여섯 명 뿐이다.

이세창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심남일 의진의 군량장으로 활동했다.

김차홍은 1908년 김성택 의진에서, 1909년 황준성 의진에서 활동했다. 그 당시 전북 진안 출신인 황준성은 조선 군인으로 군대해산에 반대하여 봉기하였으나 이른바 내란죄로 유형 10년을 받고 전남 완도에 유배 중이었다. 이들은 주로 남해 도서와 연해지역을 무대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황덕성은 농민이자 포수로서 1909년 9월 안규홍 의진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그는 안규홍 의진의 도포수로서 약 20명의 포수 출신 의병을 통솔했다.

박중일은 유학을 공부한 선비였다. 1907년 봄, 화순의 양회일의 쌍산의소에서 참모로서 능주와 화순 공격에 참여했다. 1909년 10월 보성군 북내면 묵석동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2년간 강제 노역을 당했다.

오일록은 필상^{筆商}으로 1909년 전후 전라도와 경상도를 오가며 항일의병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출옥 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17년 보안법 위반으로 평양법원에서 징역 4월을 언도받고 또다시 옥고를 치렀다.

김영엽(또는 김여회)은 관산의 양반으로 문학과 행실로 이름이 높았다. 1906년 정석면과 함께 의거하였으며, 1907년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에 투신했다. 1908년 2월 기삼연 의병장이 순국하자 전해산·심남일·오성술 의병장 등과 호남의병 연합조직인 호남동의단을 조직했다. 김영엽은 제3진 의병장으로 대치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도 심남일 의병부대 연합하여 장흥, 강진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던 중 1902년 2월,

김영엽은 순창과 태인에서 활동한 의병장 유종여 부대의 민폐 소식을 듣고는 백성들에 대한 악탈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양심을 품은 유종여는 장성 운문암에서 김영엽을 살해하였다.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의병장의 참으로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그의 부인 수원백씨는 삼년상을 마치고 음독하여 남편의 뒤를 따랐다. 1986년 장흥 남산공원에 의적비가 건립되었다.



이밖에도 수형인명부 등 재판기록으로 확인되는 항일의병들이 있다. 김운성·김운행·김익수·문병원·박공섭·박기삼·박학성·방만덕·백운산·염원숙·윤청일·윤한호·이학수·정형문·조공오·홍의구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민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밖에 짚신을 파는 사람, 담뱃대를 만드는 사람, 술과 음식을 파는 주막을 운영한 사람들이었다. 장흥의 항일의병들도 짚신을 신고 주막에서 술 한 잔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리라.

4 장평 항일의병

임학현. 조선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을 살았던 사람. 그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군 보병이었다. 일제가 1907년 군대를 강제 해산하자 고향 장흥에서 동생 규현 외 여러 마을사람들과 의병을 조직했다. 이후 1908년부터 항일의병투쟁을 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10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임학현은 출옥하여 고향 장평면으로 돌아오자마자 1920년 5월 또다시 의병부대를 조직했다. 부대원은 그의 아우 임규현과 녹양리 사람 노전석, 봉림의 주덕행과 양촌리 한순채, 내동리 문화삼과 축내리 고제민이었다. 이들은 모두 장평면 사람들이라, 장흥에서는 ‘장평항일의병’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은 1920년 말까지 영암군 영암면 한대리, 장흥군 장동면 북교리, 장흥군 유치면 대천리, 강진군 움천면 황마리 등지에서 친일부호의 집에 들어가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자금 모금 활동을 펼쳤다. 임학현은 동지들과 1920년 12월 29일 영암군 금정면에서 일본경찰과 전투 중 붙잡혀 목포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40년 10월 21일 출옥했다.

임학현은 70여 년의 생애 중 30여 년을 조선총독부 감옥에서 보냈다. 조선의 독립과 자주민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아쉽게도 그는 분단된 조국이 전쟁을 치르던 1950년 병으로 사망한다. 일제강점기 30년 감옥살이, 하지만 그는 아직도 국가가 지정하는 독립유공자가 아니다.

임학현은 독립운동과 함께 신발을 만들고 수선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를 직접 보고 알고 있는 장흥의 한 주민은 “그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고 결혼을 했다.”고, “안중근 의사에 버금가는 독립운동가”라고 힘주어 말한다. 결혼도 못해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일가친척이 시신을 찾아 가매장했지만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덤이 유실되어, 지금은 그를 기릴 무덤조차 없다.

임규현. 그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형 임학현과 함께 항일의병을 조직하였다. 1908년부터 항일의병투쟁을 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다시 임규현은 형 임학현과 항일투쟁을 하던 중 1920년 12월 영암군 금정면에서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병고를 얻어 1927년 8월 30일 순국했다. 당시 가족들이 임규현의 시신을 수습하여 대전형무소 근처 공동묘지에 임시로 묻고 큰 돌로 표시를 해 놓았으나, 얼마 뒤 가보니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또한 형 학현과 마찬가지로, 그를 기릴 무덤이 없다.

노전석. 그는 1920년 5월, 항일의병투쟁으로 10여년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임학현을 만나 함께 의병부대를 만들었다. 1920년 5월 22일 임규현·임학현·주덕행·한순채 등과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장평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였다. 하지만 1921년 1월 경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와 대전형무소에서 10여년의 옥고를 치렀다. 가족들의 이야기로는 일본헌병을 맨 손으로 때려죽이고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한다. 해방 후 집에 돌아온 노전석은 병을 얻었다. 1950년 한국전쟁 중 가족들은 산으로 피난가고, 그는 홀로 집에 남아 죽음을 맞이했다. 그때는 어느 총에 죽을지 모르던 시절이라, 피난을 갔다가 남몰래 집에 들른 가족들이 그의 차가운 시신을 서둘러 길가에 묻었다고 한다.

5 장흥의 3·1운동, 그리고 성암 김재계

장흥의 3·1운동은 강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25년 전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장흥동학농민혁명 석대들 전투 패전 후 무자비한 학살로 항일운동의 힘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09년 전라남도의 모든 지역을 휩쓴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으로 항일의병운동이 거의 소멸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살아남은 장흥동학농민군과 그 후손들은 1905년 동학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를 창시하자 하나 둘 모여서 조직을 정비했다. 1906년 교구장 강봉수를 중심으로 장흥 천도교당을 지었다. 바로 이곳에서 1919년 장흥 3·1운동이 시작된다. 당시 장흥 출신으로 천도교 중앙총부의 임원이었던 신명희가 3월 1일 무렵 직접 내려와 독립선언서와 거사 사실을 알렸다. 장흥 교구장 김재계는 3월 6일 군의 신도들에게서 모은 성금 500원을 가지고 상경하여 전달했다. 김재계가 서울에 다녀온 뒤 장흥의 천도교인들은 면을 나누어 연락책임자를 정하고 거사를 준비했다. 대덕면(김상준·안분렬·조홍준·김덕호·김영재·김덕렬), 관산면(이순홍·백태순·박춘식·박진록), 용산면(최기홍·김병후), 장흥면(김서삼·박동일), 안양면(김진학·최기홍), 장평면(고광산·엄대만·김유근)

이 가운데 박춘식·김서삼·박동일·김유근은 장흥동학농민혁명 때 동학농민군으로 참전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김재계·김재반·황업주는 각각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 김규현·김경옥·황양의 아들들이다.

“김재계, 김재반, 황생주, 황업주 등 주동인들은 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모든 준비를 갖추어 3월 15일의 예정일을 맞이하였으며, 시인^{市人}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김재계, 김재반 등은 시장중앙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어 신호하니 삼시간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장흥군지』

김재계, 김재반, 황생주, 황업주 등이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3월 12일 장흥읍 장날 만세 시위를 펼치려 했으나 여의지 않자, 3월 15일 장흥 장날 황생주, 황업주 등이 선언서를 배포하고 김재규, 김재반 등이 만세를 부르며 수백 명을 모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날 주모자들이 대거 체포되었으나 장흥군 일대에서 천도교 주도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3월 20일 대덕면에서도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4월 1일에는 용산·안양·장동·장평·유치·부산·관산 7개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밤에는 산 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해변에서는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각 면민들은 월정헌병주재소^{유치면}, 양촌헌병주재소^{장평면}, 교동헌병

주재소^{안양면}, 죽천헌병주재소^{관산읍} 앞까지 몰려가 비폭력시위를 하였다.

김재계^{1888~1938}는 장흥 회진면 덕도 출신으로 본관은 김해, 도호는 성암이다. 그는 약 10년 간을 한학을 배우다 1902년에 동학에 입교하였다고 한다. 7살 어린 시절 김재계는 지금의 덕도 할미꽃동산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멀리 대덕 벌판에서 벌어지는 대흥기포 광경을 바라봤다고 한다. 그때 군중들 사이에서는 대장 깃발이 휘날렸고, 머리와 무릎에 황명주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총이나 죽창을 들고 연습차 대덕 들판에 자주 모이곤 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갔는데, 정작 자신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가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며, 그 흥에 겨운 사람들의 모습 중 친척 어른 한 분이 대장기를 들고 춤을 추며 어깨 짓과 힘찬 발동작을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동학농민혁명 당시를 회상했다.

1906년에 설립된 장흥교구의 교훈을 맡은 이후 그는 장흥의 대표적인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11년 금융원과 강도원, 1912년 공선원, 1913년에는 교구장 등 1910년대에는 주로 장흥교구의 일을 맡았다. 1920년대 전반에는 장흥교구의 업무 외에도 천도교 장흥·완도·고흥 3군 대표로서 의정원에 선임된 이래 전남대표위원, 중법사, 중앙총리원의 경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26년에는 『천도교회월보』 편집위원을 맡아 1937년까지 수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이무렵 천교의 성금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1930년대 중반 천도교 4대 교주인 박인호는 비밀리에 전국적인 멸왜기도^{滅倭祈禱} 운동을 시달했다. 멸왜기도는 “개 같은 왜적놈을 일야간에 멸하고서”라는 주문을 외우며 일제의 몰락을 기원하는 특별기도운동이었다. 그러나 멸왜기도운동은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발각되었다. 1938년 2월 말 김재계는 이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고문의 여독으로 인해 1942년 6월 서울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한편 천도교인 중심의 장흥 3·1운동과 함께 장흥지역 밖에서도 만세시위에 장흥사람들이 참여했다. 김정수^{1896~1948}는 3·1운동 당시 광주 송일학교 학생이었다. 1919년 3월 10일 광주 시내에서 송일학교 재학 중 독립선언서 150매를 동급생 및 시내 군중에게 배포하고 시내를 행진하는 등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았다.

또 박세현^{1881~?}은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물밀듯 일어나자, 제주도내 서당 생도들을 모아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당시 저지리의 서당훈장이었던 박세현은 구우면 낙천리 서당훈장 조무빈, 신좌면 조천리 서당훈장 신계선과 대한독립만세를 주장하는 전단지 배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3년여 옥고를 치렀다.

6 천관산 항일사건

“반일 감정이 고조된 면민들은 1919년 4월 7일~8일 이틀에 걸쳐 고읍 죽천시장 날을 기하여 전 면민이 일제히 봉기하여 항거하였다.” 『관산읍지』

“피고 위계장, 이산홍, 김효진, 위계현은 진작 살고 있는 면의 천관산이 조선권농주식회사의 직영에 속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다. 1920년 4월 25일 같은 회사 고용인 가타야마 류조가 미타 도시오 외 두 명과 함께 조선인을 데리고 밤 종자를 파종한 사실을 알았다...고읍면민은 종전처럼 빨감을 얻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다음 날 26일 고읍면 죽교장이 서는 날을 이용하여 부근의 주민을 모이게 하여 그 사업을 방해하고

식림을 중지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26일 오전 이신흥 등의 주장에 모인 주민들은 조선권농주식회사 종업원 2명이 장흥읍을 향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여 그들을 납치하여 구타하였다. 출장 중이던 고읍면장 및 순사부장 오니츠카 에이지로노는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회사 고용인 미타 도시오, 다마키 히사시에게 식림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요할 무렵 주민의 무리 약 4백 명과 맞닥뜨렸다. (...) 당일 주민들이 다수 집합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 소란의 정도가 극에 달했다.” 『판결문』

날짜의 차이가 있지만, 관산주민들이 기억하는 천관산 항일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일본인 소유 회사가 천관산에 밤 종자를 심고 조선인의 입산금지를 지시했다. 빨감과 각종 나물을 천관산에서 구하였던 고읍면^현 관산읍사람들은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이를 저지하려는 대규모 항일시위를 계획한다. 1년 전 3·1만세운동의 경험이 있던 관산사람들은 이번에는 생존권을 되찾으려고 일제에 대항하여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것이다.

이 사건은 일제가 천관산을 통제하여 빨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산주민들이 항의한 단순한 시위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아궁이에 불을 때고 사는 시절이라 관산주민들에게 빨감은 생존의 문제였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 속에서 모든 독립운동은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활동이기도 했다.

이 집단 시위로 관산면장이던 정환수와 관산면 서기였던 정형수도 잡혀가 일본경찰에게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고문으로 병을 얻은 정환수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사건의 주동자들인 이신흥, 김효진, 위계장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4~5개월 실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7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장흥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과 같이 전국으로 확산된 대중적 항일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말에 시작해 1930년 5월까지 경성과 평양, 함경도와 만주벌 간도까지 전국적인 동맹휴학과 학생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장흥출신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는 5명으로 확인된다. 문명렬과 김종선^{광주사범학교}, 위종렬·위장환^{광주고보}, 정학조^{여수수산학교}가 그들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문명렬은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사범학교에서 퇴학당한 문명렬은 고향에 내려와 야학을 열어 어린이와 청년들을 가르치다 또 일본경찰에 끌려갔다. 다음은 문명렬에 대한 후세의 증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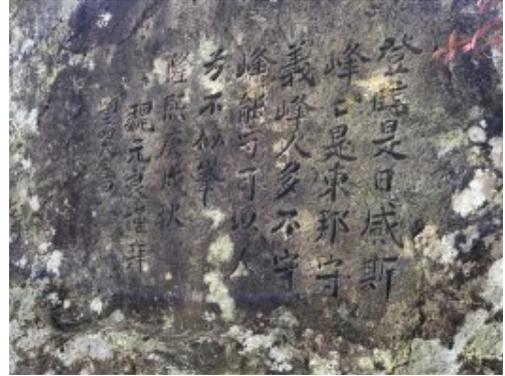
“내가 유치면으로 이사한 후에는 나의 외사촌 매부인 문명렬 씨 역시 전남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 및 광주학생항일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루고 석방되었으나 퇴학을 당해, 고향인 유치면 오복리로 내려와 문씨^{남평문씨} 제각에서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그 야학당에 다녔다. 야학은 2년간 계속 되다가 1932년 겨울 선생이신 문명렬씨가 일경에 연행됨으로서 중단되고 말았다. 약 2년간 문명렬 매부가 우리 옆집에서 사셨으므로 자주 매부가 좋은 이야기^{이솝이야기} 등을 많이 들려주어 나의 어린 시절의 큰 가르침이 되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을 존경했고 어린 시절 나의 마음의 고향이었다.”

위종렬도 역시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을 언도받았다.

위장환은 광주고보 4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했다. 고향으로 내려온 위장환은 마을주민의 채무를 면세해 주는 등 농민구휼에 앞장섰다. 그리고 마을주민들과 띠를 채취, 옛날 비옷인 우장^{雨裝}을 만들고 판매하여 마을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당시 장흥에서는 부산면 기동리의 우장이 유명했다고 한다.

위장환의 아버지 위원량은 절개 있는 선비였다. 위원량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자 수인산^{부산면} 수리봉에 다음과 같은 시(望哭書)로 나라를 빼앗긴 통탄을 새겼다.

오늘에 올라보니 이 봉우리 알겠네.
 이곳은 우리나라 의^義 지키는 봉우리
 사람은 많아도 못 지키고 봉우리는 지키니
 사람 많은 것이 이 봉우리만 못하구나.



한편 장흥출신 학생독립운동가인 정학조는 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여수수산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1930년 3월 중순 여수공립수산학교 재학 중 윤경현 등과 함께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학습과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단체로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김종선은 1929년 남상보등학교^{현 용산초등학교} 교사였다. 김종선은 용산면 청년들인 유재성·문병곤·정진수·김계석과 함께 독립만세 계획을 세웠으나 발각되어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장흥경찰서 유치장은 끌려온 청년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김종선은 다시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광주학생 동지들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김종선과 같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공감하여 시위를 계획한 유재성 등 청년들은 1934년 1백여 명의 장흥청년들이 참여한 독립운동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의 지도자로 활동한다.

8 전남운동협의회와 장흥

전남운동협의회는 처음 1933년 5월 해남의 김홍배, 오문현과 완도의 황동윤이 결성한 사회주의 독립운동 비밀결사이다. 완도·해남·장흥·강진·영암지역의 지식인들은 농민운동을 조직할 비밀결사에 공감했다.

전남운동협의회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장흥에서는 왕재일, 유재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농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왕재일은 광주고보를 졸업한 이후 강진 병영에서 청년운동 등에 종사하다 1929년 무렵 장흥으로 옮겨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고보 재학 중에 조직했던 성진회 등 비밀결사활동이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1931년 11월 석방된 이후에도 장흥을 중심으로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유재성은 왕재일과 함께 1929년 장흥청년동맹의 조직을 주도했던 인물로 김옥석, 문병곤, 최두용, 고삼현, 고희석 등과 함께 1931년 말부터 각자의 마을 서당에서 야학을 열었다. 이들은 야학의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와 지주, 자본가의 착취, 소작인과 노동자의 생활 현실 등을 설명하고 소작인과 노동자가 일치단결하여 투쟁해야 함을 역설했다. 빈부의 차이가 없는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터내셔널가를 가르쳐 부르게 하기도 했다. 1932년 12월 야학 활동이 발각되어 유재성 등이 대거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해졌다(이른바 ‘남면야학사건’).

유재성 등이 구속되기 전인 1932년 2월 중순 왕재일, 유재성이 만나 장흥에서 운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재성은 장흥에서 신간회나 청년동맹 등 대중 조직이 소멸되어 사회운동이 분산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향후 농민운동에 주력해야 하며 농민 야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왕재일 또한 농민 조직화에 찬동하며 각 면의 동지들과 보조를 맞춰 야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입각해 유재성 등이 추진하던 야학이 발각되었으나 193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귀향한 유재성, 김두환 등은 왕재일과 다시 만나 파괴된 전선의 부활을 추진하며 위촉되지 말고 용감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왕재일, 유재성, 정진수 등은 등 장흥의 농민 운동 주도자들은 1933년 10월 윤가현, 마성만 등 전남운동협의회에 참여한 강진의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접촉했다. 해남, 완도에서 출발하여 영암과 강진으로 확산된 운동이 강진에서 장흥까지 확대된 것이다. 윤가현은 농촌의 운동에서 사회주의 투사들은 직접 농민층에 들어가 선전 선동활동을 벌여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해야 하며, 장흥에서도 동지들을 규합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을 만들 것을 권유했다. 장흥의 운동가들이 여기에 동의하자 윤가현은 강진과 장흥의 운동가들이 제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직 방침에 있어서도 각 마을마다 활동가들을 책임지게 하고 직접 농민들과 접촉하고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훈련하여 ‘반’을 조직해야 하며, 면을 단위로 혁명적(적색) 농민조합 지부를 만들고, 각 면에 지부를 조직한 다음 장흥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흥의 농민운동가들은 윤가현의 제안을 대체로 수용하여 농민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서 1933년 유재성·문병근·고희석·김범식·정진수·김두환·위종관⁸³안면, 문용·길인주⁸⁴장흥읍, 길양수⁸⁵장평면, 정종배⁸⁶관산읍, 장희진⁸⁷안양면, 고서동⁸⁸대덕읍 등은 각 면의 농민과 청년을 규합하여 야학운동으로 독립사상을 전파했다. 1934년 1월 조직이 드러나 이후 5월까지 각 군에서 6백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다. 장흥에서는 80여 명이 일본경찰에 끌려가 9개월여 간 혹독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다.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을 보도한 『매일신보』 기사(1934.9.10). 한 면 상단을 거의 채우고 있다.

전남운동협의회 지도자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거나 서울과 일본에 유학 다녀온 지식인들이었다. 완도의 황동운은 동경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1930년 조선일보 신문기자를 했다. 이기흥은 광주고보에 재학 중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퇴학을 당한 후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지었다. 황상남은 광주

사범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해남의 김홍배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오문현은 광주농업학교를 다녔다. 영암의 최규문은 광주고보에 다니던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 장흥의 지도자들도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이 많았다. 길양수는 경성선린상업학교에 다니던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물결 속에 동맹휴교를 주도하여 퇴학을 당했다. 문병곤과 고서동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2020년 11월 현재까지 장흥에서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고서동·길양수·길인주·김두환·김법식·위종관·정종배·정종철·정진수^{1990년}, 김옥석^{2008년}, 고삼현^{2019년}, 최두용·강상국·강석홍·강충원·손영현·이두추·길덕동·임도잔·김개성·이길원·이길종·이천흙·이영대·장희진·고영태·김한상·김한원·김한태·이종기^{2020년 포상} 등 30명이다. 하지만 일경에 체포되어 구속된 사람은 80여 명이 확인되었다. 용산면에서 실형을 받은 유재성·문병곤·고희석 등 39명, 관산읍 10명, 장흥읍 2명, 유치면 4명, 장평면 5명, 대덕읍(회진면 포함) 17명, 안양면 4명 등 총 80여 명이 옥고를 치렀다. 또한 유재성·문병곤·고희석은 해방 후 사회주의 활동을 한 관계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 장흥의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슬픈 사연을 보자.

유재성^{劉載星(1908~1950)}, 용산면은 1930년대 항일운동을 이끈 장흥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다. 일제강점기에 무려 4년여의 옥살이를 했다. 유재성은 논 서마지기 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1930년대 장흥항일운동의 지도자로 우뚝 섰다. 나라의 독립과 이웃의 가난한 생활을 걱정한 따뜻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공부하며 따뜻한 성품의 평민지식인으로 동지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 것이다. “8개 국어를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똑똑했다는 유재성은 해방 후에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미군정기에 포고령 위반으로 다시 목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1950년 초 장흥읍사무소 앞에서 장흥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과 경찰은 그해 7월 이들을 안양 해장 저수지와 수문 앞바다에서 집단 학살했다. 이때 유재성도 허무하게 희생되었다. 2000년 들어 정부에서도 보도연맹 사건을 ‘국가의 불법적인 민간인 학살’로 진실 규명했다. 유재성도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항일독립운동가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문병곤^{1915~?}은 1930년 3월 일본 동경유도학교 3년을 수료하고 고향에 돌아왔다. 유도를 하면서 사람의 뼈를 맞추는 의술을 배워 와서 아픈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문병곤은 1932년 12월 이른바 ‘장흥군 남면 야학사건’(장흥청년동맹)으로 유재성·김옥석·최두용·고삼현·고희석 등과 함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1933년 2월에 감옥에서 나온 문병곤은 그해 11월 용산면 접정리 유재성의 집에서 동지들과 몰래 만나 청년반·농민반·소년반 등 농민야학을 조직하는 용산면 어산리 책임자로 선임된다. 1934년 1월 용산면 어산리에서 이순주와 이삼섭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청년반과 농민반을 결성한다. 이후 야학을 개설, 독립사상을 고취하던 중 1934년 2월경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일본경찰에 체포된다. 1937년 10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렀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의하면, 문병곤은 1942년 전국씨름대회에 전남도대표로 출전하였던 장사였다고 한다. 또 다른 마을 사람은 문병곤이 용산면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8·15 해방을 알렸다고 기억한다. 해방의 감격을 용산면에 알렸던 문병곤은 곧바로 장흥군민들의 추대로 장흥경찰서장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경찰서장 자리에서 억지로 물러나게 된다. 이후 그는 아무 죄 없이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용산면 상금과 장흥읍 월평에 사는 두 누나 집으로 피신을 다닌다. 그러다가 산으로 피신하게 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그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2020년 문병곤의 늙은 아들은 고향 어서마을 앞산에 어머니의 시신을 모셔와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무덤을 썼다. 무덤 상석에는 ‘장흥향일독립지사 문병곤 선생’이라고 썼다. 70여년 만에 부부가 다시 만난 것이다.

1934년 추석, 장흥군 관산읍 죽교에 사는 아버지는 목포형무소에 갇혀있는 아들 재판을 방청하러 간다. 추석이라 홀로 든 여관 창밖으로 하늘에 보름달이 가득하다. 상심한 백발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아버지는 아들을 면회하고 돌아오는 목포 용당포 배위에서 바닷물에 눈물을 쏟아낸다. 1937년 출옥한 아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진다. 1942년 아버지는 신의주형무소에서 아들이 위독하다는 급보를 받는다. 칠십 노인 아버지는 한강수가 넘치고 온 곳이 변화한 경성을 거쳐 평양을 지나 신의주에 도착한다. 아버지는 신의주에서 장흥까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다. 죽교에 내려 엮고 집으로 데려온 아들은 3일 지나 숨을 거둔다.

아버지는 1905년 일제의 을사늑약 부당성을 ‘전유금론^{田有禽論}’을 지어 강력하게 비판했던 유학자 송포 정노수^{1877~1965} 선생이다. 아들은 1934년 독립운동 비밀결사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3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이후 독립자금을 모집하여 국경을 넘나들다 다시 체포되어 신의주감옥에 갇혔던 정종배^{1913~1942}이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끔직한 옥살이를 하는 아들을 면회 다니며 외롭고 쓸쓸한 시를 여러 편 남겼다. 아버지 송포 선생이 신의주에 있는 아들 종배를 데리러 가서 쓴 시가 절절하다.

이천리 넘는 의주에 왔는데 / 압록강물은 밤낮으로 울며 흐르는구나
칠십의 아버네 어찌 이곳에 왔는고 / 천륜이 중하다지만 이 몸 지푸라기와 같구나

이 이외에도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에 오른 장흥 출신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있다.

길양수(전남운동협의회 관련자).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선린상업학교에 다니다가 동맹휴교 사건으로 퇴학당했다. 1932년 7월 장흥에서 장평농민조합 결성에 참여하여 선전부장이 되었다. 이후 소작료 감면, 공과금 지주부담 등을 내세우며 소작쟁의를 벌였다. 1934년 초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6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감년(전남운동협의회 관련자, 남로당 장흥군당 위원장). 전남 강진 출신으로, 1927년 3월 강진군 병영면에서 공립보통학교 보습과를 졸업했다. 일본에서 사진술을 습득하고 귀국한 후 사진관을 운영했다. 1932년 이후 강진에서 야학을 운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6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45년 9월 장흥군인민위원회 결성을 주도했고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고흥군 대의원으로 참석했다. 남조선노동당 장흥군당 위원장을 지내다가 검거를 피해 영암 월출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전개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장흥으로 돌아와 남로당 장흥군당 위원장, 장흥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1950년 9월경 전세가 바뀌자 퇴각하여 입산한 후 행방불명되었다.

김두환(적색농조 참가자, 건준 장흥지부 총무). 전남 장흥 출신으로 『조선일보』 장흥지국을 운영했다. 1930년 3월 장흥청년동맹 위원장이 되었다. 1932년 12월 ‘장흥야학회 사건^{남면야학사건}’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 1933년 8월 장흥적색농민조합건설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1934년 2월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7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회 장흥지부 총무 및 장흥청년단 간부, 1946년 1월 조선인민당 장흥지부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전남도위원을 지냈다.

9 장흥의 해외독립운동가들

지금까지 장흥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지사는 위석규^{노령방면}, 조희준·손용근·김계석^{일본방면}, 문병전·박진·박호암·김용관·최종오^{중국방면} 등 8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령 방면

“짐승^[倭]이 사람과 영토를 침탈하니 장차 모두 죽겠도다. 오국^{吾國}이 도수^{盜獸}들의 노략으로 국가가 존망지추^{存亡之秋}에 다다라 백성이 진멸^{盡滅}케 되었으니 (...) 고금을 막론하고 국난을 당하여 국가사직^{國家社稷}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분강개^{義憤慷慨}하여 일어서면 모두가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위석규

위석규^{1883~1913}는 성리대전과 증용을 공부한 유학자였다.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전선에 뛰어들었다. 1906년 5월,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고하고 자제들에게는 유서를 만들어 남기고는 중국으로 길을 떠났다. 그때 그의 나이 24세였고 27세의 부인과 겨우 4살 난 아들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고향을 떠나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박태문, 강명운, 국사성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가 독립의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난 지 7년이 되던 1913년 동생 위여민은 한 통의 서신을 받게 된다. 박태문이 보낸 부고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1913년 음력 4월 27일 러시아 니콜라이스크에서 운명하였던 것이다. 겨우 31세의 나이였다. 유해는 당시에 러시아 니콜라이스크의 한인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 고향에서는 유해 대신 유품으로 장사를 치렀다.

천관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독립지사 덕암위공석규유장지’에 의열비와 독립전선에 투신하면서 남긴 어록비, 부인의 ‘평해오여사효열비’가 있으며, 약 10m 떨어진 곳에 의리장묘가 있다.



중국방면

일제강점기 중국지역 독립운동은 다양한 사상과 조직의 지평 속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조직과 관계하면서 이른바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공산주의를 독립사상과 결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항일투쟁을 펼쳤던 것이다. 그 속에서 문병전은 대한독립군, 김용관·최종오는 한국광복군, 박진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박호암은 조선민족혁명당원으로 활동하였다.

문병전^{1895~1971}은 일제의 학대와 멸시에 울분을 느끼고 1927년 일본경찰을 구타하여 체포되었는데, 연행되어 가는 도중 다시 일경과 싸우고 달아났다. 영산포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만주 흑룡강으로 가 김좌진과 이

범석이 주도한 대한독립군^{북로군정서군}에 투신했다. 이후 수많은 항일전투를 치르다 해방이 되어 귀국하였다. 해방 후 장흥에 온 민족청년단 이범석을 만났으나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관^{1926~1971}은 1943년 일본 유학 중 중국 산둥성으로 건너가, 광복군 제3지대 적지구^{敵地區} 특파 지하공작원 조동린을 만나 일본군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 1944년 5월에는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무장투쟁을 펼쳤으며, 해방되던 해 국내정진공작대^{國內挺進工作隊} 무전반장으로 활약했다. 한편 해방 후에는 육사 5기로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민정 전남도지사^{1963. 7~12}를 역임했다.

한국광복군 최종오^{1919~1976}는 중국 광둥성에서 일본군영을 탈출, 1945년 3월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로 배치되어 무장항일투쟁을 펼쳤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박진^{1897~1968}은 1923년부터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했다. 11회 임시의정원 회의 명단을 보면 전라도 대표로 박계천 등 4명과 함께 활동했다. 1945년 해방을 앞둔 시기에도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했다.

1935년 중국 남경에서 이청천·김규식·신익화·김원봉 등이 조직했던 조선민족혁명당은 단일한 항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동맹 단체였다.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에 가입한 박호암^{1912~1984}은 북경에서 일본군 정보 수집과 민심교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박호암은 1936년 12월 14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본방면

중국지역과 국내 독립운동 기록은 많이 남아있으나 일본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은 찾기 힘들게 현실이다. 중국지역 독립운동은 내부에서 기록한 문건과 구술기록이 많고, 국내 독립운동은 많은 판결문이 남아 있어 다수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지역 독립운동 기록은 너무나 부족하여 다수가 포상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지역 조선인 독립운동은 많은 민족세력이 참가하여 노동운동과 청년, 학생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조선인은 빈곤과 차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반일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일본으로 유학 간 조선인학생들과 노동자들은 민족해방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를 급속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한 김계석, 조희준, 손용근이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김계석^{1913~?}은 1929년 10월 장흥군 용산면 월산재에서 김두환, 정진수, 김옥석 등 동지들과 장흥청년동맹 남흥지부를 결성하여 야학을 통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32년 일경의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밀항하여, 일본 산구현에 있는 고수중학교로 유학 갔다가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한다. 이후 일본 동경시에서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조선인 차별철폐와 사회주의 사상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일경에 체포되어 1941년 동경형사지방법판소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45년생인 아들은 아버지의 독립운동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해방 후 귀국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펼치다 한국전쟁 전후 사라졌고, 이후 연좌제의 울무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조희준^{1907~?}은 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기 훨씬 전 1931년 출판법 위반으로 동경구재판소에서 벌금 20원을 선고 받은 바 있었다. 수형인명부에 직업이 잡업^{雜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희준은 특별한 직업 없이 비밀스럽게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

손용근^{1910~?}도 1931년(수형인명부 기록, 직업 사원) 조선인 동지들과 소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934년(수형인명부 기록, 직업 없음)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10 오누이 독립운동가, 고영완과 고완남

조선학생동지회는 몽양 여운형의 권유로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상흠^{인촌 김성수의 4남}, 서영원^{송재 서재필의 종손}, 윤주연^{고산 윤선도 10세손} 등이 1939년에 조직한 학생항일비밀결사이다. 고영완^{高永完(1914~1991)}, 장흥읍 평화리^은은 당시 서울중앙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센슈대학^{專修大學}에 유학중이었는데, 비밀결사 리더였던 윤주연과 접촉하며 누이 고완남^{1920~1991}과 같이 조선학생동지회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활동 결과 여러 학교·지역 단위 비밀결사가 조직되고, 1942년 3월 1일 서울 남산에 모이기로 계획했다. 거사 직전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일제히 시위하기로 결의하고, 전단 수십만 장을 인쇄해 각 조직에 배포했다. 그때의 ‘조선학생동지회 격문’이다.

전 조선학생 동지들이여	최후의 단말마 일본을 타도하자.
꺾기하자!	오는 3월 1일을 기해서 일제히 일어나자.
일본왕국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시위하자.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갈 것이 없다.	민족정기를 되살려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남은 것은 생명뿐인데, 그것마저 앗아가고 있다.	우리의 살길을 기어이 찾아가자!

조선학생동지회는 3·1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거사를 준비하는 한편 창씨개명 반대, 우리말 사용, 황국신민서사 반대 등 민족정신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1941년 7월 조직원 이근갑^{당시 원산상업학교}이 체포되면서, 그해 9월 동지들과 함께 고영완·고완남 오누이도 일경에 잡혀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을 언도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당시 고완남은 1940년 이화여고보를 졸업하고 동지 김상흠의 형 김상기^{인촌 김성수의 2남}와 결혼하여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유산했다. 고완남은 이화여고보 시절 동급생이며 기숙사 동기인 이희호 여사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한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1987년 대선 때 고완남과 이희호가 함께 장흥 평화마을을 방문하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1 해방의 감격에서 전쟁의 비극까지

갑자기 찾아온 해방

해방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8월 15일 오전 10시 장흥의 남산공원 신사 앞에서 장흥군민 청년 가운데 일제 징병에 뽑힌 출정 장병 환송식이 열렸다. 환송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일본인 경찰서장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가 비통한 목소리로 ‘전쟁은 쉬게 되었으니 모든 장정은 귀가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내려갔다. 영문을 모른 채 귀가한 출정군인 가족들은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오후 3시경 장흥 읍내에는 급조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인파로 넘쳐났다. 반면 일본인들은 문을 닫아 걸은 채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였으니, 읍민들은 집집마다 모시게 한 일본 신주를 마을 어귀로 들고 나와 보란듯이 불태우고 신사도 부숴버렸다.

건국준비위원회 장흥군지부

다음날 장흥에서는 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청년단의 중심인물은 민태식·백형문·김종열·고영구·김종남·박봉운·김상선·고영국·강수의·문병곤·손석연 등이었다. 초기에 고영구가 단장을 맡았다가, 얼마 후 박호암으로 바뀌었다. 같은 날,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 장흥군지부도 조직되었다. 일제 때부터 농민운동에 가담한 바 있었던 고영완·김두환·유재성·길인주·김영삼·왕재일·위종관 등 19명이 중심이 되었다. 위원장 고창석, 부위원장 김정현, 총무부장 김두환, 재정 및 문화부장 고영완, 청년부장 손석민, 치안대장 박봉운 등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고창석은 보통학교만을 나왔지만, 일제 때 장흥읍장을 지냈던 관계로 건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부위원장 김정현은 일본 명치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지만, 재산 정도는 대단히 빈곤했으며, 진남용·주장호와 함께 해방 후 국민회 운동을 주도했다. 총무부장 김두환은 고창석의 처남으로서 나무장사 등을 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으며 일제하에 농민운동을 했던 관계로 일제 말에 대화속에 있었다. 고영완은 전문학교를 졸업했으며, 한 해 3천석 이상을 수확했던 대지주였다. 일제하에 민족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함흥형무소에 투옥당하기도 했고 해방 후 제헌의원, 한민당, 대한청년단 단장 등을 지냈다. 손석민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있었다. 처가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해운업에도 관계했다고 한다.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하여 활동했다.

이렇듯 이들은 계층의 다양성, 학력과 빈부, 사상의 차이도 적지 않았다. 해방 이전에 각기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 건준의 결성을 계기로 좌우연합의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다만, 건준 장흥군 지부·청년단과 장흥읍지부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자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장흥지역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많았던 반면에 후자는 관료와 경찰, 군인 등으로 활동한 친일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 결국 읍내 출신의 김중가·김희기·김삼기 등으로 구성된 읍지부는 국군준비대로 개편한 후 청년단을 무력화시켜 양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로 개편하다

9월말 건준 군지부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건준위원장이던 고창석이 위원장에 재추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인민위원회는 김감년·송순직·김두환·김울곤·이영원·길인주·길문·이길우·신원석·위종관 등 보다 젊은 청년들에 의해 움직여졌다. 이들은 건준 시절에도 함께 행동하면서 독자적인 단체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인민위원회로의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준의 완강한 보수세력에게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정국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청년동맹, 부녀동맹, 농민위원회, 노농동맹을 결성하였다. 따라서 장흥인민위원회는 미군이 진주하여 인민위원회를 해산시킬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기능을 행사했다. 인민위원회는 면, 리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시켰으며 리 단위에서는 부락민들의 투표를 통해 인민위원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미군이 진주한 후에도 1946년 1월초까지 정상적으로 기능한 면인민위원회도 상당수 있었다.

장흥인민위원회의 간부 중에서 김울곤은 중학을 졸업하고 사상운동에 뛰어들어 활동을 전개했으며, 뛰어난 독서가로 알려져 있었다. 이영원은 대구사범과 의과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로서 장흥에서 대동의원을 경영했고, 한국전쟁 때는 지리산에서 활동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길인주 역시 한국전쟁 때 입산하여 활동했으며, 길문·이길우·위종관 역시 한국전쟁 때 대부분 입산하여 활동했다.

해방공간의 격랑 속으로

한편, 다른 지역에서처럼 장흥에서도 해방 후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으로 여러 정치사회단체가 조직되었다.

1946년 1월 19일 조선인민당 장흥지부가 결성되었다. 임시의장 김두환의 사회로 장흥제일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위원장에 손순기, 부위원장에 김두환·박정수가 피선되었다. 1947년 후반에는 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 장흥단부가 각각 조직되었다.

해방된 지 1년이 지난 1946년 10월, 당시 전남에서 15개 부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추수붕기’에 장흥 관산에서 1천여 명의 농민이 호응하였다. 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해 시위 군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47년의 삼일절 기념행사에서는 좌우익 단체가 따로 행사를 주최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같은 해 5월에 열린 메이데이 행사에 참여한 군중들이 경찰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장흥의 부산·안양·대덕·관산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죽창을 휴대하고 시위를 벌였다.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자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24명이 체포되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은 전남 동부 지역은 물론이고 장흥에도 그 여파가 미쳤다. 물론 여순사건 발발 이전부터 이른바 야산대와 군경의 교전은 종종 있었다. 장흥 유치는 전쟁 이전부터 좌익세력의 근거지였다. 화학산을 중심으로 장흥, 강진, 나주, 화순과 산간 지대 연결이 쉽고 유격대 활동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로당 전남도당 유격대 본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순사건 이후 14연대 반군의 일부도 장흥 유치에서 화순 청풍으로 이어지는 화학산으로 입산하여 유격대에 합류하였다. 이들은 이곳을 흔히 유치내산이라 불렀는데, 장흥·화순·영암 등 3개 군의 접경지대인데다 잔 농선과 골짜기가 많아 유격근거지로 안성맞춤이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1949년에 국군수도사단 11개 중대가 장흥서 국민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서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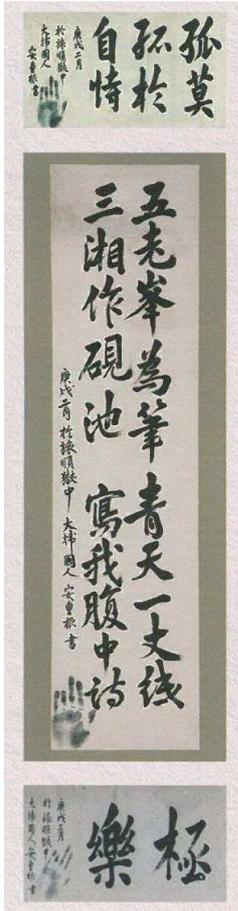
그해 11월 국군은 장흥 유치에서 유격대 사령관 최현을 사살하였다. 결국 사령관을 잃은 전남도당은 장흥 화학산에서 광양의 백운산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해방 공간의 장흥은 여느 지역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좌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좌우익의 갈등이 깊어지고 충돌도 잦아졌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다. 인민군의 퇴각하고 전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호남 지구 공비 토벌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의 전남지역 주요 토벌작전을 보면 1951년 1월 20일 영광군 백수면 구수산 전투와 1951년 4월 2일 영암군 금정면 국사봉 전투, 장흥경찰서의 장흥군 유치면 유치지구 전투가 있었고 그 외에 담양군 대덕면 산정리 전투, 장흥군 덕룡산지구 전투, 그리고 각 경찰서 주도의 토벌작전 등이 있다.

장흥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읍면이 1950년 10월 초순과 중순 사이에 경찰에 의해 치안이 회복되는 것에 비해 유치면에서는 10월 중순부터 빨치산 활동이 시작되어 1952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 장평면, 부산면, 유치면에서 빨치산에 의해 개인 또는 일가족이 자택 부근에서 희생당하거나 유치면 방면으로 끌려가 희생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1950년 11월 20일 장평리에서는 유치면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이 장평면사무소를 습격하는 것과 동시에 이장, 경찰과 그 가족 등 우산마을 주민 30여 명과 봉림마을 주민 16여 명을 집단 희생시키고 희생자들의 집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2 안중근 의사와 장흥 해동사



孤莫孤於自恃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은 없다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書

五老峯爲筆
青天一丈紙
三湘作硯池
寫我腹中詩
오로봉으로 붓을 삼고
푸른 하늘을 종이 삼아
삼상의 물로 먹을 갈아
마음 속 담긴 시 쓰노라
庚戌二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書

極樂
극락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安重根書

해동사^{海東祠}는 1955년 안중근^{1879~1909}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우이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동양평화론』과 『안응칠 역사』 저술에 몰두했다. 두 아우에게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공원 곁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위해 힘을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순국했다. 3월 26일 10시 15분이었다.

장흥군 장동면 만수마을에 전국에서 유일한 안중근 의사 추모 사당인 해동사가 있다. 전국 유일에도 더해 대한민국 최초의 안중근 기념시설이기도 하다. 해동사는 1955년 장흥지역 죽산 안씨 문중 사당인 만수사 곁에 1칸짜리 건물로 건립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새로 터를 닦아 현재의 3칸짜리 건물로 다시 사우를 지었다.

죽산 안씨 문중은 1946년 만수마을에 조상들의 공덕을 기리는 사당인 만수사^{萬壽祠}를 착공해 1961년 완공했다.

다. 만수사는 안향을 주벽으로 안원형, 안면, 안정생, 주세봉, 안중목을 배향한 공간이었다. 만수사를 짓고 난 뒤 같은 뿌리인 순흥 안씨 안중근의 후손이 국내에 없어 제사조차 지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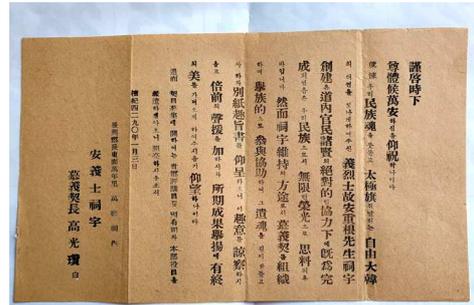
장흥향교 전교를 지낸 안홍천이 안 의사 사당 건립을 추진했다. 죽산 안씨 문중과 뜻을 같이한 지역 유지들도 성금을 보태 1955년 1칸짜리 사당을 세웠다. 만수사였다 안중근 의사의 사당을 지은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안 의사 추모 공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곳이라는 뜻으로 ‘해동명월’이라는 편액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글을 따 해동사라 명명했다.

해동사에는 유족이 전달한 영정과 위패, 그 오른쪽 벽에 낡은 패종시계가 걸려 있다. 시계바늘은 오전 9시 30분에 멈춰 있는데,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시각이다. 언제, 어떤 세상이 와야 멈춘 시계바늘이 다시 째깍째깍 작동할 수 있을까?



1955년 10월 27일 안 의사 위패 봉안식이 열렸다. 봉안식에는 딸 현생 씨와 5촌조카 춘생 씨가 직접 참석했다. 안중근의사의 딸 안현생은 영정을 모시고 조카 안춘생은 위패를 모시고 참례하였다. 당일 봉안식은 장흥대교를 지나는 시가행진을 먼저 하였다. 해동사 위패 봉안식은 장안의 화젯거리였다. 장흥, 강진, 보성군민 뿐만 아니라 멀리 경남 진주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1만 여명이 장흥에 운집했다.

사당 건립 후 전남 지역민 사이에서는 안중근 정신을 길이 계승하자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1957년 ‘안 의사 사우 모의계’였다. 모의계는 안중근 의거를 따르는 모임으로 취지서에는 “계를 조직해 안 의사의 유훈을 길이 받들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동사가 창건된 지 40여년이 지나 먼저 1칸짜리 행동사가 안 의사의 공적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는 말들이 오갔다. 문중과 유림, 지역민들은 1996년 만수사 아래에 터를 마련하고 순국 90주년인 2000년 3월 맞배지붕으로 새로 지었다. 지금의 해동사이다.



1955년 10월 27일 안중근 의사의 첫 추모공간인 전남 장흥군 해동사에 안 의사 후손들이 영정과 위패를 모시는 원본 사진. 이 사진은 1979년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발간한 책자에 실려

안의사 사우 모의계 취지서(위)
정남진공원의 동상(아래)

장흥의 지역민들은 해동사를 신축한 지 1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안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정남진 공원 내에 안중근 동상 건립을 추진했다. 이듬해 건립된 동상은 높이 4m로 두루마기를 입은 안 의사가 단지한 외손으로 태평양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정남진의 동경 126도 상에 위치에 있어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얼빈 역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유일의 안중근 사당이 장흥 해동사에 있다. 대한의군 대장 안중근 동상이 함평에 있다. 대한민국 제 1호 동상이 장성 상무대에 서 있다. 전 국민의 뜻을 모아 1961년 광주공원에 최초로 건립된 ‘대한의사안공중근 승모비’가 안중근 의거 110주년 하루 전인 2019년 10월 25일 광주 중외공원에 재건립되었다.

안중근의 혼이 함께 숨 쉬는 항일의 땅 남도, 그 남도 끝자락 장흥에서 안중근이 염원했던 ‘동양평화’를 이어 21세기 평화의 꿈을 시작해보자.

위패봉안식 봉안문

삼가 생각건대 공명정대하신
 불세출의 호걸 의사
 절대 위인으로
 게다가 충효를 겸하셨는데
 누가 이와 겨루랴.
 때에 뜻을 행하고
 일을 도모함에 변화에 응대하였네.
 오직 마음을 한결 같이하여
 공명정대하고 빛나네.
 씩씩하고 굳세어
 홀몸으로 대만을 부지하셨네.
 계획은 장모에 나오고
 의리는 문모와 같네.
 하얼빈 역 천둥소리에
 온 나라 놀랐네.
 저 큰 도둑을 미워하여
 호랑이를 찢어 죽이고 고래를 베었네.
 국혼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민족이 되살아났네.
 하늘에 붉은 해
 해동에 밝은 달
 호남의 양지쪽 만수
 회현^{안향}을 모신 이곳 사우
 그 곁에 사당을 세우고
 영령을 여기 편히 모셨네.
 위로는 어진 조상 있고
 의로운 후손 옆에 있네.
 이에 좋은 날을 만나
 향기로운 제물 올리네.



안중근 의사 연보

- 1879.9.2**
황해도 해주 출생
3남 1녀 중 장남
이명은 응칠
- 1885년(7세)**
유학과 사냥술을 익힘
- 1894년(16세)**
황해도 출신
김아려와 결혼
- 1897년(19세)**
천주교 입교
토마스로 세례를 받음
- 1898년(20세)**
전도 활동에 열중
- 1902년(24세)**
장녀 현생 출생
- 1906년(28세)**
돈의학교와
삼흥학교 운영으로
구국영재 양성
- 1907년(29세)**
국제보상회 설치
국의 의병부대 창설을
위해 간도와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활동
- 1908년(30세)**
대한의군 조직
참모총장의 직책으로
무력항일운동
- 1909년(31세)**
-3월 동의단지회 조직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히
로부미를 사살 후 대
한민국 만세 삼창, 러
시아 헌병에 체포
-11월 3일 뤼순감옥 수감
- 1910년(32세)**
-2월 14일 사형선고 받음
-3월 15일 자서전
'안중칠 역사' 탈고
-3월 26일 미완성의
'동양평화론'을 남긴 채 교수형으로 순국

문예의 전통을 잇다,

현대 장흥의 문인들

장흥은 ‘문학의 고을’이라 할 만큼 유명 문인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가사문학의 효시인 백광홍의 「관서별곡」이 널리 불린 이래, 조선시대 내내 가사문학을 비롯한 주옥같은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은 전통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뛰어난 시인과 소설가들이 배출되었다. 소설가 송기숙, 이청준·한승원·김석중·이승우, 시인 이성관·이한성·박순길·김영남·위선환, 시조시인 김제현, 아동문학인 김낙촌 등 50여 명의 작가들이 나왔다. 이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천관산 문학공원과 천관산문학관이 있다.

특히, 『당신들의 천국』과 『서편제』의 작가 이청준, 『그 바다 건너 넘치며』와 『아제아제바라아제』의 작가 한승원, 『암태도』와 『녹두장군』의 작가 송기숙 등은 현대 한국문학에서 획을 긋는 작가들이다.

1 진실된 삶의 추구, 이청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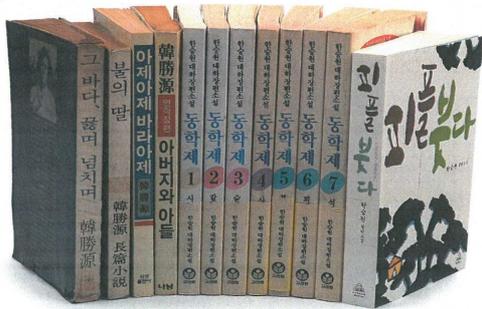
1965년 《사상계》에 단편 『퇴원』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이청준^{1939~2008}은 『병신과 머저리』 창작과 비평, 1996.9, 『과녁』 창작과비평, 1967.9, 『소문의 벽』 문학과 지성, 1971.6, 『잔인한 도시』 한국문학, 1978.7 등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글쓰기의 문제와 종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진실된 삶을 가로막는 억압의 실체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병신과 머저리』·『소문의 벽』 등이 있다. 특히, 『병신과 머저리』는 사회적 억압의 실체에 대한 끈질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전쟁의 체험을 상처로 간직하고 있는 형과 화가인 동생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병신’ 세대인 형은 억압의 실체가 한국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그것이 극복도 가능하지만, 아픔만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머저리’ 세대인 동생은 근원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진실된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를 그린 작품으로 『이어도』·『당신들의 천국』 신동아 1974.4~1975.12, 『잔인한 도시』 등이 있다. 『당신들의 천국』은 ‘현실 속에서 이상향의 건설은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치고 있다. 그의 소설에 나타나는 기본 관점은 진실과 거짓, 자유와 억압, 사랑과 증오 등의 이분법에 기초한 초월적 이상주의적이며, 『당신들의 천국』은 이러한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소설집으로 『별을 보여 드립니다』¹⁹⁷¹, 『가면의 꿈』¹⁹⁷⁵, 『예언자』¹⁹⁷⁷, 『낮은 데로 임하소서』¹⁹⁸¹, 『자유의 문』¹⁹⁸⁹, 『흰옷』¹⁹⁹⁴, 『날개의 집』¹⁹⁹⁸ 등이 있다.

2 바다 앞에서 영원한 '학생', 한승원



“또 바다냐, 그렇게 쓰고도 지겹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내 문학의 발원지는 ‘바다’예요. 바다는 우주의 자궁이며, 생명의 시원이고 근원이지요. 제겐 바다는 무궁무진한 미지의 블랙박스라고 느껴 집니다. 품어내고 품어내도 한없는 이야기의 방주죠.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바다를 공부해도 전 영원히 ‘학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향의 역사적 현실과 숙명에 천착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남해 바닷가의 풍경을 토착어가 살아 있는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삶에 대한 토속성과 한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그는 1968년 《대한일보》에 『목선』이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까치노을』·『패촌』·『포구의 달』·『해변의 길손』 등 대표작들은 고향인 남해 바닷가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게 남해 바닷가는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 한국근대사가 압축된 곳이며, 그 안에 존재하는 억압과 해소를 표출하는 원형상징적인 공간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바다와 마찬가지로, 운명에 구속된 채 그에 맞서는 과정에서 비극을 구현함으로써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운명과 대면하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그가 구사하는 토속적인 언어는 삶의 구체적인 감각과 섬세함을 극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는 ‘생명력’을 주제로, 인간 중심주의적 문명에 대한 반성과 극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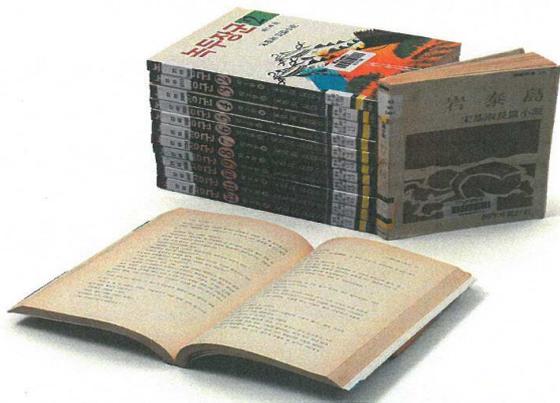
주요 작품에 『다산』·『불의 딸』·『포구』·『아제아제바라아제』·『아버지와 아들』·『해일』·『시인의 잠』·『동학제』·『아버지를 위하여』 등이 있다.

3 온몸으로 쓰는 '천연기념물', 송기숙



송기숙이 쓴 항소이유서

누가 이르기를 누가 정색으로 말하기를
천연기념물 송기숙
광주는 그가 있어 광주가 참다웠다
아무리 바람 찬 세월일지나
그가 있어 광주의 밤이 착하디착하였다
70년대 후반 이래
세칭 교육지표사건 이래
그의 행로는 위태위태 아리따웠다
(...)
그에게 가거라
원시 비슷한 것 짐작하려거든
그에게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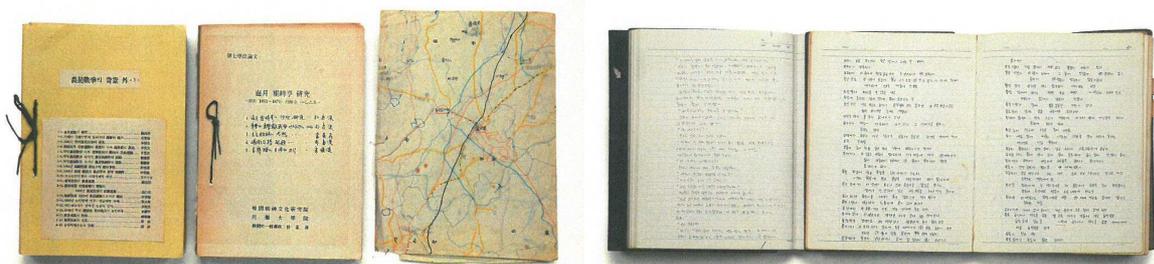


고대 비슷한 음덕을 맛보려거든
 그는 손으로 쓰다가 발로 쓴다
 차라리 정신 따위는
 자칫 관념을 날아버려
 그는 몸으로 쓴다
 소설 <암태도>를
 소설 <재수 없는 금의환향>을
 (...)
 - 고은, 『만인보』 12권

회산 송기숙은 삶과 문학이 일치하는 대표적인 실천적 작가이다. 그의 문학적 지향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근거에서부터 비판하고 고발하여 이를 개선하고 변혁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보다 나은 사회를 염원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표현이자 문학을 매개로 하는 정치적 요구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며 역사적이고 또한 정치 지향적이었다.

송기숙은 1935년 7월 4일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육산리 산변지에서 아버지 송복도와 어머니 박본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진도, 전주를 거쳐 장흥군 용산면 포곡리로 이사했다.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해방을 맞았으며 6·25전쟁을 겪으며 중학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를 마쳤다. 이러한 경험들은 동학의 후예였던 외할아버지와 고등학교 때의 은사 김용술의 영향과 함께 송기숙 문학의 모태가 되었다.

송기숙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실천가였다. 1978년 전남대학교 교수 10명과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한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1년을 복역했고 교수직에서 파면되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학살을 목격하고 학생수습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내란죄를 적용받아 10개월을 복역했다. 1984년 대학에 복직하였고 1987년 강만길·리영희 등과 함께 『5·18광주민주항쟁 사료전집』을 발간하였으며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창립하여 초대 의장을 지냈다. 199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1996년 전남대학교에 ‘5·18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지냈다.



(좌) 『녹두장군』 집필 당시 조사한 자료집과 지도 · (우) 『녹두장군』 친필 원고

1966년 단편소설 『대리복무』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0년대 전쟁과 분단을 소재화한 소설 『어떤 완충지대』¹⁹⁶⁸, 『백의민족』¹⁹⁶⁹ 등을 썼으며, 이후 농민과 농촌문제를 형상화한 소설 『자랏골의 비가』^{1977~95}를 썼으며, 1920년대 소작쟁의를 다룬 『암태도』¹⁹⁸¹를 썼다. 동학농민혁명의 전 과정을 다룬 역작 『녹두장군』^{1987~94}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하층민들의 의식과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개는 왜 짚는가』¹⁹⁸³, 『부르는 소리』¹⁹⁸⁷, 『오일의 미소』²⁰⁰⁰ 등도 암울한 사회현실을 역사적 시각에서 풀어낸 작품들이다.

A misty mountain landscape with a path leading through a valley. The text is overlaid on the image.

기행紀行이란
길 위에서 인간이
문고^{人問} 인간이
듣고^{人聞} 인간이 새기는
무늬^{人文}이다!